

제2장 군포시의 지명

1. 지역사, 향토사와 지명

1) 지명은 향토를 가꾸는 문화재

태초에 완용께서 태백산(太白山) 꼭대기 신단수(神檀樹) 아래 내려와 신시(神市)를 열고, 단군께서 처음 아사달(阿斯達)에 도읍을 정한 이래 이 땅위에 수 많은 지명이 생성·변천·소멸되어 왔다. 만약 지명이 없다면 인류의 문화사를 구성하는 두 가지 고유명사 중 인명(人名 : 누가)만 있고, 장소地名 : 어디)가 빠짐으로써 역사를 바로 서술할 수 없게 된다.

지명이란 무엇인가? 지명은 땅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언어로서 너와 나, 우리들 사이에 있는 무언의 약속이자 공감대이고, 그 말이 없으면 그 곳을 떠올릴 수 없는 절대적 언어(적어도 인위적인 지명의 변경이 없는 한)가 바로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하여 표현된 언어중의 하나가 바로 지명이다.

사람들은 처음 먼 곳과 가까운 곳, 높은 곳과 낮은 곳, 큰 것과 작은 것, 위와 아래 등등 어떤 곳을 구분하기 위한 필요에서 지명을 만들기 시작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지명을 사용하는 언중(言衆)에 의하여 역사가 보태지고, 인물이 더해지고, 이야기가 붙여지게 되는데, 이것을 필자는 '지명이 살찌는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어떤 지명설화, 어떤 지명전설도 그것을 허황하고 꾸며진 이야기로 매도하기보다는 그 내용에 담겨진 언중들, 그 당시 기층 민중의 의식과 생활상을 담고있는 자료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지명은 자기의 분위기,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포즈를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따름이며, 어떤 지명을 호명(呼名)하여 불러주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선인들의 음성을 통하여 '온고지신(溫故而知新)'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이름(人名)이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1회적이며, 한시적이며, 의도적 작명(作名)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 비하면 지명은 집단적이며, 자연발생적이며, 관습적으로 생성된 생활어로서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그 계승성(繼承性)과 소중함을 이찌 인명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지명은 저마다 그렇게 부르게 된 사연이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그 이휘 속에 녹아들어 있는 국어학, 역사학, 민속학, 지리학 등 문화사적인 값진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틀어 '지명문화재'라고 이름하는 소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설혹 지금 조사된 자료가 그 유래나 명명 당시를 알 수 없다면, 그 위치가 확실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선 그 어휘만이라도 조사해서 수집해 놓지 않으면 곧 사라져 버릴 언어문화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2) 지명은 지역사 연구의 요람

모든 사람은 지명으로 태어나고, 지명 위에 살다가, 지명 속에 묻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공기의 소중함을 망각하듯이, 지명에 대해서 지극히 무관심한 편이다. 한편 모든 도시는 그 자체로서 역사이고 문화이어야 한다. 더구나 군포시처럼 신도시 조성에 의하여 생성된 도시에서는 군포지역의 지명이 이 고장 출신의 토박이가 되었던 아니건 군포시민을 군포사람답게 만드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흔히 국토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경(京)과 향(鄕),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지역이 모여 지방을 이루고, 지방이 모여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취락의 형성 → 고을 → 지방 → 국가라는 틀에서 보면 서울도 역시 하나의 지방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 만하저면 국토를 경(京)과 향(鄕)으로 나누어 불렀던 것은 왕조시대에 국왕을 중심으로 지방을 내려다보고 호령하던 시전의 낡은 사고방식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 향토사를 공간적으로 이해하면 국토사 속의 작은 조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작은 조각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일부분이다. 또 문화사적으로 보면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던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는 향토성이 강한 집단적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서 지명은 그 지역사, 향토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가령 '수리산'이라는 이름을 예로 들어보면, 그 이름의 연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산을 둘러싼 시흥, 안산, 파천 등 관련 고을의 변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군포천'에 대하여 옛 지지에는 학의천이 흘러들어 와서 호계를 지나 안양시내 중심을 흐르는데 그곳까지 부르던 이름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군포천'이라는 이름이 안양천에

흡수되어버리고 말았으나, '포(浦)'라는 물가지명이 만해주듯이 '군포'는 어긋 하천가의 이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처럼 지명은 향토사의 뿌리가 되면서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지명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모국어적(母國語的) 의미가 강하다. 지명은 고향의 정서, 어릴 때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향토애의 뿌리가 되며, 나아가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일,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하는 일 등등이 지명을 대체로 하여 하나로 결속되는 힘을 모으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애향심이 곧 애국심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군포지역에서는 다행히 류지호 선생 등 뜻있는 분들에 의하여 「군포시 지명유래집」이라는 책자가 이미 1999년도에 만들어짐으로써 신도시 개발과 함께 자칫 사라질 뻔한 소중한 이름들이 대부분 조사·보존되고 있었다. 이것은 군포시의 지역사나 향토사 연구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 군포시의 연혁과 지명변천

1) 고려시대 이전까지

군포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곳은 처음 마한(馬韓)의 영토에 속하였던 곳이다. 그후 삼국이 정립하면서 백제의 영토가 되었고, 475년(장수왕 63)고구려가 수도를 만주 압록강 연안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면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였으며, 이때 백제의 개로왕은 아차성 아래에서 전사하였다.

이때 군포지역과 지리적으로 연관된 세 고을은 다음과 같다.

- 안산군(安山郡) - 백제·고구려의 장항구현(章項口縣)
- 시흥군(始興郡) - 백제·고구려의 잉벌노현(仍伐奴縣)
- 과천군(果川郡) - 백제의 동사할현(冬斯勞縣)이었다가 고구려 때는 읍목군(栗木郡)이 되었다.¹⁾

그후 551년(전흥왕 12) 신라의 복진과 한강유역 점령, 676년(문무왕 16) 신라의 삼국통일을 거치고 나서 685년(신문왕 5) 전국의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9주 5소경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757년(경덕왕

1) 세 고을의 삼국시대 첫 시작이 고구려로 된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대동지지』의 위 세 고을 연혁을 따름.

16) 전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개편과 함께 지방변경을 단행하였는데, 이때 우리말을 이두로 표기한 3~4 글자의 이두식 지명을 중국식의 2 글자 지명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옛 고구려·백제의 영토를 포함하여 온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지명개편이며, 우리 나라 지명을 중국식 한문표기로 바꾸는 대대적인 작업이었다. 이때 위의 세 고을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 안산군 : 장항구현 → 장구현(章口縣)
- 시흥군 : 잉벌노현 → 곡양현(谷壤縣)
- 과천군 : 읍목군 → 읍진군(栗津郡)

2) 고려·조선시대

신라의 멸망과 함께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신라 경덕왕 때부터 시행하여 오던 주·군·현 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의 지명을 전면 개편하였으니 이 때가 940년(태조 23)이다.

- 안산군 : 장구현 → 안산현(安山縣). 1308년(충렬왕 34) 안산군으로 함.
- 시흥군 : 곡양현 → 금주(衿州) 또는 검주(黔州). 고려 성종 때 별호를 시흥(始興)이라 함.
- 과천군 : 읍진군 → 과주(果州). 고려 성종 때 별호를 부림(富林) 또는 부안(富安)이라 함.

고려가 망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1402년(태종 2) 경기 좌·우도를 경기도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1413년(태종 13) 전국에 걸쳐서 지방행정구역과 행정지명을 개편하였다. 또한 이 때 전국을 현재의 8도제(경기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로 정착시켰다.

이 때 고을 이름을 개편하게 된 것은, 종2품 부윤(府尹)이 부임하는 도호부(都護府)나 정3품 목사(牧使)가 부임하는 목(牧) 이외의 고을 이름에는 '주(州)'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고을 이름의 끝(語尾)에 '산(山)' 또는 '천(川)'을 붙이게 함으로써, 부사나 목사가 다스리는 고을과 현감이나 현령, 군수가 다스리는 고을을 명칭에서부터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 안산군 : 안산군 → 이름을 그대로 함. 1466년(세조 12) 별호를 연성(蓮城)이라 함.
- 시흥군 : 금주(衿州) → 금천현(衿川縣). 1795년(정조 19) 금천현을 시흥현(始興縣)으로 고침.
- 과천군 : 과주 → 과천현(果川縣)

1414년(태종 14) 과천현과 금천현을 하나로 합하고 두 고을의 머리글자를 합하여 금과현(金果縣)이라 하였다가 금방 폐지하고 원래대로 복구하였다. 이어서 다시 1456년(세조 2) 또 두 고을을 병합하였다가 곧 폐지한 뒤 원래대로 환원하였다.

한편, 군포지역은 1759년(영조 35)에 만든 『여지도서』에 과천현의 면명과 방리가 나오는데, 이때 과천현 남면의 지역이었다. 그러다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처음으로 과천 고을 각 면의 이름과 함께 면별 이명(里名)이 나오는데, 남면은 다음의 7개 리로 되어있었다.

- 금정리(衿井里)
- 당리(堂里)
- 봉성리(鳳城里)
- 당정리(堂井里)
- 장간리(章千里)
- 산저리(山底里) ※산저리는 1871년 산본리(山本里)로 고쳐짐.
- 부곡리(富谷里)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으로 전국의 지방제도에 대한 개편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의 권고에 의한 것으로 이때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가 실시되었으며, 종전의 목·부·군·현을 일제히 군으로 고쳤으나 이듬해(1896년) 다시 13도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때 안산군·시흥군·과천군은 모두 경기도의 4등군에 속하게 되었다.

3) 일제시대 이후 - 현재

일제에 의하여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전의 과천군 남면(南面)과 안산군 북방면(北方面)의 동리는 다음과 같다.²⁾

- 과천군 남면(10개리)
 - 산본동(山本洞) - 당리(堂里) - 용호동(龍虎洞)
 - 장간리(章千里) - 부곡리(富谷里) - 피곡리(槐谷里)
 - 금정리(衿井里) - 당정리(堂井里) - 봉성리(鳳城里)
 - 초막동(草幕洞)
- 안산군 북방면(北方面) (9개리)
 - 속달1리(速達一里) - 속달 2리 - 속달 3리

2)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1912.

이보다 앞서서 이미 1973년 7월 1일 시흥군 안양읍이 안양시로 승격되었고, 1979년 4월 28일 시흥군 과천면이 경기도 과천시구 지원사업소로 떨어져 나갔으며, 1981년 7월 1일 시흥군 소하읍이 평명시로 승격되었다. 말하자면 1914년 일제에 의하여 과천군과 안산군, 시흥군이 시흥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통합되었던 역사는 '시흥없는 시흥'이라는 말을 들었으며(옛 군청소재지였던 '시흥'이 서울특별시로 이미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군포시 역시 '군포없는 군포'(구군포가 안양시 호계동에 소재함)라 하여 바쁘게 나누어지는 땅으로 널리 회자되었던 곳이다.

한편 군포시의 승격 이후 행정동사무소의 개편은 다음과 같다.

- 1992년 5월 1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금정동을 금정동과 재궁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7개 동)
- 1993년 1월 6일 시 조례에 의하여 군포시 청사를 당동에서 금정동으로 이전하였다.
- 1993년 1월 14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개궁동을 개궁동과 오금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8개 동)
- 1993년 6월 8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산본 2동을 산본 2동과 수리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9개 동)
- 1994년 7월 19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수리동을 수리동과 근대동으로 관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0개 동)
- 1995년 2월 28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산본 2동을 산본 2동과 광정동으로 분동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1개 동)
- 1994년 12월 29일 시 조례에 의하여 화성군 반월면의 대야미리, 둔대리, 속달리, 도막교리의 4개 리를 군포시에 편입하고 행정동사무소를 대야동으로 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2개 동)
- 1998년 10월 8일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사무소 당정동을 군포 1동에 통합하였다. (군포시 전체 행정동 11개 동)

3. 군포의 지명유래

1) 군포지역 주요 지명의 이해

(1) 군포(軍浦)와 군포(軍砲)

‘군포’라는 이름은 언제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많은 지명이 그렇듯이 ‘군포’라는 이름도 역시 처음 명명된 시기와 그 내력에 대하여 확실한 출전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연원에 대하여는 출처 불명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제보한 기록이 있을 뿐이며, 인근의

지명을 통하여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소재만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군포라는 이름은 현재의 군포시와 인접한 안양시 호계동 사이를 흘러서 남출북류(南出北流)하는 안양천 상류를 '군포천(軍浦川)'이라 하였음이 이미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유지』에 나오고 있으므로 문헌상으로는 3백년이 넘는 오래 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이 일대는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지역이었다.

이 군포천 지역은 정조 연간에 화성축조를 위한 서울 - 수원간 도로가 새로 뚫리고 임금이 현통원 전배를 위한 화성행궁, 금천행궁, 안양행궁이 설치됨에 따라 임금이 다니는 길을 '시흥로(始興路)'라 하였다. 처음 정조의 거동이 과천을 거쳐서 화성으로 간 길을 '과천로(果川路)'라 하였는데, 어개(御苑) 행렬이 험한 남태령을 넘는 인과,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군포를 거치는 노정으로 바꾸게 되었으며 그 길이 시흥로(금천로)이다.

이 시흥로의 노정은 서울 돈화문 → 승례문 → 노량주교(舟橋) → 장생원(長生峴 : 장승백이) → 시흥행궁 → 만안교(安陽) → 군포천교(軍浦川橋) → 사근찰행궁 → 지지대고개 → 수원 장안문 → 화성부행궁 → 팔달문 → 상류천점(上柳川店) → 대황교 → 현릉원 제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노정 83리 중에도 '군포천교'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군포천교'는 오늘날의 군포교와는 다르며, 그때의 군포천교는 지금의 호계교 부근으로 보고있다.

이 군포천의 옆, 지금의 안양시 호계 3동 구군포 4거리 일대에 조선후기부터 5일과 10일에 형성되는 시장을 군포장이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찜포를 뜻하는 '군보천점(軍堡川店)' 또는 '군보천(軍鋪川)'이라고도 하였으며, '군포' 또는 '군포장'이라는 이름은 1900년대 초에도 서울과 한강 남쪽의 경기지방에서는 널리 알려진 이름이었다.

한편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정부로부터 경부선 철도부설권을 얻고 1904년 경부선을 개통하면서 지금의 군포역 이름을 처음에는 (1905년 1월 1일부터) '군포장역(軍浦場驛)'이라 하였으며, 경술국치 이후에는 이곳에 '군포장 순사주재소'를 들만큼 중요시하였던 곳이다. 그후 1926년 안양시 안양 1동에 안양시장이 개설되면서 군포장은 없어지게 되었고, 4) 이 지역은 '구군포(舊軍浦)'라는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 말하자면 '군포'라는 이름의 발상지는 안양시 호계 3동에 남아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1938년 4월 1일부터 일제가 경부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포장역'을 '군포역'으로 고쳤고, '군포'라는 이름은 이미 그 이전 경부선 군포장역이 생기면서 안양천의 북쪽에서 안양천의 서쪽 수리산 밑 동쪽 일대를 뜻하는 이름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오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후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면서 '군포'라는 이름은 행정구역 명칭으로 공식 등장하게

4) 시흥군, 『시흥군지』, 1988, 591쪽.

되었으며, 1989년 1월 1일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군포는 '군(軍)'과 '포(浦)'가 합해진 이름이다. 먼저 '군'에 대하여 살펴보자. '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대개 군 주둔지 혹은 군의 작전, 이동, 보급 등과 관련된 곳에 남아 있으며, 그런 이름으로는 경북 경주시의 천군동(千軍洞)과 북군동(北軍洞), 충남 부여의 군수리(軍守里), 경기도 평택의 군문리(軍門里) 등 여러 곳에 그런 예가 남아있으며, 대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그 유래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군포 지역에서 군사와 관련되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군포(軍浦)'에 관한 이야기 이외에는 소개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군사분야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군군포 지역에 남아있는 '군웅산(軍雄山)'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군웅산은 원래 군군포 지역에 남아있는 아산인데, 미루어 짐작컨대 이 산 이름으로 인하여 '군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군포시민으로서 『군포지명유래집』을 펴낸 류지호 선생이 그 당시 현지 답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산 일대가 지금은 모두 주택가로 되었고, 산꼭대기도 안양시 호계 3동 966 - 1번지 주택가로 되었다고 한다.

군웅산은 이 일대를 말하는데, 그전에는 이곳에서 매년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軍雄祭)를 지냈으며, 이 행사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번영과 무병장수를 비는 행사로서 감전복을 입은 화령이에 의하여 임경엽 장군이 등장하는 등의 제법 큰 민속행사였다고 한다. 군웅제는 당초 호계과출소 북쪽 약 100m 지점의 군웅산 위에서 제를 지냈는데, 1960년 말 이곳에 민가가 들어서자 과출소 북쪽 약 50m 지점으로 옮겨서 제를 지냈고, 그후 이곳도 소유주가 바뀌면서 1980년대 초부터는 아예 군웅제를 지낼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⁵⁾

비록 이곳에서 군웅제를 지내게 된 동기나 내용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전해지는 바가 없으나, 경기도 지방의 서해안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는 임경엽장군 설화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상고할 수 없다. 어쨌든 이 군웅산과 군웅제 행사 등에 의하여 '군포'라는 이름의 '군(軍)'자가 여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군포의 '포(浦)'자는 '개 포(浦)'자로서 해안지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진(津), 포(浦), 호(湖) 등 일반적인 지명 어미의 하나이며, 대개 바닷가의 포구를 뜻한다. 그런데 과연 이곳 안양천 상류의 군포천까지 조수가 내가 드나들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된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많은 예의 지명들이 있다. 곧 해안이 아닌 내륙의 강변, 천변에도 '포(浦)'자를 붙인 예가 많이 있으며, 꼭 조수가 드나들고, 선박의 운항이 가능해야만 '포(浦)'자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⁶⁾ 그것은

5) 류지호, 『군포시의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80 ~ 81쪽.

‘포’가 조선시대에 이미 바닷가의 해안지명에서 내륙의 강변이나 천변의 불가로 그 사용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군포의 ‘포’를 꼭 바닷가나 선박의 접안 유부와 관계없는 불가지명으로 보아도 그 해석에 무리함이 없다고 본다.

다음은 군포의 옛 이름이었다는 ‘군포(軍浦)’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지금의 군포가 본래 ‘군포(軍浦)’에서 비롯되었다는 설로서, 그 내용은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우리 군사들이 왜적에게 패하여 후퇴하다가 지금의 군포에 이르렀는데, 이곳에서 의병을 만나자 전열을 정비하게 되었다. 이때 이 지역 주민들이 굶주린 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우리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높였다. 그후 군사들은 승병과 함께 왜적을 무찔러 전공을 세웠으며, 그때부터 굶주린 군사들이 배불리 먹은 곳이라 하여 ‘배부를 포(浦)’자를 써서 ‘군포(軍浦)’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시대가 바뀌면서 군포(軍浦)가 군포(軍浦)로 바뀌었는데 그 시기가 연유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이 내용을 제보한 이응준 선생(당시 80세)은 그전에 군포읍 당정리장을 지냈던 분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어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아마도 이 지방에 그전부터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를 제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군포지역에는 이외에도 군(軍)과 관련되어 생긴 지명으로 보이는 곳이 또 있다. 대야동의 둔대(屯臺 : 둔터)마을은 옛날 군대가 주둔하여 부르게 된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군내동의 둔전(屯田)마을 역시 군사와 관련된 지명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임진왜란 당시 ‘군포(軍浦)’로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구군포 지역의 군웅산(軍雄山)과 군웅계 행사 등이 결합되어 군포의 ‘군(軍)’자에 유래를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 군포의 ‘포’ 자가 다른 경우가 있다. ‘군포천(軍布川)’과 ‘군포천점(軍堡川店)’(『원행정려』의 도로교량조), 그리고 ‘군포천(軍舖川)’(『대동지지』)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포(布,舖, 또는 舖)’는 이곳에 형성되었든 시장 기능에 의하여 붙여진 글자이거나 유래불명의 동음이자(同音異字), 혹은 단순한 오자로 볼 수 있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2) 군포천(軍浦川)과 안양천(安養川)

군포천이라는 이름은 오늘날 일반 지도에서 하천 명칭으로서는 찾아볼 수 없다. 문헌상 3백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군포천’이 지도에서 사라진 것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 6) 군포와 가까운 인근 의항시 포인동(浦一洞)은 학의천 가에 있는 마을로서 ‘포(浦)’를 쓰고 있다. 가령 내륙지방인 충북 단양의 매포(梅浦), 충북 보은의 송포(松浦) 등등 이런 지명의 예는 매우 많다.
- 7) 내무부, 『지방행정지명사』, 1982, 214쪽 및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0쪽.

민저 '군포천'이라는 이름의 출처부터 살펴보자. 한강의 제 1지류로서 안양천의 상류가 되는 군포천은 남출북류(南出北流)하는 하천으로서 안양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이다. 이 하천을 '군포천'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 된 기록은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증지』이며 이외에 1757년(영조 33)의 『여지도서』, 1861년(철종 12) 고산자 김정호가 만든 『동여도』 등 대부분의 문헌에 '군포천(軍浦川)'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도 1 참조)

한편 안양천은 안양시를 관류하고 안양동 앞으로 흐르기 때문에 부르게 된 이름으로서 안양이라는 이름은 불기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곧 '안양(安養)'이라는 말은 낙방(樂邦) 또는 극락이라고도 하며, 아미타불의 정토를 뜻하는 한편 마음을 평안히 하여 몸을 기른다는 뜻이기도 한 말이다. 안양천은 본래 안양시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를 지나 안양대교에서 합류하는 삼성천을 말하였는데, 일제 때 하천이름을 새로 붙이면서 '안양천'으로 명명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8)

또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지지』(시흥현 산수조)에는 안양천을 '대천(大川)'이라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검암천은 수원의 광고산과 과천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이 모여서 서쪽으로 흘러 군포천이 되고 호계를 거쳐 안양천에서 현을 서남쪽으로 돌아 북쪽으로 흐르는데, 현 서쪽 4리의 지경을 지나 북쪽 15리에 이르러 기탄(岐澗)이 되고 철곳포(鐵串浦)가 되며 양화도 아래서 한강으로 흘러든다"9)고 기록하고 있다.

또 같은 문헌인 『대동지지』의 과천현 산수조에도 군포천(軍浦川)에 대하여 "현 서남쪽 12리인데, 그 아래서 호계(虎溪)가 되고, 또 그 아래서 시흥의 안양천이 된다"고 하였다.10) 또 인덕원천에 대해서도 같은 과천현 산수조에서 "현 남쪽 8리의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군포천으로 들어가고, 하류에서 안양천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11) 이 설명대로라면 현재의 안양천 본류가 되는 청계사천(淸溪寺川)~학의천(鶴儀川)이 박달동과 석수동 입구에 이르는 안양시내의 하천까지를 군포천으로 본 것인데, 그 일대가 그전 시흥현과 과천현의 경계지점이 되는 곳이다. 곧 인덕원천은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군포천으로 합류하고, 그 물줄기가 호계를 거쳐서 석수동과 박달동 입구까지의 구간을 군포천으로 보았던 것이다.12)

모든 강물은 여러 갈래의 무수히 많은 물줄기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 물줄기마다 근원에 뿌리를 갖고 있으며, 그 갈래마다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강이 흘러 내려가는 물굽이마다, 고을마다

8)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20쪽.

9)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85쪽.

10)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83쪽.

11)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976, 83쪽.

12) 류지호, 『군포시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77쪽.

그 강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령 한강의 경우를 보면, 서울에서도 독섬 앞을 동호(東湖), 동작동 앞을 동작강(銅雀江), 마포앞에서는 마포강(麻浦江), 서강(西江) 등으로 불렀고, 금강의 경우에도 공주에서는 금강(錦江), 부여에서는 백마강(白馬江)이라고 부르는 등의 예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지도에서 사라진 군포천이라는 이름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현행 하천법체계의 '안양천'이라는 이름에 흡수 통합되기는 하였으나, 역사적으로 안양천 상류를 이루는 중요한 하천 이름으로서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오늘날에는 하천 이름이 사라지는 대신 '군포시'라는 큰 이름을 남겨놓은 셈이다.

(3) 군포시의 산본(山本)과 일본의 성씨 산본(山本)

우리 나라의 쿠파락은 대부분 배산입수의 예에 의하여 그 입지를 형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워낙 산이 많은 나라이기에 산을 등지고 하천가에 임하여 마을이 들어서서 것은 자연스러운 관습이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많은 지명들이 산과 고개를 따서 붙여진 지명도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지명 중에는 산이나 고개 아래 또는 밑을 뜻하는 재(底), 본(本), 하(下) 등을 어미로 하는 지명들이 있고, 또 산이나 고개를 넘는다는 뜻의 월(越), 유(踰) 등의 이름이 있다.

가령 서울 종로구 현저동(峴底洞)은 무악재 밑에 있는 마을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산재(山底)마을은 만덕고개 아래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 전남 여수시 상암동의 사월채(寺越峙)는 홍국사로 넘어가는 '절너미재'이고, 서울 도봉구 수유동(水踰洞)은 수유=무너미를 한자로 나타낸 것이다.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고개를 넘어가는다는 힘이 들고 땀을 흘리게 되므로 '땀 현(汗)'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남북한 몇 군데에 붙여져 있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내리(汗乃里)는 '땀을 낸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개인 강원도 정선~태백시 사이의 씨리재(1,258m) 아래 있는 고한리(古汗里)는 특히 땀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산본(山本)이라는 이름의 예도 여러 곳에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도 모두 산마을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전남 광양시 옥룡면 산남리의 산본(山本)마을, 경남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山本里),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산본(山本)마을, 전북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산본(山本)마을 등의 이름이 모두 우리말의 '산밭'을 한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들이다.¹³⁾

13) 한글학회, 『한국명어원조사전』 중, 1991, 2775쪽.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군포 산본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산본'이라는 이름의 출처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산본이라는 이름이 일본의 성씨인 '야마모토(山本)'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산본이라는 이름을 고쳐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로서 군국주의 일본을 상징하는 인물의 하나인 사람이 바로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1884~1943)이기 때문이다. 그는 일본의 해군대장과 원수급 지냈고, 노일전쟁의 참전, 태평양전쟁 때는 연합함대 사령관으로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미군 작전계획의 일환으로(일본 국민이 영웅시하는 핵심인물을 제거하는 것) 솔로몬군도 상공에서 전사하였는데, 군포시 '산본'이라는 이름을 일본인들의 우상인 야마모토의 성씨를 따서 붙인 이름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에는 일제 때 '산본'이라는 성씨를 따서 창씨개명한 인사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에 의하여 생겨난 이름으로 오해받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군포시의 '산본'이라는 이름은 일본의 성씨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군포지역(당시 과천현 남면)에 산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1871년(고종 8)으로서, 이때는 야마모토 이소로쿠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13년 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산본리의 본래 이름은 산저리(山底里)였다. 앞에서 산 아래를 나타내는 지명의 어미(語尾)로서 저(底)와 본(本), 하(下) 등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모두 밑이나 아래를 뜻하고 있으며, 산저리(山底里) = 산밑, 산본리(山本里) = 산밑이 현지의 토박이 지명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같은 말이며, 다만 한문표기만이 바뀐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산저'의 '저(底)'라는 표기보다는 '산본'의 '본(本)'이라는 이름이 그 본래의 뜻이나 해석에 있어서, 그리고 부르기도 좋은 이름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본(本)'은 단순한 '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문글자의 생긴 모양대로 나무의 줄기(本)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아가 뿌리나 근본, 바탕을 뜻하는 다양한 쓰임새를 지닌 글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산본'이라는 이름과 일본 성씨와의 관련설에 의한 불필요한 논쟁이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 군포의 산

(1) 수리산(修理山), 태을산(太乙山)과 견불산(見佛山)

산의 동쪽에서는 계상(宰相)이 나고, 서쪽에서는 장군(將軍)이 난다. 즉 사람의 어귀와 어리석음은 그 산천의 명려중탁(明麗)重濁에서 받는 것이니, 성현이 탄생하고,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영험있는 땅에서 난다는 聖人傑地靈이 과연 옳으며...

이것은 『시흥군지』의 산천에 나오는 말이다.

군포시를 형성하는 지리, 지형적 골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쪽에서 서쪽으로 떨어 내린 수리산 산줄기와, 군포시의 동쪽을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안양천(옛 이름 군포천)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자연 조건에 의하여 오늘의 군포시 경계가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북에서 서쪽으로 떨어 내린 수리산맥의 능선에 의하여 군포시, 안양시, 안산시의 경계가 되고 있으며, 동쪽의 안양천에 의하여 군포시와 안양시의 동북쪽 경계가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자연조건 중에서도, 특히 수리산은 군포시를 감싸안으면서 수호하는 형세를 이루고 있는 산이다. 수리산의 최고봉인 태음봉은 높이 489.2m로서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수려한 자태와 맑은 물, 울창한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군포시는 물론, 인근의 안양시나 안산시에서도 저마다 심린욕장이나 휴양림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삼국시대부터 이 산기슭의 산본 일대에서 취락생활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날 수리산은 군포시의 척추가 되는 산이요, 그 청정한 숲은 군포시민의 호흡이 되고 산소공급원이 되며, 곳곳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은 군포인의 삶의 쉼터이요, 도시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포인에게 있어서 수리산은 단순한 지괴(地塊)가 아니라 심신을 맑기는 안식처요, 영혼의 쉼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산을 지금은 통털어 '수리산'으로 부르고 있으나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는 태음산(太乙山), 혹은 견불산(見佛山) 등으로 불렀다. 이것을 문헌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종실록지리지』

- 취암(鷲岩) : 진산 (군 동쪽에 있으며, 그 동쪽은 파천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 수리산(修理山) : 군 동쪽 1리, 일명 견불산(見佛山)

- 취암(鷲岩) : 수리산에 있음.

『파천현 신수읍지』

- 수리산 : 파천현 남쪽 25리, 일명 견불산

- 태음산(太乙山) : 파천현 남쪽 20리

『청구도』

- 수리산 : 안산현 경계내

- 태음산 : 파천현 경계내

『동여도』

- 수리산 : 안산현 경계내

- 태음산 : 표시없음

『대동지지』

- 수리산 : 안산현 동쪽 5리에 있으며, 이르기를 태울산 또는 견불산이라 함. 여기에 크고 높은 취암봉이 있는데, '독수리 취(鷲)'는 방언으로 '수리(修理)'라 함.¹⁴⁾

이상의 문헌 내용을 종합해보면, 수리산의 서쪽줄기, 곧 안산시와 안양시 경계에 있는 취암봉(지금 은 수암봉이라 하며 높이 395m)이 옛 안산고을의 진산¹⁵⁾으로서 취암봉의 '독수리 취(鷲)' 자에서 비롯되어 수리산으로 통했으며, 이 산줄기 중에서 가장 높은 북쪽 489m의 봉우리는 태울산으로 되어 있음을 당시의 고지도¹⁶⁾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도 1 참조)

말하자면, 수리산을 경계로 조선시대의 안산현과 과천현이 나누어졌는데, 이 산에 대하여 안산에서는 취암봉의 수리바위에서 비롯된 수리산 또는 견불산이라 하였고, 과천에서는 태울산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다가 1900년대를 전후하여 같은 산줄기의 연봉(連峰)에 대한 지명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산群(山群)을 하나의 이름인 '수리산'으로 묶어서 부르는 한편, 수리산 연봉 중 최고봉(489m)은 관행대로 태울봉이라고 불러왔던 것 같다. 따라서 문헌상으로 남아 있는 견불산이라는 이름은 현재의 수리산 연봉에는 사용되지 않는 이름이다. 그런데 수리산의 '수리(修理)'라는 이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에 대하여는

- 산봉우리의 바위가 독수리처럼 생겼기 때문이라는 설
- 신라 진흥왕 때에 수리사라는 절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설
- 옛날 대홍수로 천하가 물에 잠겼는데 이 산 꼭대기에 수리(독수리)가 앉았음만큼 남아서 수리산이 되었다는 설
- 조선시대 어느 왕족이 이 산에서 수도하였으므로 수리산(修寺山)이라 불렀다는 설¹⁷⁾

등이 있다.

우리 옛말에 산을 부르는 이름으로는 부리게, 수리(술)계, 모르게, 둔계, 외계 등의 여러 형태가 있으며, 수리산은 그 중에서 전형적인 수리계의 산 이름이다. 이중에는 차(車), 취(鷲), 술(述), 주(酒) 자가 붙은 산(봉) 이름들이 많다. 이것은 봉(峰) 또는 산의 고훈(古訓)이 '술' 또는 '수리'로서 충남 공주의 차평(車嶺)은 수리재(수레고개)가 되고, 충남 아산의 음봉(陰峰)은 본래 이름이 아술(述述)인

14) 김정호, 『대동지지』(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864.

15) 신경준, 『여암전서(旅巖全書)』(산수고) (경인문화사 영인본 1976년) 323쪽에는 “오봉산 서북쪽에 수리산이 있고, 수리산 서쪽에 안산군 치소(현청)가 있다”고 하였다.

16)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과천지도』(고지도, 규 10370).

17) 이증환, 『택리지』, 1751.



<지도 4> 수리산줄기 능선도

데, 여기서 ‘술’이 ‘봉’으로 바뀐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하고 있다. 또 강원도 평창의 주봉(酒峰)은 우리말의 술봉(수리봉)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산을 나타내는 ‘모리’계, ‘부리’계, ‘둘’계 등 여러 갈래의 지명 중에서 수리산은 ‘수리’계의 산 이름이면서, 한편 우리 옛 말에서 높다는 뜻을 지닌 ‘수리(suri)’와 통하는 이름이다.¹⁸⁾ ‘수리’는 ‘정수리’라는 말처럼 으뜸, 높음, 최고라는 뜻을 지닌 만인데, 수리산의 수리도 같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수리산의 ‘수리’를 옛 문헌이나 안산지역에서는 독수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데, 독수리는 높이 나는 새로 유명하다. 독수리는 까마득한 상공을 높이 비상하므로 서양의 신화에서는 주피터의 새로 알려져 있으며, 문학

적으로는 태양과 낮과 밝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¹⁹⁾ 높다는 의미의 ‘수리’와 높이 날아가는 ‘수리’가 서로 통하는 이름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런데, 이 독수리 - 수리 - 수리산과 관련하여 수리산 산줄기 능선을 그려보면 그 형태가 마치 비상하려는 독수리 형상과 신동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도 4, 수리산줄기 능선도 참조)

수리산 산줄기 모양을 설명한 때, 보통 X자형이나 H자형으로 설명하는데 이 산줄기의 능선을 그려보면 영남없는 독수리형태, 곧 독수리가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형태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독수리의 두 날개 중 오른 쪽 날개는 관모봉(官帽峰, 426.2m)과 태을봉(太乙峰, 489.2m)을 잇는 줄기가 되고, 왼쪽 날개는 안산시의 수암봉(秀岩峰, 395m)과 매봉재(335.3m)를 잇는 줄기가 된다. 또 독수리의 두 발 중 오른 쪽 발은 슬기봉²⁰⁾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무성봉(258m)과 감부봉(189.1m)으로 이어지는 줄기이며, 왼쪽 발은 고깔봉에서 갈라진 산줄기가 바람고개(약 200m)와 순산터널로 이어지는 줄기이다.

그리고 이 독수리의 몸통을 이루는 구간이 곧 슬기봉에서 서쪽의 고깔봉으로 뻗은 능선으로서

18) 김장호, 『한국명산지』, 평화출판사, 1993, 308 ~ 309쪽.

19) 이승훈 편저, 『문학상징사전』, 고려원, 1995, 135 ~ 136쪽.

20) 이 슬기봉에 대하여 군포시(류지호씨)에서 펴낸 『군포시 지명유래집』에는 거봉봉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수리산 능선을 답사해 보아도 ‘거봉봉’이라는 표지판은 보이지 않고 슬기봉으로 되어 있었다. 이 점에 관하여는 ‘군포시의 산과 고개’ 항목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이곳이 독수리의 몸통이나 H자형의 중심 축이 되면서 독수리가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모양을 정면에서 볼 때의 형상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이 독수리의 몸통부분(습기봉~고깔봉 사이)에 우리 공군의 군사시설이 들어서 있어서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고 있지만 여하튼 취암(독수리바위) - 수리산 - 공군부대(공군의 상징인 보라매)는 독수리와 같은 매과의 맹금류(鷹)가 기막히게 연결되고 있는 점도 매우 신묘한 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수리산 - 비상하는 독수리의 모양을 군포시의 심복이나 캐릭터로 사용함으로써 수리산 등산이나 군포시의 관광홍보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리산의 또 다른 이름의 하나인 태을산(太乙山)에 대하여는 명칭만 문헌에 전해질 뿐 그 내력에 대하여 따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태을'이란 도가에서 태을성신(太乙星神)을 말하기도 하는데, 가령 지리산을 가리켜 『택리지』에서 태을성신이 사는 곳이라고 하였으며, 태을성은 병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별을 말한다. 또 태을은 곧 태일(太一)로서 만유를 포함하는 대도(大道), 혹은 천지창조의 혼돈의 원기(元氣)를 말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地相)으로 꼽으며, 이런 형상을 천을봉(天乙峰) 또는 태을봉(太乙峰)이라 부른다고 한다.²¹⁾ 그러므로 태을봉이라는 이름은 도가적인 태을성이나 풍수지리적인 태을봉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리산의 또 다른 이름인 건불산(見佛山)은 불가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건불(見佛)'은 불가의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줄인 말인데, 선종(禪宗)에서 '자기의 불성을 깨달아 바로 불로써 각자(覺者)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 수리산 수입봉 및 지장굴(地藏谷)에 연암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중이 일심으로 수도하던 중에 지장보살을 친견하였으므로 절 이름을 지장사로 바꾸었고, 마을이름도 지장골이 되었다고 한다.²²⁾ 수리산을 건불산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이곳에서 지장보살을 친견하였으므로 건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²³⁾ 지금은 수리산의 여러 이름이나 상우리의 이름 중에 '건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곳이 없다.

한편 태을산이라는 이름은 옛날의 관행에 따라 지금은 '태을봉'으로 바뀌어서 수리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그대로 붙여져 있으므로, 지명으로 인하여 지역간, 혹은 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21) 서광석, 『대 절지에 마련된 두 국립묘지』, 『건설교통저널』, 2003. 12월호, 100~101쪽.

22)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72쪽.

23)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111쪽.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수리산'이라는 이름은 각종 정부 발행 지도나 등산 안내도 등을 통하여 이미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명에 대하여는 그 지역 주민들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공적인 기속력(錨束力)을 갖게 된다. 그 까닭은 여러 개의 시 경계를 이루는 산 이름을 어느 한 곳에서 바꾸게 되면 심각한 지명표기상의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수리산은 그 글자가 지닌 의미나 상징성, 발음하기 좋은 점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수리산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봉우리 이외에도 명학봉(鳴鶴峰), 노적봉(露積峰), 쓰레봉, 문봉(文峰) 등이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런 봉우리 중에서 군포시 관내에 해당되거나 구체적으로 봉우리의 위치가 확인된 것만을 여기에 적었다.

(2) 수리산의 봉우리들⁴⁾

□ 감투봉 : 삼파산(三波山)

오금동과 대야동, 군포 2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수리산 거룡봉(솔기봉) 줄기가 남동류하여 솟아오른 산으로서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으므로 감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감투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썼던 탕건처럼 생긴 쓰개의 일종이며, 감투 = 벼슬을 뜻한다. 또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산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당정천(흐린 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월 저수지에 합류하므로 삼파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대야동의 감투봉 전설 참조)

□ 거룡봉(巨龍峰) : 거룡봉⁵⁾ : 솔기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469.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 중에서 태을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데, 종전의 높이 474.8m는 새 지도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이 봉우리는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고깔봉과 함께 독수리의 몸통을 이루는 봉우리이다.

이 봉우리를 경계로 대야동과 수리동이 나누어지며, 이 봉우리의 서남쪽은 군부대시설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산의 본래 이름이 거룡봉이라고 하며, 그 동안 여러 지도에는 이 봉우리를 '수리산'으로 표기하여 왔다. 거룡은 큰 용을 뜻하는데, 그 연원이나 내력은 확실하지

24) '수리산의 봉우리들'에서는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의 주요 봉우리와 고개를 포함하였으며, 그 외에는 수리산 줄기라 할지라도 '기타의 산'에 포함하였다.

25)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1115쪽.

않으나 대개 풍수지리에서는 산 줄기를 내룡(來龍) 또는 용(龍)이라고 하므로 지상학(地相學)의 관점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으며, 뒤에 언급하는 ‘거량’이 ‘거룡’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슬가봉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그 연원이나 내력을 전해주는 기록이 없다.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슬갑다’라는 말에서 ‘슬기’가 나왔으며 슬기는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나 지혜를 슬기라 하고 밝음이나 지혜로움을 뜻한다. 그런데 ‘슬기’가 그전부터 불려오던 이름이라면 같은 수리과(수리산을 뜻하는)의 맹금류인 ‘솔개’가 ‘슬기’로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시흥군지』에 나오는 거량봉의 ‘거량’은 ‘갈’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보인다. 산줄기나 강물이 나누어지는 곳에 ‘갈’ 또는 ‘곶’이 붙은 이름이 많은데 이것은 갈라진다는 뜻의 옛말 ‘가닥’에서 비롯된 이름으로서 고랑, 거랑, 거량 등이 모두 이 ‘갈’ 또는 ‘곶’에서 파생된 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거량’이 ‘거룡(巨龍)’으로 의미부여가 되었을 것이다.

□ 고갈봉

대야동과 안산시, 안양시 경계가 되는 높이 451.5m의 봉우리로서 수리산 줄기 연봉의 하나이다.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거룡봉(슬기봉)과 함께 독수리의 몸통부인(중심부)을 이루는 봉우리이다. 고깔은 천으로 세모지게 접어 만든 종이 쓰는 모지(巾)의 일종이다. 이 봉우리 아래 수리사(修理寺)라는 절이 있으니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 관모봉(冠帽峰)

광정동과 산본 2동의 경계가 되는 수리산의 한 봉우리이다. 군포시를 감싸고 있는 수리산의 가장 동북쪽 봉우리로서 높이 426.2m이다. 관모봉은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오른 쪽 날개의 끝이 되는 봉우리이다. 이 산 아래는 산본 2동의 골안(곡안)마을이 된다. 관(冠)은 지난 날 머리에 쓰던 쓰개를 총칭하기도 하고 또 갓을 나타내면서 벼슬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관모는 관과 모자가 걸친 말로 이 봉우리의 형상이 방향에 따라서는 뾰족하게 보여서 관모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매봉재 : 응봉(鷹峰)

수리산 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안산시 수암동과 안양시 인양동 경계에 있는 높이 334.7m의 봉우리이다. 이 산은 군포시 관내가 아니지만 독수리 형상의 수리산 줄기 중에서 왼쪽 날개에 해당되며, 수암동의 북북서쪽이 되는 봉우리이므로 ‘수리산의 봉우리들’에 포함하였다. 안산시 수암동의 지장촌(지장

골) 뒤에 있는 산으로서 이곳 지장관의 '지장보살 친견선화'에 의하여 수리산의 '견불산(見佛山)'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산 봉우리의 모양이 마치 매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겨서 매봉재 = 응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산을 뜻하는 옛 말로서 매봉은 부리게, 수리게, 들개, 뱀 등 여러 형태의 형태가 있는데 매봉은 뱀 - 매의 형태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 무성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258.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의 거룡봉(솔기봉) 줄기가 동남류하다가 솟아 오른 봉우리로서 군포시 환경관리소 서쪽에 있다.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의 연봉 중에서 오른 쪽 발의 중간이 되는 봉우리이다. '무성봉'이라는 이름의 내력이나 연원을 알려주는 문헌 또는 구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바람고개 : 풍령(風嶺)

대야동(속달) 남다골에서 서북쪽의 안산시 장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 193.8m이며,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이 세기 때문에 바람고개라 부른다고 한다.²⁶⁾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왼쪽 발에 해당하는 산줄기이다. 『계림유사』에 “풍알패담(風日字履)”이라 하였고 ‘파문’이라고도 썼는데 오늘날의 ‘바람 = 풍’과 일치한다.

□ 수암봉(秀岩峰)

수리산 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안산시 수암동과 안양시 안양동의 경계에 있는 높이 398m의 봉우리이다. 이 산은 군포시 관내의 산이 아니지만 독수리 모양의 수리산 줄기 중에서 왼쪽 날개의 중간에 해당하므로 ‘수리산의 봉우리들’에 포함하였다. 이 산은 이전 안산 고을의 진산(鎭山)으로서 취암(鷲岩 : 수리바위, 혹은 독수리바위라는 뜻)이라 불렀으며 『대동지지』에는 ‘취(鷲)’의 방언이 ‘수리’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곧 수리산이라는 이름이 이곳 수리바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뒷날 취암이라는 이름이 산봉우리가 수려하다는 뜻의 수암봉(秀岩峰)으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산 아래 쪽에는 안산시에서 조성한 삼림욕장이 있다.

□ 태을봉(太乙峰)

광정동 뒤 수리산에 있는 한 봉우리이다. 높이 489.2m로서 수리산 줄기의 최고봉이 된다. 옛 지나기도에는 안산의 수리산, 과천의 태을산이 따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수리산 능선을 경계로

26) 백여기씨 (남, 대야동 속달동 남다골 마을 이장)증언.

두 고유의 경계가 나누어졌거나 수리산 귀암봉(수암봉)이 옛 안산 고유의 전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도 3 참조) 독수리 형상을 이루는 수리산 줄기 중에서 태음봉은 오른 쪽 날개의 중간을 이루는 봉우리이다. (수리산 줄기 능선도 참조) '태음'이란 도가에서 '태음성신(太乙星神)'을 말하는데 병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별이다. 또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날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地相)으로 꼽는데, 그런 형상을 천음봉(天乙峰), 또는 태음봉(太乙峰)이라 부른다고 한다.²⁷⁾ 태음은 또 태일(太一)로서 천지 창조의 혼돈의 원기를 뜻한다.

(3) 기타의 산

□ 구봉산(九峰山)

대야동의 도마교동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45.5m의 산이다. 의왕시 초평동의 옷새우대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를 9개로 보기는 어려운데, 구봉산의 내력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굽은산'이거나 '구분산'이 변한 이름으로 보이기도 한다. 산 아래 서쪽 기슭에 새골 마을이 있다.

□ 금성산(錦城山)

대야동과 군포 2동(부곡동) 사이에 있는 높이 122.4m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 진입로의 바로 동쪽에 있는 산이다. 금성에 대하여는 따로 전해지는 문헌상 기록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누진봉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가 되며, 동쪽은 의왕시와 접하는 높이 113.3m의 산이다. 구봉산 능선의 북쪽 줄기가 되며 그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누진'은 '느러짐'이 방언화하여 느진·누진이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구봉산 줄기가 북쪽으로 길게 늘어졌기 때문이다.

□ 당산봉(堂山峰)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산이다. 군포 역 서쪽 당동체육공원 부근의 야산으로서 이곳에 도당 체를 지내는 영당이 있으므로 당산봉이라 한다. 폐교가 된 계명신업고등학교 뒤(서)로서 높이 139.1m의 산이다.

□ 동산(洞山) : 동산공원

채곡동과 금정동에 걸쳐있는 시민휴식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이며, 군포시청의 뒷산이 되며

27) 서광석, 「대 길지에 마련된 두 국립묘지」, 『건설교통저널』, 2003, 100~101쪽.

이곳에 현충탑이 서 있다. 보통 마을 산을 가리켜 등산 또는 등미라고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동그란 산을 등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산 현충탑이 서 있는 지역은 조선시대 여산 송씨 문중의 사패지(賜牌地)로서 문중에서 군포시에 현충탑 건립 부지를 기증한 것이다. 그 아래 여산 송씨 문중의 목암계 제설이 있다.

□ 모자간산(母子間山) : 모자산(茅子山)

군포 1동(당정)의 정제이들 북쪽에 있는 높이 84.2m의 산이다. 의왕시 정원고등학교의 바로 서쪽에 있는데 지금은 도시내 공원으로 바뀌었고 도로 개설로 산 일부가 잘려나가는 등 그 형태가 변하였다. 이 산에 떠꽃(浮)이 많이 나서 모자산이 되었다는 설과 동쪽 의왕시 오봉산(五峰山)과 모자간(母子間)의 산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 밤바위산 ; 밤배산

오금동과 군포 2동의 당동마을 경계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181.7m의 산이다. 군포시내를 동북~서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수리산 산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그 밑으로 금당터널이 뚫렸다. 오금동 오금자리 동쪽 병풍바위와 이 바위 아래 산기슭에 있는 밤벌을 묶어서 밤바위산, 밤배산이라 부르기도 하며²⁸⁾, 예전부터 좋은 경치를 전망할 수 있는 곳으로 이름 높았다.

□ 우래산(우뢰산 : 雨雷山) : 안산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 동북쪽에 있는 높이 268m의 산이다. 천지 개벽 때 이 산이 만일저수지 등남쪽에 있는 테미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테미산이 먼저 앉았으므로 울면서 이곳에 앉았다 하여 우래산이라 부른다고 한다.²⁹⁾ 한편 이 산을 둔디에서는 인산이라 하고, 속밭에서는 우래산이라 부른다고도 한다.³⁰⁾ 옛날 고구려가 남산평(안산시 팔곡동)에 도읍을 정하려고 하는데 테미산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 산이 울면서 밀려와 이곳에 앉았으므로 도읍지로 부적합해져서 취소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산이 9개 봉우리로 되어 있고, 그 중 3개소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 우래산(雨來山)

재궁동과 군포 1동 경계의 군포 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127.5m의 산이다.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우래산’의 내력에 대하여는 문헌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지명의 글자대로라면 비가 온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인데, 옛날 혹시 이 산에서 기우제를 지냈는지

28)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38쪽.

29)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28쪽.

30) 김광영씨(남, 77세, 대야동 둔터마을)의 2인 증언.

모를 일이다.

□ 지봉산(芝峰山)

군포 2동(부곡)의 무작골 마을 서북쪽 차들박이골 남쪽에 있는 높이 111.4m의 산이다. '지봉(芝峰)'은 조선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의 호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지(芝)'는 지초(芝草)를 뜻하며 난초와 함께 군자에 비유하였으므로 지명에도 많이 쓰인 글자이다. 그전에 의왕시 웃새우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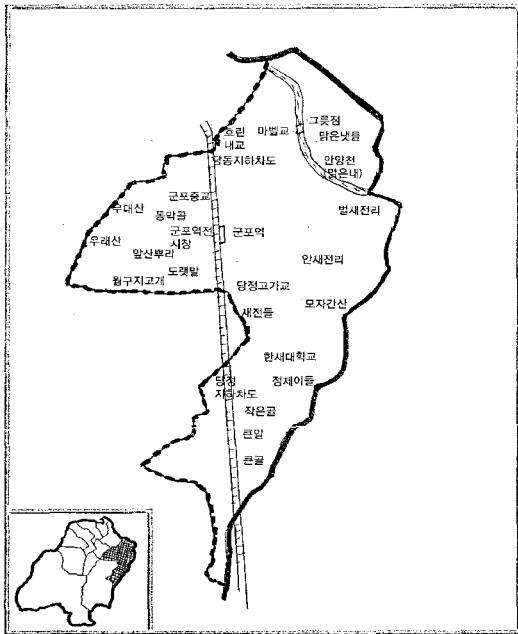
□ 테미산

대야동(둔대)의 반월저수지 제방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58.2m의 산이다. 산 정상으로 안산시와 군포시 경계가 지나간다. 둔터마을 동북쪽의 우래산이 이 산 때문에 북쪽으로 밀려나서 테미산 남쪽 남산평이 서울이 되지 못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우래산 전설 참조) '테미'는 대개 산 위에 성터가 있는 경우에 붙여지는 이름으로서 '테'를 두른 '외'라는 뜻이다. '테'는 테두리를 말하며 나무의 나이테, 장터의 터와 동근어(同根語)가 되며 '위(圍)'의 뜻을 지닌 말이다.

4. 각 행정동의 지명

1) 군포1동(軍浦一洞)

(1) 관내도



군포1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군포동은 원래 과천군 남면(南面) 당리(堂里)에 속한 지역으로서 안양천의 동쪽을 지나 국도1호선 및 호계로를 경계로 안양시 호계동과 접하고 그 남쪽으로는 철도차량기지 일대까지 의왕시와 접하고 있다.

‘군포’라는 이름은 지금 안양시 호계3동의 그전에 군포장이 있던 사거리일대를 부르던 이름이었으나 1904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1905년 1월 1일부터 군포장이 업무용 시작하면서 이 군포지역(1938년 4월 1일 군포역이 됨) 부근에 민가가 늘어나서 점점 번창해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호계3동의 그전 시장 일대를 구군포, 구장터, 구군포사거리 등으로 불렀으며 ‘군포’라는 이름은 안양천을 건너서 지금의 군포역 일대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군포’에 대하여는 다음의 (3) 관내의 지명 중 ‘구군포’와 ‘군포역’, ‘군운산’ 등을 통하여 설명하였고 또 ‘군포지역 주요지명의 이해’에서 따로 소개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이 지역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戶口總數)』에 과천현 남면의 7개 리 중 당리(堂里)와 당정리(堂井里), 봉성리(鳳城里 : 새전리)가 속한 지역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으며 이때 당리와 송호동(龍虎洞)을 합하여 당리로, 당정리와 봉성리(새전리)를 합하여 당정리가 되었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당리(당동)의 일부를 군포 1동으로, 당정리를 당정동으로 하였다가 1998년 10월 8일 행정동사무소인 당정동을 폐지하고 군포 1동에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군포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군포 1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한세대학교와 군포중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구군포(舊軍浦) : 구장터(舊場-) : 군포장(軍浦場)

지금의 군포시 관내가 아닌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의 옛날 군포장이 있던 곳인데 편의상 군포동에 포함하였다. 이곳은 구군포사거리, 구장터, 구군포 등으로 부르고 있으며 5일과 10일(혹은 2일과 7일에 장이 섰다는 주장도 있다)³¹⁾에 장이 섰으므로 ‘군포장’이라 하였다가 1926년 안양시 안양동에 안양시장이 개설되면서 이곳 시장은 없어졌다(그러나 군포장이 6·25전까지 섰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 이보다 앞서서 1904년 경부선 철도를 개통하면서(1905년 1월 1일부터 업무개시) 지금의 군포

31) 이윤용(77세, 군포 1동)씨 증언.

역을 '군포장역'이라 하였는데 이 근방에 민가가 늘고 번창하자 호계 3동을 '구군포'라 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군포'라는 이름이 안양천을 건너서 서쪽의 경부선 '군포장역'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그후 1938년 4월 1일 경부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포장역을 군포역으로 고쳤다. (군포지역 주요 지명의 이해 참조)

□ 구군포교(舊軍浦橋)

군포1동과 금정동 그리고 안양시 호계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화성전선 길에서 구군포사거리와 연결되는 다리로서 다리의 교명판도 '구군포교'로 되어 있다.

□ 군웅산(軍雄山)

군포시 관내가 아닌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에 있는 야산인데 편의상 군포1동에 포함하였으며 지금은 주택가로 변한 곳이다. 이곳은 호계동 966-1번지가 되는데 원래 '군웅산'이라 하였고 매년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軍雄祭)라는 민속행사가 열리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산과 하천(옛 군포천, 지금의 안양천)에 의하여 '군포(軍浦)'라는 이름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군웅제는 1980년대 초부터 이 행사를 지내지 않고 있으나 군포시에서 행사장소를 군포지역으로 옮겨서라도 다시 민속행사를 재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군포역(軍浦驛)

군포1동에 있는 경부선 철도역이자 수도권 전철역이다.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정부로부터 경부선 철도 부설권을 얻고 1904년 경부선을 개통하였는데 이곳은 1905년 1월 1일부터 '군포장역'이라 하다가 1938년 4월 1일 경부선을 복선화하면서 '군포역'으로 고쳤다. 처음 군포장역이 들어서자 이 일대에 민가가 늘어나서 점점 번창해지기 시작하였다. 본래의 군포장은 구군포(안양시 호계 3동) 사거리 일대에 있다가 이곳에 역이 들어서면서 '군포'라는 이름도 역을 따라서 옮겨온 것이다. 군포시내 5개 철도역의 하나이다.

□ 군포역전시장(軍浦驛前市場)

군포 1동(당동781)의 군포역 바로 앞(서쪽)에 있는 재래시장이다. 군포역전시장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군포역'이 생기고 한국전쟁 이후 상설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군포역과 국도 47호선 사이에 있다.

□ 군포천(軍浦川)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를 이루는 안양천 상류의 그전 이름이 군포천이었다. '군포천'은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읍지』나 그 당시의 고지도에도 모두 ‘군포천’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제를 거치면서 하천이름을 새로 붙일 때 안양천 상류가 되는 이 지역까지 ‘안양천’에 흡수함으로써 군포천이라는 이름은 하천범이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름이 ‘군포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 굴다리 : 월구지 고개

군포 1동(당동)과 재궁동 사이에 있는 고개로서 당말고개, 월구지고개 또는 굴다리라고도 한다. 재궁동으로 통하는 당말지하차도가 굴다리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굴다리’라는 이름은 대야동의 대야미 역사 밑으로 통하는 다리도 굴다리라고 부르고 있다.

□ 넘말

군포 1동(당정동)의 큰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말의 너머에 있으므로 넘말이라 한다. 너머 = 유(踰) 또는 월(越)의 의미를 지닌 이름이다.

□ 당넙어 : 당하리(堂下里)

군포 1동(당동)의 도려했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전에 당말 사람들이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비는 당제를 지냈는데, 마을 뒤의 도당사(都堂祠)에서 행하여졌다. 도당사 너머 마을이 되므로 당넙어라 하며, 당동의 아랫마을이 되므로 당하리라 하였다.

□ 당동(堂洞) : 당리(堂里) : 당말

군포 1동에 속한 2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나오는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로 이때 당리가 나온 만큼 오래된 마을이다. 1989년 1월 1일 군포시 승격과 함께 당리의 일부와 부곡리를 합하여 군포 1동에 편입되었으며 나머지는 군포 2동에 편입되었다.

민간에서 제를 지내는 당으로는 국사당(國師堂)·산제당(山祭堂)·칠성당(七星堂)·성황당(서당)·산신당(山神堂)·도당(都堂) 등으로 부르는데 경기도 지방에서 산신당이나 산제당을 짓고 제사 지내는 경우는 이를 도당이라 한다. 당동은 당말·동막골·아구랑·당넙어·도려했(도내동)로 되어 있다. 당제를 지내는 영당(靈堂)을 모시고 있으며 내부에는 산신도 등이 있다.³²⁾

□ 당동 약수터

군포 1동(당동)의 산 22번지 3호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3년 10월에 개발된 우물이다.

□ 당동 지하차도

군포 1동(당동)의 강남화성 서쪽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이다. 마벨교(속칭 '마베리')로부터 서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경부선 철길 부근에서 지하차도로 바뀌는 곳이다.

□ 당동 체육공원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월구지고개 서남쪽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다. 2003년 11월 금정시민체육광장이 새롭게 단장되었는데 당동체육공원은 시민체육광장의 산능선 동쪽이 된다.

□ 당말 지하차도

군포 1동(당동)에서 재궁동으로 넘어가는 월구지고개 밑으로 관통하는 지하차도이다. 글다리라고도 하며 시민체육광장으로 통하게 된다.



당말 지하차도

32)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14 ~ 15쪽.

□ 당산봉(堂山峰)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산이다. 군포역 서쪽 당동체육공원 부근의 야산으로서 이곳에 도당계 문 지내는 영당이 있으므로 당산봉이라 한다. 폐교가 된 계명실업고등학교 뒤(서) 높이 139.1m의 야산을 말한다. (군포의 산 참조)

□ 당정(堂井) : 당우물 : 당정동(堂井洞)

군포 1동(당정)에 속한 2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본래 신당 밑에 우물이 있어서 '당우물' 또는 '당정'이라 하였으며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도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로 당정리가 명시되어 있다. 1914년 일제의 지방 행정구역 폐합 때 그전 당정리와 봉성리(鳳城里)를 합하여 당정리라 하였고 1989년 1월 1일 군포시의 행정동으로서 당정동이 되었다가 1998년 10월 8일 당정동사무소를 폐지하고 군포 1동에 병합되었다.

당(堂)은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평안을 위하여 재를 올리는 당으로서 산제당, 산신당, 국사당, 성황당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경기지방에서는 이를 도당(都堂)이라 한다. 당정의 기원이 된 '당우물'은 큰밭의 논 가운데 있었던 우물이라고 하며 이 우물을 떠다가 재를 지냈다고 한다.

□ 당정고가교(堂井高架橋)

군포 1동과 군포 2동 경계의 경부선 철로 위로 설치된 과선교이다. 의왕시 고천에서 갈라져 군포시로 들어오는 시도가 경부선 철길을 지나서 동아아파트(군포 2동)의 뒤편(북)쪽으로 지나간다.

□ 당정지하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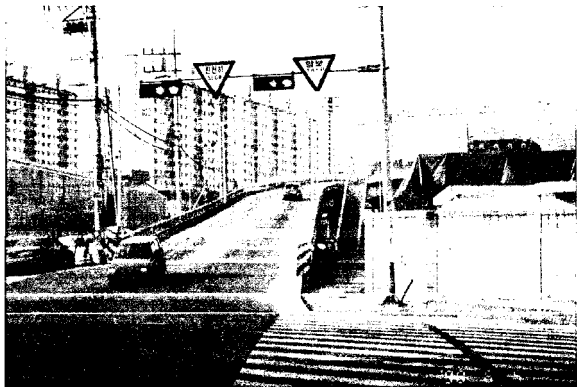
군포 1동(당동)과 군포 2동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이다. 금당터널-군포초등학교 앞을 지나 의왕시로 이어진다.

□ 당정천(堂井川) : 흐린내

군포 1동(당정)을 흘러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내이다. 감투봉에서 발원하여 황동 앞을 흘러서 북류하는데 황동 일대가 황토지역이 되어 하천의 물이 흐려지게 되므로 흐린내라고 하며 당정동을 흘러 내리므로 당정천이라고 한다. 지방 2급 하천이다.

□ 도랫말(도렴말) : 도내동(道內洞)

군포 1동의 군포초등학교 뒤(북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은 새도시로 탈바꿈하였다. 옛날 마음씨 착한 김씨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잘 살고 동생은 가난하였다. 그러나 형은 자식이 없고 동생은



양정 고가교

자식이 풀이 되었으므로 형님에게 아들 하나를 주고 마을을 떠나 살게 되었다. 그후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이 고향이 걱정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므로 “돌아온 마을”이라는 뜻에서 도랫말-도내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대개 ‘도래’, ‘도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는 마을 앞에 강물이나 하천이 돌아 흐르는 곳, 큰 길이 들어가는 곳(취어진 곳)을 뜻하며 한문으로는 도내(高內), 도내(桃內), 도내(道內) 등이 있고 또 석(石 : 돌), 우(隅 : 모퉁이) 등의 글자가 붙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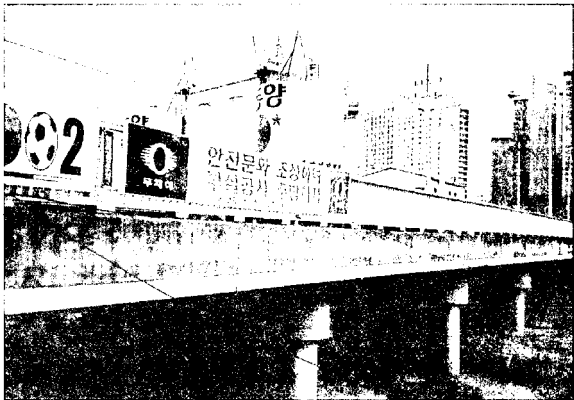
□ 동막골 : 화산동(花山洞)

군포 1동의 군포중학교 동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은 새도시로 바뀐 곳이지만 옛날에는 진달래, 철쭉이 만발한 구릉이었으므로 화산동이라고도 불렀던 곳이다. 원구지고개의 동쪽 마을이었다.

‘동막’은 동쪽에 막을 짓고 살았던 곳, 돌이 많은 곳(돌막-동막), 동쪽이 막힌 곳, 마을(洞)에서 막을 세운 곳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확실한 내력은 알 수 없다.

□ 마벨교(마벨마을)(속칭 ‘마버리’)

군포 1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지금은 없어졌으나 그전에 마벨을 만드는 공장이 지금의 ‘백시스템’공장 부근에 있었다고 하며, 그 일대를 지금도 ‘마벨마을’이라고 하면 부근 사람들은 다



마뻬교

통한다고 한다.³³⁾ 마뻬는 공구의 일종인 드라이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 맑은 내 : 청천(淸川)

군포 1동(당정)을 흘러서 북류하는 안양천의 다른 이름이다. 이 하천은 안양천의 상류로서 본래 '군포천'이라 하였고 현지 주민들은 '맑은 내' 라고 불렀다. 모라산, 지지대 고개 등에서 흘러내린 물이 의왕시 고천동을 지나 당정동 별세전리를 거치는 내이다. 호란내=당정천에 대하여 물이 맑은 내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한다.

□ 맑은냇들 : 청천평(淸川坪)

군포 1동(당정)의 별세전리 일대를 불렀던 이름이다. 정조의 현릉원 거둥을 기록한 『원행정례』에는 '군포천교(軍浦川橋)'(장산 모퉁이로부터 3리), '청천평(淸川坪)'(서원천교로부터 1리)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³⁴⁾ 이곳이 맑은냇들, 곧 지금의 당정동 별세전리 일대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3) 서영순(여, 45세, 군포 1동 수정다방 주인), 마뻬교 알 마을상회 주인(여, 70세) 등 증언.

34)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302쪽.



모자간산

□ 모자간산(母子間山) : 모자산(茅子山)

군포 1동(당정)의 정제이들 북쪽에 있는 높이 84.2m의 산이다. 의왕시 정원고등학교의 바로 서쪽이 되는데 지금은 도시 내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이 산 밑(동쪽)으로 의왕시와 경계가 된다. 산 이름은 이 산에 띠풀=묘(茅)가 많이 나서 모자산이 되었다는 설과 동쪽 의왕시 오봉산(五峰山)과 모자간의 산이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근래에 새로 지은 LG아파트 부근이 되며 산은 도로 개설로 말미암아 깎이고 잘려나갔다. (군포의 산 참조)

□ 목골

군포 1동의 월구지 고개 부근에 있었던 논이다. 본래 꿀짜기를 이루고 있었다. '목'은 지형이 잘록하여 목을 이루거나 길목이 되는 경우에 붙는다.

□ 바가지 우물

군포 1동(당정)의 큰밭에 있었던 우물이다. 두레박을 써서 물을 퍼 올리지 않아도 바가지로 손쉽게 물을 퍼 낼 수 있는 우물이다. 이 우물은 당정동 우물제를 지내던 우물이었으나 경부선 복복선 공사와

골프장이 들어서고 주변지역이 변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³⁵⁾

□ 방죽말

군포 1동(당정)의 자연마을로서 그전에 방죽이 있어서 방죽말이라고 불렀다. 골프장과 경부선 철도 건설 등으로 마을 주변이 대부분 바뀌었다.

□ 벌말

군포 1동의 경부선 군포역 부근에 있었던 마을이다. 역이 들어서기 전에는 벌판이었다가 경부선 기차역이 자리잡으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 벌새전리 : 평봉성(坪鳳城)

군포 1동(당정)의 안양천 부근 애자교의 바로 서남쪽 마을이다. 벌새전과 안새전 마을은 봉성리라 부르던 곳으로 1789년(정조 13) 과천현 남면의 『호구총수』에도 마을이름이 나오는 7개 리의 하나이다. '새전'은 봉성=새재가 변한 이름으로 보고 있으며, 벌판에 있는 마을이므로 '벌판 평(坪)'자를 따서 평봉성, 벌새전이라 한다. 지금은 대부분 공장시설이 들어섰다.

□ 봉성리(鳳城里) : 안새전리

군포 1동(당정)의 벌새전리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지금은 대부분 공장지대로 되었다. 봉성리는 1789년(정조 13) 『호구총수』에 나오는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로 되어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당정리에 통합되었다. 봉성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새재'가 되므로 새곶말>새곶말>새전의 새재가 변한 이름으로 볼 수 있다. 벌새전의 안쪽이 되므로 안새전이라고 하며 봉황이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형국이므로 봉성리라 불렀다고 한다.³⁶⁾

□ 새전들

군포 1동(당정)의 모자간산 서쪽, 안새전리의 남쪽에 있는 들이다. 새전마을(봉성리)의 남쪽 넓은 들이므로 새전들이라고 한다.

□ 아구랑(阿邱岡)³⁷⁾ : 아구동(阿口洞)

군포 1동의 상업은행 군포지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아구랑(阿邱岡)을 글자대로 풀이하면 "아름다운 언덕의 솟을 대문" 씬으로 풀이되는데 그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설에는 옛날 흰 개

35)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38쪽.

36) 군포시, 『군포시 지명유래집』, 1999, 47쪽.

37) 이윤용(77세, 군포 1동), 심재극(군포농업협동조합장)씨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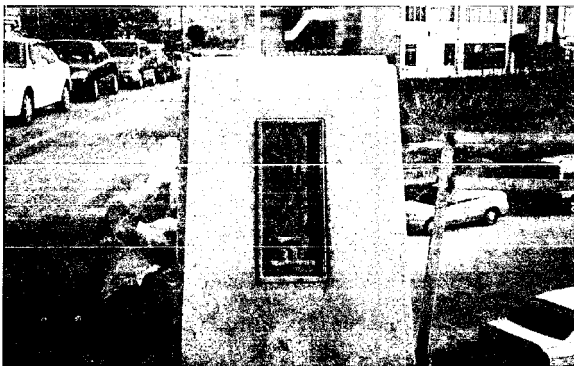
두 마리가 입을 벌리고 이 마을 언덕을 넘어갔으므로 아구랑 또는 아구등이라 부른다고 한다. '아구'는 부양의 아궁이를 뜻하기도 하고, 입의 속된 말로서 아가라·아구를 뜻한다.

□ 앞산뿌리

군포 1동의 군포역 남쪽의 고개로 못 미쳐서 있는 마을이다. 산줄기가 이 마을에까지 이르렀다가 끊긴 곳이므로 앞산뿌리라고 하는데, 1981년 구획정리되어 시가지로 변화했다.³⁸⁾ 뿌리는 산줄기를 말한다.

□ 애자교

군포 1동(당정) 벌새전리 동북쪽 인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벌새전리에 신한애자공업(주)이 들어섰으므로 그 제품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군포시내의 바벨교나 애자교라는 다리 이름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교량이름으로 한 것인데 이 보다는 그 부근에 있었던 옛 지명을 복원하여 다리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다. 애자는 전신·전화·전력 등의 가공선로에 전선을 지탱하고 접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거나 유리·합성수지 제품을 말하며 대개 뚝뚝지의 형태로 생겼다.



애자교

38)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2쪽. 1 : 25,000 지형도에는 앞산뿌리가 군포초등학교 동쪽으로 되어 있으나 지명유래집을 따름.

□ 영당(靈堂)

군포 1동(당동)의 당말에 있는 제당이다. 영당은 당산봉에 있는 조그만 기와집으로서 영당 안에는 최근에 모셔진 산신도가 있다.



영당 산신도

□ 우래산(雨來山) : 우뢰산

군포 1동(당동)과 재궁동 사이, 군포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127.5m의 산이다. 군포시 관내에는 두 곳의 우래산(우뢰산)이 있으며 이 우래산의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한문 글자대로 풀이하면 그전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래산의 한문표기가 '우래산(又來山)'이라면 이 산 아래 동쪽에 있었던 '도랫말'과의 관련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매봉’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우래산 = 도랫말)(군포의 산 참조)

□ 웃터 : 상대동(上垔洞)

군포 1동(당동)의 아구랑과 당너머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집터가 좋은 곳이므로 웃터 또는 상대라 불렀다고 한다.

□ 월구지고개

군포 1동(당동)의 아구랑과 재궁동의 정글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우래산의 바로 남쪽이 되며 당말고개 또는 글나리라고도 부른다. ‘월구지’는 본래 ‘월걸이’로서 달이 걸치는 고개를 뜻하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월구지는 ‘달꽃이’가 변한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산의 부리가 돌출하여 꽃을 이루는 경우에 달꽃이>월고지>월구지로 될 수 있다. 바로 남쪽으로 당말지하차도가 뚫렸다.



월구지 고개

□ 작은골

군포 1동(당정)의 큰밭 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당정과 큰밭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며 큰골에 대해

여 상대적으로 작은 관짜기라는 뜻이다.

□ 잠상(蠶桑)

군포 1동(당동)의 동백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풍수지리상 누에(蠶穴)에 해당되므로 누에는 뽕잎을 먹고산다 하여 잠상이라 이름하였다고 한다.

□ 장군바위

군포 1동(당정)의 별새진리 남쪽에 있는 바위이다. 당정리 새전마을에서 의왕읍으로 넘어가는 길 옆에 있는 바위라고 하며 이 바위에는 아기장수와 용마에 얽힌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³⁹⁾ 옛날 가난한 부부가 용동자를 낳았는데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방에 들어와 보니 아기가 천장에 올라가 있었으며 갓난아기의 입구리에는 날개가 돋아있었다. 이 아기가 보통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된 부모는 장차 이 아기가 자라나면 역적이 될 것이 두려워서 이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부모는 곧 아이를 이불로 덮고 무거운 멧돌을 가져다가 아이를 눌러서 죽이고 말았다. 그러자 뒷산인 오봉산에서 용마가 튀어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죽었다. 이 용마는 장차 아기장수가 탈 밀로서 아기장수가 죽자 용마도 스스로 죽고 말았다고 한다.

이 바위에는 흡사 말 발자국 같은 자국이 남아있으며, 이런 연유로 인하여 이 바위를 장군바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기장수와 용마바위'전설은 전국적으로 약 100 여 개소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전설 중의 하나이다.⁴⁰⁾

□ 점배이들 : 정제이들

군포 1동(당정)의 한세대학교 북동쪽에 있는 들이다.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1 : 5,000 지형도에는 점배이들(1979년판), 정제이들(2002년판)의 두 가지로 표기되어 있다. 이 일대의 들이 큰밭에서 논 가운데 우물을 대상으로 그전에 정제(井祭)를 지냈던 곳이다. 정제이들은 정제=우물제를 지낸 들이므로 생겨난 이름일 것이며 점배이들은 표기 오류로 보인다.

□ 취락마을 : 79번지 마을

군포 1동(당동)의 군포중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북승아밭이었는데 1977년 취락구조 개선 사업으로 생긴 마을이며 79번지에 위치하므로 79번지 마을이라고도 하였다. 우래산의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39) 군포시, 『군포시 지명유래집』, 1999, 48쪽.

40) 시흥군, 『시흥군지』상, 1988, 1149쪽.

□ 큰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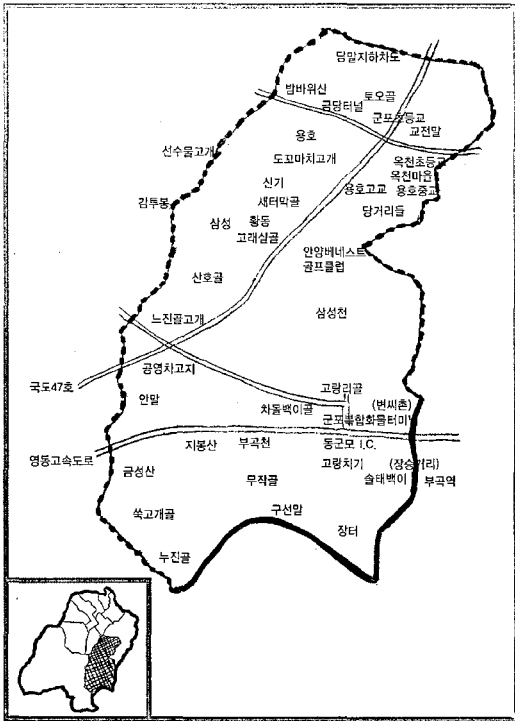
군포 1동(당정)의 당정지하차도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당정등에서 제일 큰 마을이므로 큰말이라 하고, 그 중에서도 북쪽지역은 이렛말, 남쪽지역은 옷말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것은 이 지역이 안양천 상류로서 하천이 북류하므로 북쪽마을이 이렛말이 되고, 남쪽 마을을 옷말이라 부른다고 한다. 화물기지창 건설로 마을이 줄어들었다. 마을에는 수령 5백년의 큰말 느티나무가 있어서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 흐린내교

군포 1동과 금정동 사이의 당정천(흐린내) 위에 놓인 다리이다. 회성전선의 남쪽 모퉁이와 페리칸의 서쪽이 되는데 교명판도 '흐린내교'로 되어 있다. 당정천이 감투봉에서 흘러 내리다가 황동 일대의 토질로 인하여 냇물이 흐려지므로 흐린내라 불렀기 때문이다.

2) 군포2동(軍浦二洞)

(1) 관내도



군포 2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군포 2동은 1989년 1월 1일 군포시로 승격되면서 그전 당리(堂里) 일부와 부곡리(富谷里)를 병합하여 군포 2동이라 하였으며 당리=당동과 부곡리=부곡동은 군포 2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원래의 '군포(軍浦)'라는 이름은 마을이나 동(洞), 면(面) 또는 고운의 이름이 아닌 하천의 이름으로서 1699년(숙종 25)에 간행된 『과천현신수읍지』에 안양천 상류를 가리키는 이름으로 처음 나온다. 지금은 '구군포(舊軍浦)'라고 부르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에 옛날 군포장이 섰으며 이곳에 군웅산(軍雄山)이 있어서 이곳에서 매년 '군웅제'를 지냈다.

따라서 지금은 '군포천'이라는 하천이름이 지도에서 사라졌으나 그전에 이곳 군웅산과 그 옆을 흐르는 하천의 '물가 포(浦)를 합하여 '군포천(軍浦川)'이라 하였으므로 군포 2동의 '군포'는 여기에 서 비롯된 이름이다. ('군포(軍浦)'와 '군포(軍隨)' 참조)

한편 군포 2동의 법정동으로 남게 된 당동(堂洞)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의 과천현 남면에 속한 7개 리의 하나로 나올 만큼 오래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현재 군포 1동과 군포 2동에 나누어져 있는데 1914년 4월 1일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고 당리와 용호동(龍虎洞)을 합하여 당리로 만든 곳이며 '당(堂)'은 마을 주민들이 도당제를 지내는 당집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군포 1동의 '당말' 지명 참조)

부곡동(富谷洞) 역시 1789년 『호구총수』에 처음 나오는 이름으로서 1914년 4월 1일 일제에의 지방행정구역 폐합 때 강간리(章干里) 일부를 부곡리에 병합하였으며 경부선 철도역인 의왕시의 부곡역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이름이다. (부곡동 지명 참조)

군포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군포 2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용호고등학교, 용호중학교, 군포초등학교, 육천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각골말 : 각곡촌(角谷村)

군포 2동(부곡) 무작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이 지형이 소의 뿔처럼 생겨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런데 '각골'은 '갓골'로서 어떤 지형의 가장자리나 변두리를 뜻하는 경우가 많으며 갓 = 변(邊)에서 비롯된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이곳은 조선조 말엽까지도 도독과 호랑이가 출몰하였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느 마을인지 확실하지 않다.⁴¹⁾

41)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3쪽.

□ 감투봉 : 삼파산(三波山)

군포 2동 삼성마을 뒤(서쪽)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대야동과 오금동의 경계가 되며 수리산의 남동 줄기가 솟아오른 산이다.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신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호란내(당정천),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월천에 합류하므로 삼파산이라 한다. 또 산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으므로 감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대야동의 감투봉 전설 참조)



감투봉

□ 갯다리

군포 2동(부곡)의 변씨촌 마을과 고랑치기 사이에 있는 들이다. 옛날에는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왔다고 하며 1987년 마을 주민들이 큰 전신주 4개로 다리를 놓았으므로 갯다리라 하였다. 지금은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부지에 대부분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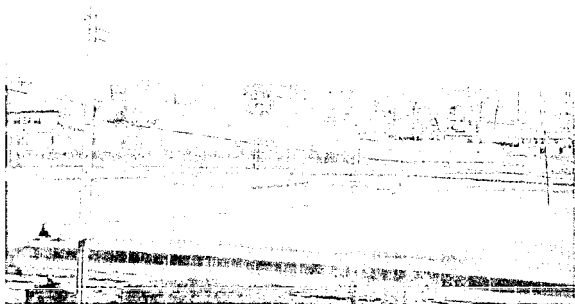
□ 고랑리굴

군포 2동(부곡)의 변씨촌 서쪽 골짜기이다. 지금은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부지에 편입되었다.

고랑치기 마을과 관련된 이름이다.

□ 고랑치기

군포 2동(부곡)의 구선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농경지로 작고 깊은 고랑이 있어서 고랑치기라 불렸으며, 처음에는 1가구만 있었는데 부곡역 앞에 철도관사가 생기면서 호수가 늘어났다고 한다.⁴²⁾ 뒤(북)로 군포북합화물 터미널이 들어섰다.



고랑치기 마을

□ 고래실골 : 앞고래실골

군포 2동의 삼성마을 앞 들이다. 국도 47호선의 서쪽이 되는데 ‘고래’는 물이 많고 땅이 기름진 논을 말한다. 마을 앞에 기름진 문전옥답이 있으므로 고래실골, 앞고래실골이라 한다.

□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

군포 2동(부곡동)의 환경미화타운과 군포시 보건소 사이에 있는 시내·시외버스 터미 등의 공영차고지이다. 그전 안말의 바로 북쪽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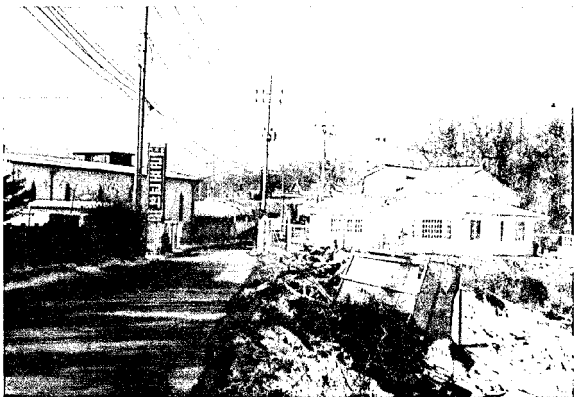
42)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상』, 1985, 410쪽.

□ 교전말(校前-)

군포 2동(당동)의 군포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이다. 학교가 들어서면서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학교 앞에 있는 마을이므로 교전마을이라 한다.

□ 구선말(九仙洞)

군포 2동(부곡)의 고랑치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광주북과 시흥군의 살피가 되는데, 광주에 딸린 곳은 광주 시우대, 시흥에 딸린 곳은 시흥 새우대라 불렀다고 한다⁴³⁾(시우대는 지금 의왕시 초평동이다) 마을이 산 모퉁이가 되므로 구석말>구성말>구선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구선말

□ 누진골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에 있는 누진봉(113.3m)의 북쪽 골짜기이다. 무작골 남쪽 부곡천의 남쪽 골짜기가 된다.

43)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2~443쪽.

□ 누진봉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가 되며 동쪽은 의왕시와 접하는 높이 113.3m의 산이다. 구봉산 능선의 북쪽 줄기가 되며 그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군포의 산 참조)

□ 금당(禁堂)터널

군포 2동(당동)과 오금동 사이의 수리산 줄기를 관통한 터널이다. '금당'은 오금동에서 '금(禁)'과 당동의 '당(堂)'자를 합하여 만든 합성지명이다.

□ 금성산(錦城山)

군포 2동(부곡)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122.4m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 진입로 의 바로 동쪽 산이다. (군포의 산 참조)

□ 느진골

군포 2동의 삼성마을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대가 높아서 다른 지역보다 농사를 항상 늦게 짓는다고 하여 느진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 느진골고개 : 만곡현(晩谷峴) : 갈티고개

군포 2동(부곡)의 삼성마을과 대야동 감티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갈티고개라고도 하며 '느진'은 느슨함, 늘어진, 느릿하다는 뜻으로 어(於), 연(漣), 맨(晩)의 뜻을 지닌 이름이다.

□ 당거리들 : 당가평(堂街坪)

군포 2동(당동)의 거리 앞들이라는 뜻이다. 지금 당동 주공 4단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들이다. 토오골, 오골 새터말골 등의 물이 흘러드는 제법 넓은 들이었으나 지금은 아파트 단지와 용호고교, 용호초교, 용호중교 등의 부지가 되었다.

□ 당정(堂井)지하차도

군포 2동(당동)과 당정동을 통하는 도로의 지하차도이다. 금당터널-군포초등학교 앞을 지나 당정동-의왕시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국도 1호선과 연결된다.

□ 도당재(都堂·)

군포 2동 삼성마을에서 서쪽 야산으로 올라가는 고개이다. 이 고개 위에는 당이 있는데 당할아버지, 당할머니라고 부르는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이 곳에서 마을의 평안과 번영을 기원하는 도당제를

지냈으나 1990년대 이후 도당제를 지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⁴⁴⁾ 도당은 산신제당이나 산계당을 지어놓고 제사 지내는 곳을 경기·충청지방에서는 도당이라 하며, 무녀나 악녀(樂女)에 의하여 굿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도꼬마치고개 : 도독막고개

군포 2동 용호마을에서 새터말(신기)로 넘어가는 높이 89.9m의 고개이다. 수리산의 한 줄기가 동류하면서 그 능선을 남북으로 통하는 고개로써 옛날 고갯길에 강도나 산적이 나타났으므로 해가 저물면 넘기를 꺼렸던 고개라고 한다.

□ 도렘말 지하차도

군포 2동(당동)의 국도 47호선에 설치된 지하차도이다. 군포초등학교 남쪽 도로가 된다. 군포 1동의 그전 도렘말에 가깝다. (군포 1동 도렘말 참조)



무작골

44)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9 - 10쪽.

□ 동군포 인터체인지

군포 2동(부곡)의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 남쪽에 조성된 화물전송의 인터체인지이다. 그전 차돌백이골과 대곶마을 일대에 들어섰다.

□ 무작골 : 무지개골 : 홍곡(紅谷)

군포 2동(부곡) 구선발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랑치기 마을의 서쪽이 되며 옛날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무지개가 섰으므로 무지개골, 무작골, 또는 홍곡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⁴⁵⁾

□ 밤바위산 : 밤배산

군포 2동(당동)과 오금동 경계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181.7m의 산이다. 군포시내를 동북-서남으로 비스듬하게 가로 지르는 산줄기의 한 봉우리인데 그 밑으로 금당터널이 뚫렸다. 오금동 오금천의 동쪽 병풍바위와 이 바위 아래 산기슭에 있는 밤벌을 묶어서 밤바위라고 부르거나, 밤바위산, 밤배산이라 부른다고 한다.⁴⁶⁾ (군포의 산 참조)

□ 변씨촌(邊氏村)

군포 2동(부곡)의 한국복합물류 군포화물터미널 동쪽 끝에 있었던 마을이었으나 터미널 부지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본래 원주 변씨(邊氏) 창의공과 후손이 낙향하여 터를 잡은 후 그 씨족들이 집단으로 살았던 마을이다.⁴⁷⁾

□ 부곡(富谷) : 대골 : 부곡동(富谷洞)

군포 2동에 속한 2개 법정동의 하나이며 자연부락명으로는 대골이라고도 불렀다. ‘부곡’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시흥군지』에는 조선시대의 어느 해에 가뭄이 들어 온 들의 모가 말라죽었으나 이 마을 앞에는 눈에 물이 많아서 풍년이 들었으므로 ‘부곡’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 하나는 조선시대에 남양부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마을이름을 물어보니 ‘빈골(貧谷)’이라고 대답하므로 기왕이면 넉넉한 이름을 택하여 ‘부곡’으로 부르게 하였다는 것이다. 또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으므로 부곡이라 불렀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부(富)’는 곧 우리말의 ‘가벌’로서 부곡=가마골>감골이 되며 ‘감’은 곶, 검 등과 함께 신인 신성 혹은 크다는 뜻의 ‘쿰’을 뜻하기도 하므로 부곡=대골과 서로 통하는 이름이다.⁴⁸⁾

45) 최섬섭 (여, 70세, 부곡동 497, 무작골 거주).

46)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38쪽.

47) 박열순 (여, 80세, 부곡동 555, 승태백이 거주)의 2인.

48) 변재천 (남, 73세, 부곡동 613-1, 구선발 거주)의 1인.

□ 부곡교(富谷橋)

군포 2동(부곡)과 의왕시 삼동의 왕송저수지 북쪽 하천 위에 놓인 교량이다. 경부선 부곡역에서 서쪽으로 부곡육교를 건너와서 북쪽 하천 위에 놓인 교량이며 부곡동 장터와 연결되는 다리이다.

□ 부곡복합화물터미널

군포 2동(부곡)의 영동고속도로 북쪽에 인접하여 설치된 화물터미널로서 동군포 인터체인지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다. 고량리골, 차돌박이골, 번씨촌 등이 터미널 부지에 편입되었다. 보통 한국복합물류군포복합화물터미널이라고 한다.

□ 부곡약수터

군포 2동(부곡 671번지)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6년 6월에 설치된 우물이다.

□ 부곡천(富谷川)

군포 2동(부곡)의 공영차고지와 환경미화타운 일대의 물이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다. 영동고속국



삼성마을(뒤는 김투봉)

도를 지나서 의왕시의 왕송저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 산호골

군포 2등의 삼성마을 남쪽 국도 47호와 화물터미널 진입로가 교차하는 북쪽 골짜기이다. 명칭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 삼성(三姓 : 三星) : 삼승(三升)

군포 2등(부곡)의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과 국도 47호를 사이에 두고 서쪽에 마주 보는 마을이다. 본래 현봉 객씨, 인동 장씨, 신안 주씨의 세 성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으므로 삼성(三姓)이라 하며, 5. 16이후에는 삼성(三星)으로도 썼다고 한다. 마을에 주자를 모시는 삼성사(三聖祠)가 있고, 또 10여 년 전까지 도당제류 지냈다. 김투봉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 삼성사(三聖祠)

군포 2등(부곡)의 삼성마을에 있는 사당이다. 1882년 이 마을 신안 주씨 분중에서 사림의 도움을 받아 사우를 짓고 주문공(朱文公)의 진영(眞影)을 봉안하고 있다. 6. 25사변 때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영정이 불탔는데 그후 다시 복원하였다.

□ 삼성약수터

군포 2등(당동)의 삼성마을 부근에 두 개의 약수터가 있다. 당동 172번지에 위치하며 우물은 1996년에, 샘은 1997년에 약수터로 개발되었다.

□ 삼성천(三姓川)

군포 2등(부곡)의 삼성마을에서 흘러 내리는 하천이다. 동쪽으로 흘러 안양베네스트 골프클럽을 지나 남류하다가 의왕시의 왕송저수지로 흘러드는 내이다.

□ 새터말(새터말골) : 신기(新基)

군포 2등(당동)의 삼성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신기와 삼성마을 사이를 새터말골이라 한다. '새터'는 새로 터를 잡은 마을을 뜻하며, '신기'와 같은 말이다. 우리 나라 마을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이름이다.

□ 솔태백이

군포 2등(부곡) 장터 마을의 북쪽, 고랑치기의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경부선 부곡역 철길의 바로 서쪽에 되는데, 그전에 마을 중앙에 묘가 있고, 그 묘 옆에 큰 소나무가 있어서 솔태백이라

부른다고 한다. '백'은 '장승백이'처럼 무엇이 '박혀' 있었던 곳을 '백이'라 하므로 숲터+백이가 결합된 이름으로 볼 수 있다.⁴⁹⁾



솔태백이(육교 아래)

□ **쑤고개골** : 호현(高峴)

군포 2동(부곡)과 대야동 경계에 있는 고개와 골짜기이다. 누진봉에서 급성산으로 이어지는 산 줄기의 중간, 구선말 남쪽에서 도마교로 이어지는 도로 중간의 높이 75m쯤 되는 고개를 말한다. 이 고개의 남쪽을 쑤고개골이라 하는데, 이 일대에 다복축이 무성하였으므로 호현이라고도 하였다.

□ **신기천(新基川)**

군포 2동(당동)의 새터말골에서 발원하여 용호초등학교 뒤(남쪽)를 흘러서 당정천으로 합류하는 소하천이다. 새터말골=신기의 이름을 따서 신기천이라 한다.

49) 박일순 (여, 80세, 부곡동 555, 솔태백이 거주)의 2인.

□ 안말

군포 2동(부곡)의 군포환경미화타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민가가 이주하였으며 공영차고지의 남쪽이 된다.

□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

군포 2동에 있는 국제 규격의 골프명문이다. 숲과 코스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뛰어난 환경을 자랑하며 1968년 6월 16일 개장하였다. 면적 267,000평이며 골프코스는 18홀 6,219m이다.

□ 여사벌 : 여사곡평(麗使谷坪)

군포 2동(도마교) 금성산 남동쪽 삭고개골 부근에 있는 들이다. 고려시대 중국 사신들이 황해바다를 건너와서 남양을 거쳐서 이 들을 통하여 한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⁵⁰⁾

□ 옥천(玉泉)마을

군포 2동의 용호중학교와 옥천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옥천'이라는 이름은 인근의 금정동 산 100번지 밤바위산 기슭에 있는 옥천약수터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것이라고 한다.⁵¹⁾ 옥천이란 맑은 샘을 말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을 옥에 비유하여 옥천이라 하며, 부르기 좋은 마을 이름의 하나이다.

□ 용사갈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를 흐르는 하천이다. 누진봉 아래 누진골에서 발원하여 검바위를 거쳐 의왕시의 왕송저수지로 흐르는 하천이라고 한다.⁵²⁾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

□ 용호동(龍虎洞) : 요골 : 용호마을

군포 2동의 국도 47호선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옛 마을이 없어지고 아파트촌의 '용호마을'이 되었다. 원래 과천군 남면 용호동이라 하였고, 현지 토박이말로는 '요골'이라 불렀는데 용호(龍虎)는 풍수지리에서 좌우의 두 산줄기를 좌청룡, 우백호라 부르므로 이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이 마을 북서쪽에 동래정씨 선대의 묘소가 있어서 그로 인하여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50)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51) 황성회씨 (여, 군포시 군포 2동 사무소 근무).

52)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옥천마을

□ 원수물고개 : 원수를 고개

군포 2동(당동)과 오금동 경계가 되는 수리산 줄기의 고개이다. 신기(새터말)마을 서쪽에서 오금동으로 넘어가는 높이 133m의 고개로서 오금동(도장동) '원수읍팔'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오금동의 지명 참조)

□ 잠승거리

군포 2동(부곡)의 장터와 경부선 부곡역의 부곡육교 사이를 말한다. 장승은 마을입구나 절의 경내 입구, 큰 길 주막거리 부근 등에 나무로 짝아 세웠으며 장쟁(長柱), 장승(長丞·長承), 장성 등으로 불렸다. 솟장승(천하대장군)과 암장승(지하여장군)의 둘을 세우는데 나중에는 관로의 길가에 10리 간격으로 세워져 리정(里程)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장승이 세워진 곳에 장승거리, 장승백이, 장승막 등의 이름이 붙어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고지도에 '부곡주막'이 나오는 길이었으므로 장승이 세워져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복원하여 세우면 좋을 것이다.

□ 장터 : 장터골(밭)

군포 2동(부곡)의 경부선 부곡역 서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이 빈판에 위치하므로 장터밭이라고도 하고, 장터골이라고도 한다. 옛날에 장이 섰던 곳이라고 하는데 60년 전에도 장은 서지 않았다고 한다.⁵³⁾ 장이 열리는 곳을 '장터'라 하고 한자로는 장기(場基), 장대(場臺)라고 하였으며 '구장터', 옷장터, 아랫장터, 새장터 등의 이름이 붙는다.

□ 지봉산(芝峰山)

군포 2동(부곡)의 무적골마을 서북쪽, 차돌박이골의 남쪽에 있는 높이 111.4m의 산이다. '지봉(芝峰)'은 조선 광해군 때 실학자 이수광의 호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재(芝)'는 지초(芝草)를 뜻하며, 난초와 함께 군자에 비유하였으므로 지명에도 많이 쓰이는 글자이다. 그전에 의왕시 초평동 옷새우대 사람들이 산신제를 지냈던 산이라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 차돌박이골

군포 2동(부곡)의 군포북합화솔터미널에 편입된 골짜기이다. 북부터미널 주유소 일대로서 이 일대는 차돌(석영)이 많이 박혀 있었으므로 차돌박이골이라 하였다.

□ 토오골 : 토골

군포 2동(당동)의 군포초등학교 서남쪽 골짜기이며, 이 골짜기 서쪽 산이 밤바위산이다. 토오골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으며, 금당터널이 뚫린 자리에 있었던 논골짜기이다.

□ 해당우물(海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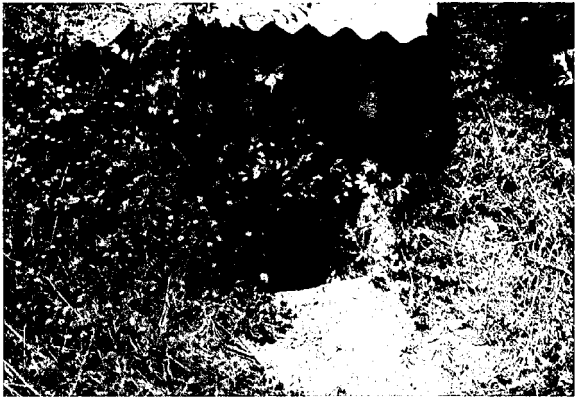
군포 2동(부곡)의 삼성마을 서쪽 아산에 있는 우물이다. 이 길을 도당재라고 하며 도당재 아래 있는 우물로서 마을에서 도당재를 지날 때 사용하였던 우물이다. 해당화가 많이 피어서 해당우물이라 부른다고 한다.⁵⁴⁾ 해당화는 바닷가 모래 땅이나 산기슭에서 주로 자란다.

□ 호꼬뿌리

군포 2동과 대야동 경계의 금성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산 줄기의 부리를 말한다. 이곳이 호랑이의 코에 해당된다 하여 호꼬뿌리라 부른다고 한다. 여기서 '뿌리'는 즉 부리로서 산 줄기를 말한다.

53) 박일순 (여, 80세, 부곡동 555, 솔태백이)의 2인.

54)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10쪽.



희담우물

□ 황동(黃東) : 황등(黃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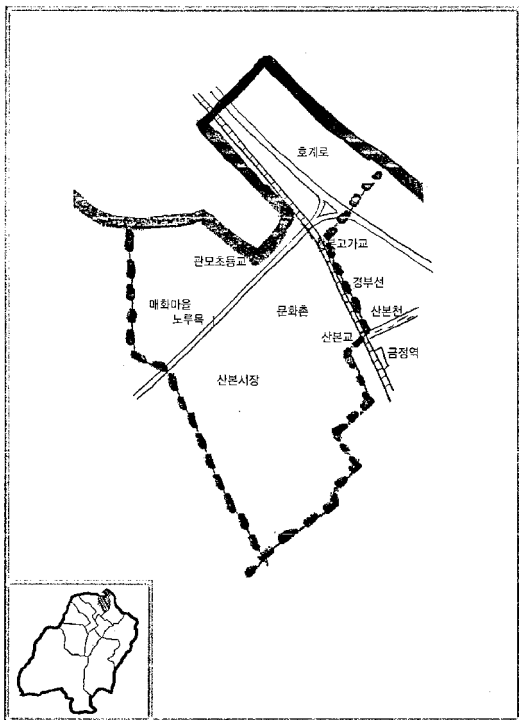
군포 2동(부곡)의 삼성마을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실제는 삼성마을과 한 마을이나 다름없다. 본래 동쪽에 있는 산이 붉은 황토이므로 황동산(黃東山)이라 하고, 그 아래 마을이 되므로 '황동산말'이라 하였는데, 차츰 줄어들어서 '황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황등'이 아니라 '황등(黃登)'이었다는 설도 있으나⁵⁵⁾ 현재 군포시에서 사용하는 이름은 '황등'이다.

55)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9쪽.

3) 산본1동(山本一洞)

(1) 관내도



산본1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산본(山本)’이라는 이름이 문헌상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국중수』에 과천현 남면(南面) 7개 리의 하나로 나오는데, 이때는 ‘산저리(山底里)’라 하였다. ‘산본’이나 ‘산저’라는 이름은 한문 표기만 다를 뿐 현지 토박이말의 ‘산밭’을 나타내므로 언중(言衆: 주민)들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산밭’은 군포시의 수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리산의 밑 또는 아래를 뜻하는데, 1871년(고종 8)에 산저리가 산본리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 ‘산본’이 일본인들의 성씨의 하나인 산본(山本: 야마모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평양전쟁 당시 연합함대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 五十六)(1884~1943)와는 관계없는 이름이다.

골 산저리→산본리로 바뀐 것은 1871년이며, 그가 태어난 것은 1884년으로서, 그가 태어나기 13년이나 앞서서 붙여진 이름이다. 특히 ‘산본’이라는 이름은 경남 김해시, 전남 광양시와 강원도 춘천시 등에도 같은 이름이 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의 지방행정구역 통폐합 때 시흥군 남면(南面) 5개 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읍이 시로 승격·분리될 때 산본리는 산본 1동과 산본 2동 등으로 나누어졌다. 법정동으로서의 산본동은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이고, 동사무소로서의 산본 1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관모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노루목 : 장항(獐項)

산본 1동의 수리산 관모봉 줄기가 떨어 내린 산줄기로서 지금의 노루목 주유소 부근이다. 지형이 노루의 목처럼 생겼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나 ‘노루’가 붙은 지명은 여(於), 광(廣), 황(黃), 판(板)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 지형이 늘어졌다는 뜻의 ‘느르’, 넓다는 뜻의 ‘너르’, 누르디는 뜻의 ‘누르’, 널판을 뜻하는 ‘너르’ 등이 변하여 ‘노루’목이 된 경우가 많다. 목(項)은 사람의 목처럼 잘록한 부분, 굽어진 부분 등을 나타내며, 전국적으로 ‘노루목’이라는 이름이 매우 많다.

□ 매화마을

산본 1동의 노루목 주유소 부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매화(梅花)는 매실이라고도 하며 4군자로 꼽는 낙엽교목이다. 추위를 이기고 이른 봄에 일찍 꽃을 피우므로 옛 선비들이 난초, 국화, 대나무와 함께 4군자의 하나로 꼽았던 나무이다. 군포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마을 이름 부여는 산본



노두록 주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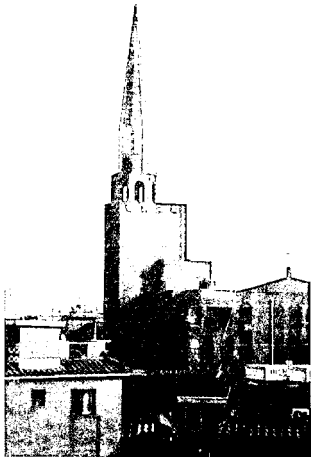
신도시 조성 당시 위양에서 군포로 들어오면서 차례대로 꽃이름 → 명산이름 → 위인이름 순으로 지명 위원회에서 붙였다고 한다.(이후 수록된 아파트 단지별 마을 이름은 모두 이 명명방침에 의한 것이라고 함)

□ 문화촌(文化村)

산본 1동의 금정역 서쪽에 조성된 집단 주택지이다. 산본 신도시 조성 이전부터 있었던 집단 취락지로서 본래는 산본천의 위쪽(북)으로 밀집되었으나 그 남쪽까지 확장되었다. 면적과 형태가 확실화되어 있는 집단 주택지대로서 전국적으로 이런 형태의 취락지역에 '문화촌'이라는 이름을 붙인 곳이 많이 있다.

□ 산본고가교(山本高架橋) : 소벌고가교

산본 1동의 동북쪽 고가차도이다. 안양시 호계로에서 산본으로 들어오는 길목으로서 경부선 철로 위에 설치되었으며, 명학 입체교와 연결된다. 이 고가교를 '소벌고가교'라고 표시한 곳도 있으나 그 출처와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⁵⁶⁾



문화촌

□ 산본교(山本橋)

산본 1동과 금정동 경계의 산본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금정역사의 북쪽이 된다.

□ 산본시장(山本市場)

산본 1동 214번지에 있는 시장이다. 군포시에는 2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군포역전시장과 산본시장이자 노루목 주유소의 남쪽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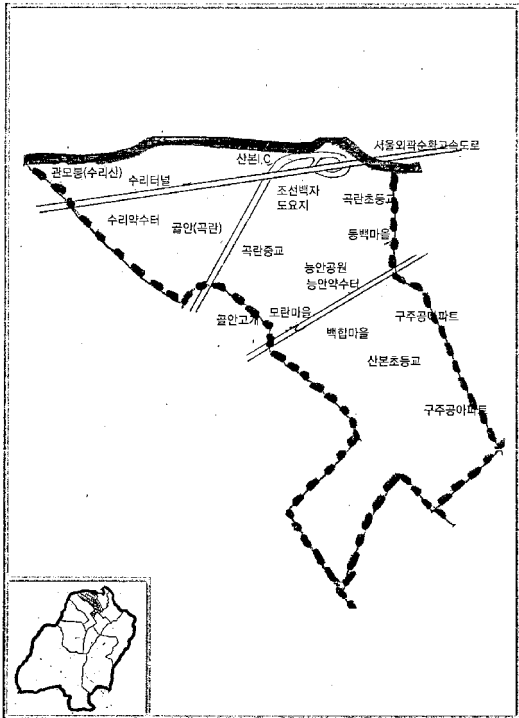
□ 산본천(山本川)

산본 1동의 문화촌(文化村) 마을 사이로 흘러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도로 밑을 흘러서 산본교(금정역사 내)를 지나 보령재약 북쪽에서 안양천에 합류한다.

56) 새한지도, 『수도권생활정보지도』, 2003, 256쪽.

4) 산본2동(山本二洞)

(1) 관내도



산본2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 및 연혁

'산본'이라는 이름은 산본 1동의 동명유래와 같다.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7개 리의 하나로 나오는데, 이때는 '산저리(山底里)'로 되어 있었다. 1871년(고종 8)에 이르러 지금의 이급인 '산본'으로 고쳐졌으나 한글 표기만 달라진 것일 뿐 현지에서 부르는 '산밭'이라는 토박이 이름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산본'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일본인들이 영용시키는 인물이자 일본인들의 성씨인 '산본(山本)'(야마모토)(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해군원수 '야마모토 이소로쿠')을 붙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는 1884년에 태어났고, 산저리가 산본으로 바뀐 것은 1871년이 되므로 일본의 성씨와는 관계없는 우리말 '산밭'을 한자화한 이름이다. 산본의 '본(本)'은 사물의 근본으로서 '밭'을 뜻하기도 하고, 나무의 줄기나 뿌리를 나타내기도 하며, 인간의 본성이나 고향을 의미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매우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할 때 시흥군 남면(南面) 5개 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읍이 시로 승격·분리될 때 산본리는 산본 1동과 산본 2동 등으로 나누어졌다. 법정동으로서의 산본동은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이고, 동사무소로서의 산본 2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 곡란중학교, 곡란초등학교, 산본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개나리 마을

산본 2동의 곡란초등학교(서쪽) 옆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단지이다. ('개나리'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개나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른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풀푸레나무과의 낙엽 활엽교목이 있고, 또 다른 개나리는 참나리에 대한 말로 "야생하는 나리"를 말한다. 여기서 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개나리를 말한다.

□ 골안 : 곡내(谷內) : 곡란(谷蘭)

산본 2동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쪽에 있는 자연마을로서 지금은 산도시의 주택가로 바뀌었다. 골안-곡내는 골짜기에 조성된 평지, 곧 곡저평지(谷底平地)나 분지에 취락이 형성되면서 부르는 이름이다. 골은 곡(谷) 또는 동(洞) : 행정구역이 아닌)을 말하며, '실'이 붙기도 한다. 한편 이곳에 난초가 많이 자생하여 '곡란'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는데, 곡란은 골안의 아화(雅化) 지명으로 보인다.

□ 골안고개 : 곡내현(谷內峴) : 산실고개

산본 2등과 광정동 사이, 광정과 골안 사이의 작은 고개이다. 일명 산실고개라 불렀다고 하며 지금은 능내동원과 시가지로 바뀌었다. 산본중학교와 곡관중학교 사이에 있었다.

□ 관모봉(冠帽峰)

산본 2등과 광정동의 경계가 되는 높이 426.2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줄기의 동북쪽 맨 끝 봉우리가 되며, 그 아래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의 수리터널이 뚫려있다. 봉우리가 관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며, '관모'는 갓(冠)과 모자가 결합된 말이다. (군포의 산 참조)

□ 구주공(舊住公)마을⁵⁷⁾

산본 2등에 있는 대한 주택공사 아파트이다. 군포시청 뒤 동산공원의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1단지와 2단지로 되어 있다.

□ 능안 공원 : 능내 공원(陵內公園) : 능안약수터

산본 2등의 개나리아파트 남쪽에 있는 공원이다. '능안', '능내'라는 이름의 내력은 산본고등학교 뒤쪽, 수리산 기슭에 있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 : 조선 성종의 제 3남)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능(陵)'은 본래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을 말하지만, 지방에서는 규모가 큰 무덤, 왕실의 종친이나 혹은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소를 높여서 '능'이라고 부르는 예가 많다. 또 산의 구릉지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곳에 능안약수터가 있다.

□ 동백(冬柏)마을

산본 2등의 곡관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동백'으로 부르게 된 내력은 매화마을 참조) 동백은 차나무과의 상록교목이다. 붉은 꽃을 피우며 옛날에는 여인들의 머릿기름으로 동백얼매를 썼고 여인의 정절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 모란(牡丹)마을

산본 2등의 능안공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모란과 목단은 같은 이름인데, 대개 꽃으로 부를 때에는 '모란'이라 하고, 약재로 부를 때에는 '목단'이라 한다.

57)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 2001년.



능안공원

□ 백합(百合)마을

산본 2동의 산본초등학교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백합은 화초로 유명하고, 순수 또는 순결을 상징하는 다년생 화초이다.

□ 산본(山本)인터체인지

산본 2동의 바로 뒤 수리산 기슭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나들목이다. 수리터널 입구 못 미처서 군포시내로 들어오는 길이며, 군포시민회관, 군포시청, 산본역으로 연결된다.

□ 수리산(修理山)

산본 2동의 뒤로부터 서쪽-남쪽으로 뻗은 산줄기이다. 최고봉인 태을봉의 높이가 489.2m이며 이 산으로 인하여 안양시, 안산시와 천연의 경계가 되고 있다. (군포의 산, 수리동의 수리산 등 참조)

□ 수리약수터(修理藥水-)

산본 2동의 산 18-3번지에 있는 우물이다. 태을초등학교 북동쪽에 있으며, 1993년 10월에 개발된 약수로서 수량이 풍부하다.

□ 수리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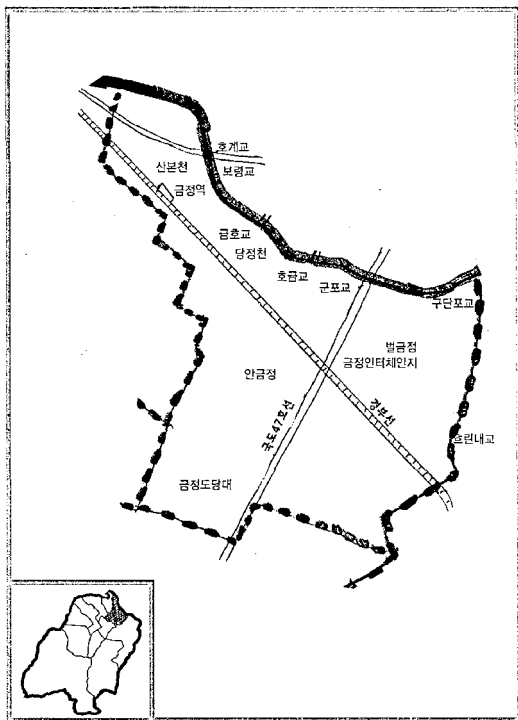
산본 2동의 수리산 관모봉 동쪽 기슭에 설치된 터널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남분기점과 연결된다. 길이는 1.9km이며 국내에서 터널 폭이 가장 넓은 터널로 알려져 있는데, 연도 2차선의 폭이 17.94m인 터널로 기록되어 있다.

□ 조선백자도요지

산본 2동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바로 아래(남) 있는 유적이다. 산본동 1057-4번지에 위치하며 사적 제34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은 조선 전기의 백자가마터로서 2개의 작업장이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는 귀중한 유적이다. 면적 2,348㎡이며 1991년 1월에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5) 금정동(衿井洞)

(1) 관내도



금정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금정동의 ‘정(井)’은 우물로서 『계림유사』에는 ‘정월오물(井日烏沒)’이라 하여 오물=우물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물은 원래 ‘우물’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 지역에 전해지는 바로는, 이 일대의 벌판에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 나와서 물을 뜨는 여인들의 옷깃(衿)을 적신다 하여 금정이라 부른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정조 임금의 화성 거동시에 이곳을 지나다가 큰 샘에서 물을 마셨으므로 그 샘을 금정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조의 현동원 원행이 1790년부터 이루어졌고 ‘금정’은 그 이전부터(1789년 문헌에 등장) 불려진 이름이므로 시간상 차이가 있다. 한편 시흥군의 옛 이름인 금천현의 ‘금천(衿川)’과 ‘금정(衿井)’은 같은 ‘옷깃 금(衿)’ 자를 쓰고 있으므로 어떤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흥이 ‘금천’으로 불려지던 1413년~1795년 사이에는 지금의 군포시 금정동 일대가 모두 과천현 남면의 지역이었고, 금천현의 치소(治所) 역시 금정동과 원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금천과 금정이 서로 관련된 이름으로 보기 어렵다. ‘금천(衿川)’이라는 이름은 1990년대에 군포시에서 시민문화제 행사이름을 ‘옷내골’ 축제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옷내’는 곧 ‘금천’의 훈역이다.

그런데 금정의 ‘금’은 크다는 뜻의 ‘큰’, ‘큰’을 표기한 글자로 볼 수 있으며, 큰 우물이 있어서 큰 우물, 금우물, 금문 또는 금정이라 부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 유래나 뜻대로 금정(衿井)은 시정(詩情)이 넘쳐나는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물을 뜻하는 글자로 ‘샘 泉(泉)’자와 ‘우물 정(井)’자의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천(泉)’은 자연 상태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것을 뜻하고, ‘정(井)’은 샘을 인공적으로 다듬어서 물을 퍼 낼 수 있도록 한 곳을 말한다. 곧 우물은 움푹 파인 움푹>우물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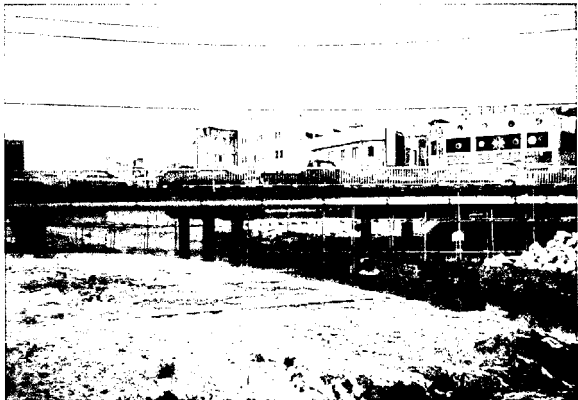
금정이라는 이름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도 과천현 남면(南面) 7개 리의 하나로 나오는 마을 이름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이 되었고, 이때 과곡리(槲谷里)를 금정리에 병합하였다. (과곡리는 현재 행정동 편제상 오금동에 속한다)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시가 분리·승격되면서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이자 11개 행정동의 하나로 현재에 이르렀다. 관내에 금정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구군포교(舊軍浦橋)

금정동과 군포 1동, 그리고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희성전선



구군포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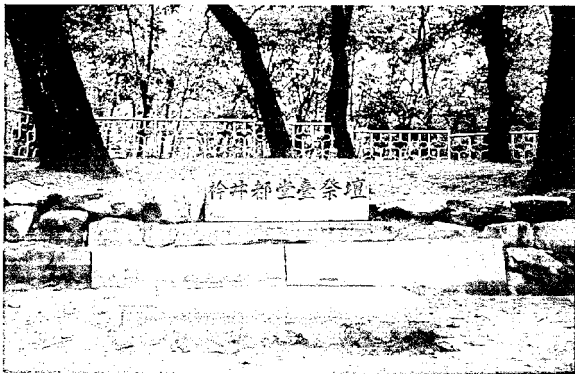
앞에서 구군포사거리와 연결되는 다리이며, 교명판도 '구군포교'로 새겨져 있다. 이 길을 안양사에서 '구군포길'로 명명한 바 있으나 앞으로 군포시의 가로명칭 제정 시 어떤 이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 군포교(軍浦橋)

금정동과 안양시 호계 3동 사이의 안양천 위에 놓인 교량이다. 구군포교의 서북쪽(안양쪽)이 되며 안양시의 흥안로(興安路)와 연결되고, 금정인터체인지를 통하여 군포시내와 연결되는 다리이다.

□ 금정(衿井) 도당대(都堂臺)

금정동의 안금정 서쪽 산에 있는 계단이다. 이곳은 동산(洞山)의 절길 쪽 봉우리(102.8m) 위에 설치되어 있는데 '금정도당대계단'이라고 새겨놓았다. '도당'은 경가지방에서 산신제를 올리는 당을 말하는데 원래는 마을 앞 산줄기 끝에 있는 큰 향나무였다. 어느 해에 제물로 사용할 소를 사와 가지고 깨어 놓았는데 소가 줄을 끊고 도망가버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소를 찾아 보니 현재의 당이 있는 참나무 밑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이곳을 명당자리로 생각하여 도당대계단을 설치하였는데 그때가 70년 전쯤이며, 현재의 계단은 1995년 5월 1일 새로 설치하였는데, 당은 참나무 여섯 그루로



금정도당대

되어 있고 앞쪽을 석축한 것이다. 지금도 매년 음력 7월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⁵⁸⁾

□ 금정역(衿井驛)

금정동의 경부선 선로에 있는 역으로서 지하철 4호선(당고개~오이도행)의 환승역이다. 1988년 10월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개통되면서 그 환승역으로 설치되었다.⁵⁹⁾ 신본천 위에 설치된 역으로서 ‘금정’이라는 이름은 법판에 자리잡은 마을이 되어 어디든지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 나와서 물을 뜨는 여인들의 옷깃(衿)을 적신다 하여 금정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 유래대로 풀이하면 ‘금정’은 매우 시정(詩情)이 넘치는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금정의 ‘금’은 크다는 뜻의 ‘금’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큰 샘이 있어서 큰 우물>금우물>금물 또는 금정이라 한 것으로 보고 있다.⁶⁰⁾

□ 금정(衿井)인터체인지

금정동의 금정역 동남쪽에 있는 교차로이다. 국도 47호선이 안양시내의 흥안로가 되어 군포시와 연결되며, 이곳을 통하여 군포시내의 각 방면과 접속하게 된다.

58) 군포시, 『군포시의 마음신앙』, 2003, 44 ~ 45쪽.

59) 한상훈 (금정역 근무, 393-7788, 2003년 12월 27일).

6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상, 1985, 410쪽.



금호교

□ 금호교(衿虎橋)

금정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한림벤처타운과 안양시 호계동의 가스안전공사 방향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금호'는 금정동의 '금(衿)'과 호계동의 '호(虎)'자를 합하여 만든 이름이다.

□ 당정천(堂井川) : 흐린내

금정동의 회성전선 서쪽으로 북류하여 금호교 못미처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이 하천은 감투봉에서 발원하여 황동을 지나면서 토질로 인하여 내가 흐려지므로 '흐린내'라 불렀다고 한다. 당정동을 지나므로 당정천이라 하며, 이것이 공식 하천 명칭이다. 이 당정천이 흐르는 도심 구간에 금정 1교와 금정 2교가 있다.

□ 동산공원(洞山公園) : 군포레포츠공원 : 금정4호공원

금정동과 계곡동에 걸쳐있는 시민 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의 아산으로서 군포시청의 뒷산이 되는데, 대개 마을 산을 가리켜 동산, 동매, 동미라고 하며, 동네 산을 뜻하는 친근하고 소박한 이름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군포시청과 군포사회회, 군포경찰서, 군포교육청, 군포전화국, 군포우체국, 군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고, 현충탑이 서 있다.

□ 벌금정 : 평금정(坪衿井)

금정동의 경부선 철도 동쪽, 안양천 일대의 들편을 말한다. 일제 시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벌은 들과 통하는 말로서 평이나 산간에 발달한 좁은 들을 나타낼 때 ‘벌’ 또는 ‘평(坪)’을 쓴다. 『훈몽자회』에는 “대야왈평통작평(大野曰坪通作平)”이라 하여 “큰 들은 평(坪)이라 하며, 보통은 평(平)으로도 쓴다”고 하였다.⁶¹⁾

□ 보령교

금정동의 보령제약 동쪽에서 안양천을 건너 안양시 호계동의 호계교로 연결되는 다리이다. 호계교의 바로 밑(남쪽)에 있으며, 주로 보령제약에서 사용하는 다리이다.

□ 산본천(山本川)

금정동의 금정역 밑으로 흘러서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이다. 수리산 밑의 초막동, 성지골 등 여러 물이 흘러서 산본천이 되고 금정동을 지나는 지방 2급하천이다. (‘산본’은 산본동의 유래 참조)

□ 안금정 : 내금정(內衿井)

금정동의 벌금정 서쪽, 경부선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금정리의 안쪽이 되므로 안금정, 내금정이라 한다. 금정인터체인지의 동쪽이 되며 지금은 모두 시가지화되었다.

□ 절말

금정동의 안금정에 속했던 자연마을이다. 안금정과 당동의 동막골 사이에 있었는데, 일제 초기부터 오지그릇을 구웠던 곳이므로 절말이라 불렀다고 한다. ‘젼(店)’이란 그전에 광물의 공작소, 도자거나 그릇의 제조, 갓이나 심, 농기구의 제작, 불건을 파는 시전 등을 통틀어서 ‘젼’이라 하였다. 지금의 산본골뜨연습장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⁶²⁾

□ 호계교(虎溪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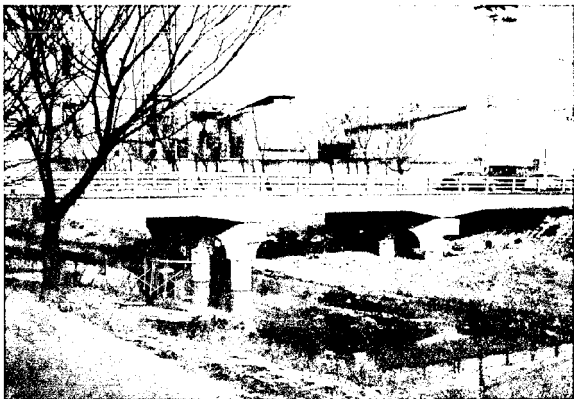
금정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이 다리는 안양시 호계로상의 다리로서 금정동과 안양시 호계 1동 사이를 잇는다.

□ 호금교(虎衿橋)

금정동의 안양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금호교의 남쪽이 되며 금정동과 안양시 호계 1동을 연결한다.

61) 이영택, 『한국의 지명』, 1986, 158쪽.

62) 이윤용(77세, 군포1동), 심계극(군포농업협동조합장)씨의 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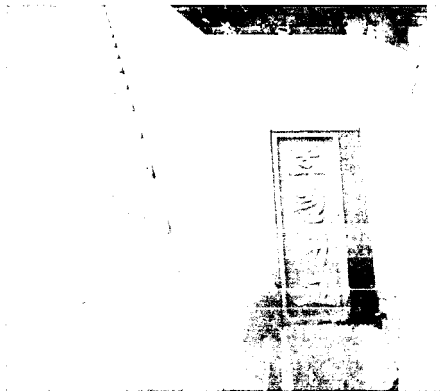


호금교

'호금'은 호계동과 금정동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합성지명이다. 이 명칭은 '금호교'의 경우 금정동의 '금'을 앞세웠으므로, '호금교'에서는 호계동의 '호'자를 앞세움으로서 주민들 간의 지명갈등을 조화시키는데 성공한 작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흐린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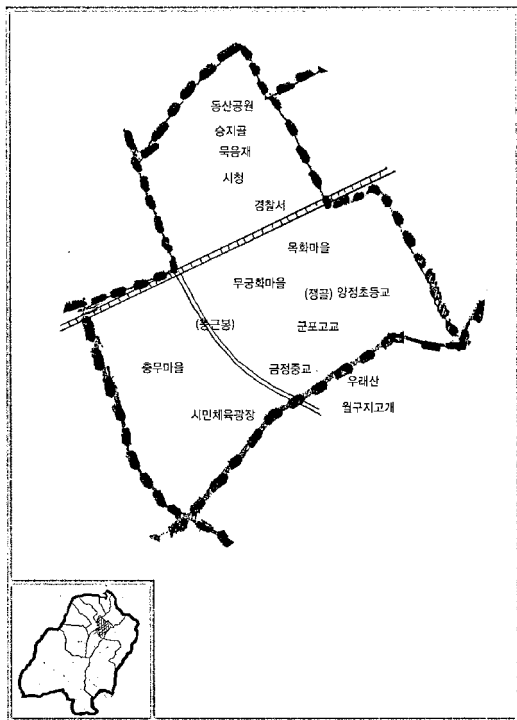
금정동의 회성전선 앞(서쪽)으로 북류하여 안양천에 합류하는 하천을 당정천 또는 흐린내라 하며, 그 하천 위에 놓인 다리로서 교명판도 '흐린내교'로 새겨져 있다. 회성전선의 남쪽 모퉁이에 있는 다리이다. (당정천 : 흐린내의 유래 참조)



호린내교

6) 재궁동(齋宮洞)

(1) 관내도



재궁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재궁동은 법정동인 금정동의 일부로서 그전 느티울 마을 인근에 있었던 쟁골마을에서 취한 이름이다. 쟁골은 재궁골이 변하여 재강골>재양골>쟁골의 토박이말로 되었는데, 이곳에 여산(礪山) 송씨(宋氏)의 재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재궁(齋宮)이란 재(齋)와 궁(宮)이 결합된 말이다. '재(齋)'는 원래 각 지방의 향교에서 성균관을 본 따서 서당과 비슷하게 운영하던 제도이며, 이것이 문중에서는 사학(私學)으로 발전하였고, 향교를 본 따서 조상을 제향하는 곳으로 변한 것을 재궁이라 하였다.

또 후손들이 벼슬을 지낸 조상의 묘를 지키고, 제향을 올리는 집을 재궁이라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재궁동, 재궁리, 재동리, 궁동, 궁대리 등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곳은 조선 초기 현성부사문 지낸 송복산(宋福山 : 1390~1467)선생의 묘를 쓴 후, 수양대군에 의하여 단종이 폐위되자 그의 둘째 아들 송 찬(宋 璣)이 관직을 사직하고 이곳에 내려와 초려(草廬)를 짓고 살았다. 그는 문과 장을 북향으로 내고 옛 임금을 생각하면서 일체의 손님과 교유하지 않았으며, 행적을 숨긴 채 살았으므로 그를 과천처사라 불렀다고 한다.⁶³⁾ 그의 후손들이 이곳에 재실을 짓고 조상을 모셨으므로 이곳을 재궁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법정동인 금정동에 속하여 온 마을이므로 재궁동의 연혁은 금정동의 연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1992. 5. 1 시 조례에 의하여 행정동인 금정동을 나누어 금정동과 재궁동으로 분동하였다. 1993. 1. 14 시 조례에 의하여 재궁동을 나누어 재궁동과 오금동을 분동하였다. 재궁동은 군포시 관내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며, 관내에 군포 시청, 군포경찰서, 군포교육청, 군포우체국 등의 관청이 들어서 있고, 군포고등학교, 금정중학교, 군포양정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광재골

재궁동의 군포우체국에서 군포경찰서를 거쳐 목화(한성)마을에 이르는 골짜기이다. 그전 광정마을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광재골이라 하였고, 변하여 광재골이 되었다. 광정마을의 동남쪽이 되며, 재궁골>재강골>쟁골의 경우처럼 토박이말로 방언화한 것이다.

□ 느티울 : 괴곡(槐谷) : 느티울골

재궁동과 오금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충무마을 일대가 느티울마을이며, 그 서남쪽 골짜기를 느티울골이라 하였다. 느티울골은 지금의 금정동 시민체육광장과 오금동 소월마을 부근이

63)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4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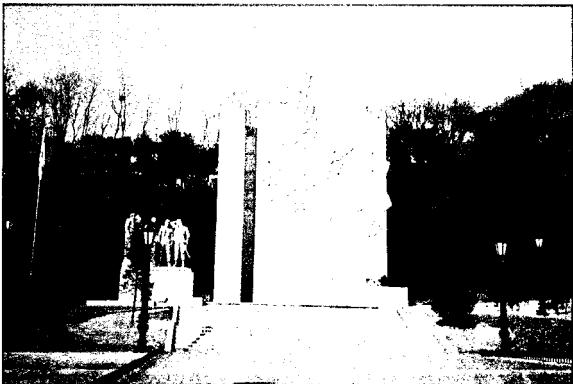
된다. 예로부터 왜나무(느티나무 = 괴목)는 청사를 다루는 조정을 상징하였으므로 민간에서 당산나무나 마을의 수호목으로 심었다. 그전에 등근봉 서쪽에 오래 된 느티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괴곡리는 1912년 과천군 남면 10개 리의 하나로 되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 금정리에 병합되었다.

□ 당말지하차도(地下車道)

재궁동과 군포 1동(당동) 사이에 있는 지하차도이다. 금정중학교 남쪽에서 원구지고개 남쪽으로 동하며 그전 등막골 남쪽으로 연결된다. 당동(당말)을 지하차도 이름으로 하였다. (군포 1동의 당말 참조)

□ 동산(洞山) : 동산 공원 : 군포레포츠클럽원 : 금정4호공원

재궁동과 금정동에 걸쳐있는 시민공원이다. 동산은 높이 115.8m의 산으로서 군포시청의 뒷산이 되며, 이곳에 현충탑이 서 있다. 대개 마을의 산을 가리켜 동산, 동메, 동미 등으로 부르며, 동네 산을 뜻하는 친근하고 소박한 이름이다. 현충탑이 들어선 그 일대는 조선시대 여산 송씨의 사재지(賜牌地 : 나라에서 내린 땅)로서, 문중에서 충훈탑 부지 1천여 평을 군포시에 기증하였다. 이 산 아래



동산공원 현충탑

군포시청과 군포시 의회, 군포경찰서, 군포 우체국 등의 관청기를 형성하고 있다.

□ 등근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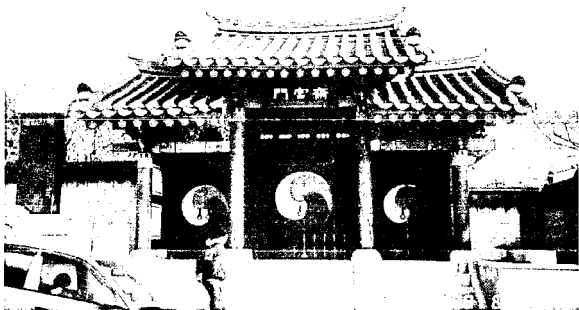
재궁동의 지금 무궁화마을과 충무마을 사이에 있었던 높이 84.8m의 봉우리였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금정중학교의 서쪽이 되며, 그전 느티울 마을의 뒷산인데 등그렇게 생겼으므로 등근봉이라 하였다.

□ 목화(木花)마을

재궁동의 군포경찰서 동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목면 또는 면화란 목화라고 하는데, (이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택하게 된 경위나 내력은 매화마을 참조) 목화는 고려 공민왕 때 분식점이 중국에서 그 씨를 불래 들여와 우리 나라의 의류 혁명을 일으킨 일년생 나무로서 무궁화과에 속한다.

□ 무궁화(無窮花)마을

재궁동의 목화마을에 인접하여 서남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우리 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등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그 배경이나 내력은 매화마을 참조).



목음재의 재궁문

□ 묵음재(默陰齋)

재궁동의 군포시청 뒤 현충탑 아래 있는 여산(隱山) 송씨(宋氏) 재실이다. 조선 초기 한성부사를 지낸 송복산(宋福山) 선생을 모시는 재실로서 문은 재궁문(齋宮門)이라 하였고, 문 앞에는 신도비(근래에 세운)가 있다. 송복산의 호가 묵재(默齋)이므로 재실을 묵음재라 하였다.

□ 산본역(山本驛)

재궁동과 광경동 사이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에 설치된 역이다. 안산선이 1988. 10월 개통되었고, 그후 산본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1992. 5. 1 산본역이 영업을 시작하였다. ‘산본’은 수리산의 ‘산’말을 뜻한다. (산본 1동과 산본 2동의 동명 유래 참조)

□ 승지굴(承旨-)

재궁동의 등산공원 현충탑이 서 있는 그 일대의 골짜기이다. ‘승지(承旨)’는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린 비서관으로서 임금의 명을 기록하여 출납하는 자리인데, 승지를 지낸 송복산 선생의 증손 형관공(刑判公) 송 점(宋楸)이 살았던 곳이라고 한다. 이곳에 문중에서 세운 안내표지석이 있다.

□ 시민체육광장(市民體育廣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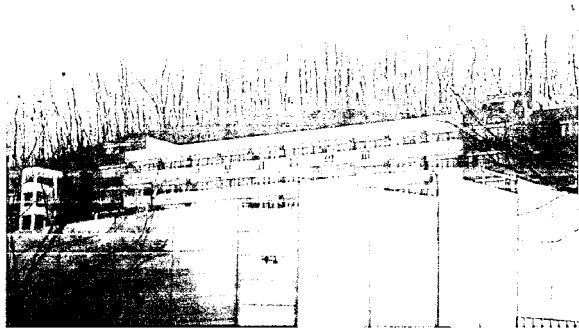
재궁동의 충무마을 동쪽에 있는 체육공원이다. 금정중학교의 남쪽이 되며, 2003. 8. 31 전천후 체육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면적 81,385㎡이며 인조잔디가 깔린 축구장, 육상경기장, 관람석, 우레탄 트랙이 설치되어 있고,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실내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다.

□ 우래산(雨來山)

재궁동과 군포 1동의 경계의 군포중학교와 군포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높이 127.5m의 산이다. 군포 시 관내에는 두 개의 우래산이 있으며, 이곳은 한문표기대로라면 옛날 기우제를 지냈던 곳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 우래산이 인근에 있었던 도랫말과 관련되는 이름이라면, 우(又 : 도, 또) 래(來 : 갓)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구지고개 : 당말고개 : 굴다리

재궁동의 그전 쟁골마을과 군포 1동(당동)의 야구광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우래산의 바로 남쪽이 되며, 당말고개 또는 굴다리라고도 하였다. ‘월구지’는 본래 ‘월걸이’로서 달이 걸리는 고개라는 뜻이라고 한다. 한편 ‘월구지’는 ‘달꽃이’가 변한 이름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산의 부리가 돌출하여 ‘꽃(串)’을 이루는 경우에 달꽃이>월고지>월구지로 될 수도 있다. ‘달’은 산 또는 산비탈을 뜻하며, 바로



우리산(군포교교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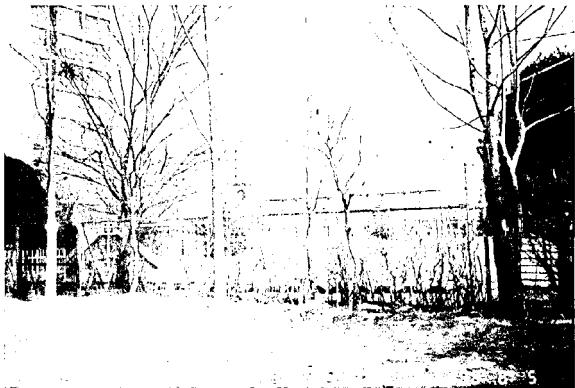
남쪽에 당말 지하차도가 뚫렸다.

□ 쟁골 : 재궁골(齎宮-)

제궁동의 양정초등학교와 목화마을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이곳은 재궁골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재강골>쟁골이 되었으며, 조선 초기 한성부사를 지낸 여산(礪山) 송씨(宋氏) 송복산(宋福山)의 묘와 그를 모시는 재실이 있었으므로 재궁골>재강골>쟁골이 되었다. (제궁동의 동명유래 참조)

□ 충무(忠武)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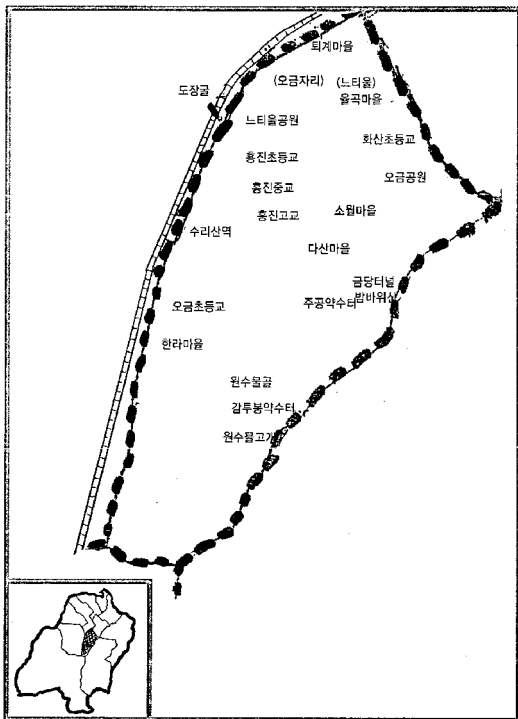
제궁동의 산본역에 인접하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선조 때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그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정공(양정초등학교 부근)

7) 오금동(五禁洞)

(1) 관내도



오금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오금동은 법정동으로서 금정동(衿井洞) 일부와 산본동(山本洞)의 일부로 형성된 행정동이다. '오금'이란 사람의 무릎이 구부러지는 그 안쪽을 말하며, 오금쟁이, 오금매기, 오금다리라고도 한다. '오금'은 옥다, 오그리다(曲)에서 비롯된 말로서 오목하게 들어간 곳을 말한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도 "오금 곡(曲)"이라 하였다. 같은 이름의 오금동에 관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은 조선 인조 임금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으로 피난하면서 다리가 아파서 "아이구 오금이야" 하였으므로 '오금동'이라 불렀다고 하며, 군포시 오금동도 이 오금으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마음이 오금처럼 산이 구부러진 안쪽에 아늑하게 자리 잡았으므로 '오금자리'라고 불렀던 자연마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문 표기의 '오금(五禁)'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단순한 음차(音借) 표기일 뿐이다.

오금동 지역은 큰 우물이 있어서 큰우물>큰우물>금우물>금물 또는 금정이라 부르던 지역과 수리산의 산길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된 산본동 지역에 걸친 지역이다. (금정동과 산본동의 동명 유래 참조)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금정리와 산저리(山底里 : 1871년 산본리로 고쳐짐) 지역으로서 1914년 과천군·시흥군·안산군의 3개 군이 시흥군으로 통합되면서 시흥군 남면 지역이 되었다. 이때 산본리, 금정리(괴곡리를 병합)가 되었으며,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된 후 1989년 1월 1일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될 때 금정동에 속하였다.

1992년 5월 1일 금정동을 나누어 재궁동을 분동할 때 재궁동에 편입되었고, 1993년 1월 14일 재궁동을 나누어 오금동을 분동하였다. 오금동은 군포시 9개 법정동의 하나인 산본동과 금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사루소로서의 오금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흥진고등학교, 흥진중학교, 흥진초등학교, 오금초등학교, 군포화산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감투봉 : 삼파산(三波山)

오금동과 대야동, 군포 2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수리산 거룡봉(슬가봉) 줄기가 남동류하여 솟아오른 산으로서 모양이 감투처럼 생겼으므로 감투봉이라 부른다고 한다. 감투는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썼던 탕건처럼 생긴 쓰개의 일종이며 감투=벼슬을 뜻한다. 또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흘러내리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산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당정천(호린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월저수지에 합류하므로 삼파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대야동의 감투봉 건설, 군포의 주요 산 참조)

□ 감투봉 약수터

오금동의 원수물골에서 원수물고개로 넘어가는 골짜기에 있는 샘이다. 이 산의 정상은 감투봉이라하므로 '감투봉약수터'라 한 것이다. 우신운수(뽕스)의 등쪽 골짜기이다.



감투봉 약수터

□ 공동지골

오금동의 오금초등학교 동남쪽 골짜기이다. 도장굴골의 동남쪽이자 원수물골의 북쪽 골짜기이다. 그 내력이 확실하지 않으나 1979년도 1 : 5,000 지형도에는 공동묘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 금당(禁堂)터널

오금동과 군포 2동의 당동 사이 반비위산 북쪽을 동서로 관통하는 터널이다. 도오골에서 산 줄기끝 관통하여 도장동의 동북쪽으로 통하는 터널로서 오금동의 '금(禁)'자와 당동의 '당(堂)'자를 합하여 금당터널이라 하였다. 일부 지도에 '금화터널'로 표기된 곳도 있다.

□ 느티옴 : 괴곡(槐谷)

오금동과 계곡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오금동 율곡마을과 계곡동의 층무마을 일대(아파트 단지)에 있었던 마을이다. 옛부터 느티나무가 많아서 느티굴>느티옴(기 탈락)이라 하고, 한자로 괴곡이라 하였다(느티나무=槐). 느티나무는 회나무라고도 부르는 낙엽교목으로서 중국의 주대(周代)에 조정의 뜰에 회나무 세 그루를 세워서 삼공(三公)의 좌석을 표시하였을 만큼 널리 숭상하던 나무이다. 괴곡리는 1912년 과천군 남면 10개리의 하나로 되어 있다(기⁶⁴)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 때 시흥군 남면 금정리에 병합되었다.

□ 느티옴골

오금동의 소월마을과 계곡동의 시민체육공원 일대의 골짜기이다. 바로 위(북)에 느티옴 마을이 있으므로 이곳을 느티옴골이라 하였다.

□ 느티옴 약수 : 괴곡약수(槐谷藥水)

오금동의 동사무소 뒤(남쪽) 밤바위산 밑에 있었던 약수터이다. 금당터널공사로 인하여 폐정이 되다시피 하였으나 그전에는 마을의 대동제를 지낼 때 제사용으로 사용하던 샘이었다.

□ 다산(茶山)마을

오금동의 흥진고등학교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자 신학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선생의 호를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하였다(그 배경이나 연원에 대하여는 매화 마을 참조).

□ 도장굴 : 도장동(道藏洞)

오금동과 수리동, 광정동 일대에 걸쳐 있었던 마을이며 그 일대의 골짜기를 도장굴골이라 하였다. 오금동의 느티옴공원, 수리동의 양지공원, 광정동의 도장공원 일대를 도장굴골이라 하며, 수도권 진진 안산선의 산본역과 수리산역 사이의 커브구간을 말한다. 그 내력을 전해주는 문헌자료나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수리동의 도장골 참조)

□ 도장터널

오금동과 수리동 사이의 시도(市道)상에 설치된 터널이다. 수도권 진철 안산선과 나란히 뻗다가 수리산 줄기인 무성봉과 감무봉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로서 남쪽에서 국도 47호선과 접속하게 된다.

64)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1912, 74 쪽.

□ 밤바위산 : 밤배산 : 밤바위

오금동과 군포 2동 당동마을 경계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181.7m의 산이다. 군포시내를 동북-서남쪽으로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산줄기의 한 봉우리로서 그 밑으로 금당터널이 뚫렸다. 오금동 오금자리 동쪽 병풍바위와 이 바위 아래 산기슭에 있는 밤벌을 묶어서 밤바위, 밤바위산, 또는 밤배산이라 부른다고 한다.⁶⁵⁾

□ 소월마을

오금동의 화산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소월 김정식은 주옥같이 아름다운 시를 남기고 요절한 천재시인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채택한 배경은 매화마을 참조).

□ 수리산역(修理山驛)

오금동과 수리동 사이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에 있는 역이다. 1988년 10월 안산선이 개통되었는데, 그후 산본신도시 건설에 따라 1992년 5월 1일 산본역이 개통되었고, 수리산역은 군포시 관내 5개 역 중에서 가장 최근에(2003년 12월) 개통된 역이다 (수리동의 수리산역 참조).

□ 오금공원(五禁公園)

오금동의 화산초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재궁동 시민체육광장의 남쪽이 되며, 오금자리의 이름을 따서 오금공원이라 하였다.

□ 오금약수터

오금동의 금정동 871-6번지에 있는 약수터이다. 1994년 12월에 개발된 우물이다.

□ 오금자리

오금동의 느타리굴과 도장굴 사이에 있었던 마을이다. 흥진중·고등학교와 소월마을 일대에 있었다. ‘오금’이란 본래 무릎이 구부러지는 그 안쪽을 말하며 슬픽 또는 꼭추라고도 한다. “오금이 저린다”는 말은 힘이 빠져 오금을 펴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오금을 지역에 따라서는 오금쟁이, 오금매기, 오금댕이, 오금다리라고도 하는데, 마을의 산 뒤쪽이 야누하게 가려져 있어서 급히진 오금처럼 보였을 것이다.

65)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38쪽.



옛 오금자리 부근(출진고 - 옥곡마을)

□ 옥천 약수터

오금동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약수터이다. 금정동 산 100번지에 있는 약수터로서, 1996년 8월에 개발된 샘이다.

□ 원수물골(원승물골) : 원수물고개

오금동과 군포 2동의 당동마을 사이에 있는 높이 136.6m의 원수물고개가 있고, 이 고개의 서쪽 오금동 현리마을 4단지와 우신운수가 들어선 골짜기가 원수물골이다. 옛날 어느 전쟁 때에 한 장수가 도장굴골로 피하여 들어왔는데, 감투봉 밑의 원수물골에 이르러서야 한숨을 쉬면서 “원 승을만한 골짜기리구나” 하였으므로 원수물골 또는 원승을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도장골의 “감출장(藏)” 자도 이처럼 숨다(감추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⁶⁶⁾

66) 류거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936쪽.



원수물고개

□ 율곡(栗谷)마을

오금동의 퇴계마을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율곡 이이 선생은 조선 선조때의 명신이자 대유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게 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 주공약수터

오금동의 한라아파트(1차) 동쪽에 있는 약수터이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아파트 단지의 동쪽이 되므로 '주공약수터'라고 하며, 이 아파트단지 바로 옆에도 '주공 4단지 약수터'가 있다. 1992년 9월에 약수터로 개발되었다.

□ 퇴계(退溪)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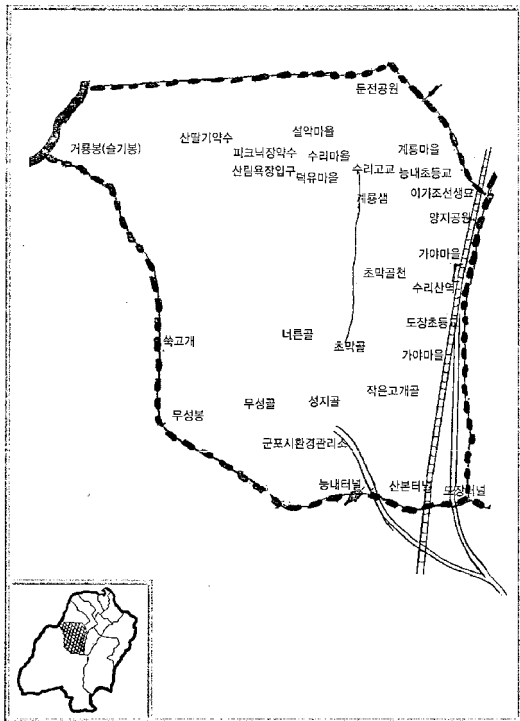
오금동의 율곡마을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조선 명종 때의 명신이자 대유학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게 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퇴계와 율곡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명명되어 있는 것도 보기 좋은 일이다.

□ 한리(漢孺)마을

오금동의 수리산역 동쪽, 수도권 전권 안산선의 바로 동쪽으로 길게 조성된 아파트 단지이다. 제주도에 있는 남한 최고봉인 한라산(漢拏山)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그 경위는 대화마을 참조).

8) 수리동(修理洞)

(1) 관내도



수리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수리동이라 하였다. 이 지역은 산본 1·2동, 광정동, 궁내동, 수리동에 이르기까지 모두 '산본동'이라는 단일의 법정동의 속한다. '산본'이란 수리산의 '산밭'을 뜻하므로(산본동의 동명 유래 참조) 수리동, 산본동이라는 이름이 모두 수리산에서 비롯되었다.

군포시와 안양시, 안산시 등 3개시의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수리산은 시흥군에 속하던 시절에는 수리산과 수암봉을 기준으로 '동부시흥'(지금의 군포시와 의왕시), '서부시흥'(안산시 일대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고, 이보다 앞서서 조선 후기에는 이 수리산을 경계로 과천현과 안산현이 나누어지기도 하였다. (수리산의 유래는 군포의 산 참조)

이 지역은 1789년(정조 13) 『효구총수』에 과천현 남면(南面)에 속한 7개리의 하나로 나오는 '산저리(山底里)'인데, 1871년(고종 8) 산본리(山本里)로 고쳐졌으나 모두가 '산밭'을 뜻하는 이름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합 때 그전 과천군·시흥군·안산군의 3개 군을 시흥군으로 통합하였는데, 이때 시흥군 남면에 속한 5개리의 하나가 된다. 그후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군포읍이 군포시로 승격될 때 행정동인 산본 2동에 속하였다. 1993년 6월 8일 산본 2동을 나누어 행정동인 수리동이 되었고, 1994년 7월 19일 수리동을 나누어 행정동인 궁내동을 설치하였다. 수리동은 군포시 관내 11개 행정동의 하나로 현재에 이르렀다. 관내에는 수리고등학교, 능내초등학교, 도강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가야(伽倻)마을

수리동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가야'는 경남 함천과 경북 성주 사이에 있는 명산 가야산(伽倻山)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매화마을 참조)

□ 거룡봉(巨龍峰) : 슬기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469.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데 종전의 높이 474.8m는 새 지도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이 봉우리를 경계로 대야동과 수리동이 나누어지며 이 봉우리의 서남쪽은 군부대 시설로 인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산의 이름은 본래 거룡봉이라 부른다고 하며, 그동안 여러 지도에는 이 봉우리를 '수리산'으로 표기하여 왔다. 거룡은 큰 용을 뜻하는데, 그 연원이나 내력은 확실하지 않으나*7) 풍수지리에서는

산 줄기를 내룡(來龍) 또는 용이라 하므로 지상학(地相學)의 관점에서 비롯된 이름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슬기봉'이라는 이름은 근래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이며, 그 내력이나 연원을 전해주는 기록이 없다. 15세기 문헌에 보이는 '슬갑다'는 말에서 '슬기'가 나왔으며,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나 지혜를 슬기라 하고 밝음과 지혜로움을 뜻한다. 그런데 '슬기'가 그전부터 부르던 이름이라면 같은 수리과(수리산=수리)의 명금류인 '슬개'가 '슬기'로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군포의 산 참조).



슬기봉

67) 류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62쪽.

□ 계룡(鷄龍)마을

수리동의 동사무소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계룡'이라는 이름은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등의 경계에 있는 명산 계룡산의 이름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매화마을 참조) '계룡'이 이 마을 서쪽에 있는 수리산 연봉의 하나인 거룡봉(469.3m)을 '계룡'으로 잘못 알고 붙인 것인지도 알 수 없다.

□ 계룡샘(鷄龍-)약수터

수리동의 수리고등학교 남쪽에 있는 샘이다. 초막골천의 입구 하천변에 있으며, '계룡'이라는 이름은 인근의 '계룡마을'(아파트단지)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계룡샘 약수터

□ 너른골

수리동의 초막골에서 갈려나온 서쪽 골짜기이다. 무성골의 북쪽 골짜기가 되며 골짜기가 비교적 넓으므로 너른 골이라 하였을 것이다. '넓다'는 뜻의 옛말은 '남'이었으므로 경기도 지역 방언에서는 '넓은 바위=너른 배(바위)', '넓은 여울=너른 열(여울)', '넓은 밭=너른 밭>너밭'로 나타나기도 한다.⁶⁸⁾

그러므로 이곳은 '넓다'는 뜻보다도 '늘어졌다'는 뜻의 '늘어진골=느린골>너른골'로 된 것이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 능내(陵內)터널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의 수리산 등남 줄기(무성봉 등남쪽)에 있는 터널이다. 군포시 환경관리소와 군포환경미화과, 부곡동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을 연결하는 시도에 설치된 터널이다. '능내'라는 이름은 부근의 김만기선생 묘역이나 이기조 선생 묘역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일 것이다.

□ 덕유(德裕)마을

수리동의 선암마을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명산 덕유산(德裕山)의 이름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그 명명 배경은 배화마을 참조).

□ 도장골 : 도장동(道藏洞)

수리동과 오금동, 광정동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다. 지금의 수리동 양지공원, 광정동의 도장중학교, 신흥초등학교,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수리산역과 산본역 사이 커브구간 일대에 해당된다. 도장(道場)을 불가에서는 '도량'이라고 하는데, 중들이 정진 수도하는 곳이며, 한편 외양목을 도장나무라고 하는데, 이곳에 도장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군포시 지명 유래집』에서는 인근의 지명 중 '원수물골=원승을골'과 관련하여 '감출 장(藏)'자를 쓰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 도장교(道藏橋)

수리동의 도장터널 입구에 있는 다리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과 나란히 뻗은 시도(市道)상의 교량으로서 도장터널의 북쪽 출입구가 되는 곳이다.

□ 도장골골

수리동과 오금동, 광정동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그전 도장골 마을 일대를 도장골골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그 일대가 아파트 단지, 도시공원, 수도권 전철 안산선 철로부지, 학교부지 등으로 편입되었다.

□ 도장터널

군포시내를 관통하는 수도권 전철 안산선과 나란히 뻗은 시도(市道)상의 터널이다. 이 시도가 국도 47호선과 교차하여 한국복합물류 군포터미널로 이어지는데, 도장터널은 수리산의 무성봉과 감부봉

68) 배우리, 『땅이름 뿌리 찾기 2』, 1994, 183쪽.

사이를 관통하는 터널이다. 이 구간에는 전철 안산선의 산본터널, 환경관리소로 이어지는 능내터널의 3개 터널이 있다.

□ 동적골 : 둔전(屯田)

수리동의 한국전력 산본 변전소와 광장동 우록마을 일대에 있었던 마을이자 골짜기이다. 이 지역은 지방의 주둔병에게 군량을 지급하도록 지급하는 둔전이 있었다고 한다. (궁내동의 둔전 참조)

□ 둔전공원(屯田公園)

수리동의 설악마을 바로 동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금강마을의 남쪽이 되며 그 부근이 옛날 동적골의 둔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 만남의 광장

수리동의 수리산 삼림욕장에 있는 장소이다. 수리산 능선에서 내려오는 등산로와 중간이 되며 남쪽으로 용진사와 죽고개 쉼터로 이어진다. 등산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도시 주변의 삼림욕장마다 대개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다.⁶⁹⁾

□ 만남 약수터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207-2번지에 있으며, 1997년 9월 약수터로 개발된 샘이다.

□ 무성골

수리동의 무성봉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바로 위(북)쪽이 되며 너른골의 남쪽이 된다. 무성봉의 이름을 따서 무성골이라 하며, '무성'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무성골'이라 부르는 골짜기가 많다. 그 중에는 으스스한 곳, 무서운 곳을 뜻하는 '무성굴'도 있다.

□ 무성봉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에 있는 높이 258.3m의 봉우리이다. 수리산 연봉의 거룡봉(솔기봉) 줄기가 동남류하다가 솟아오른 봉우리로서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서쪽에 있다. '무성봉'이라는 이름의 내력이나 연원을 알려주는 문헌 또는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군포의 산 참조)

69) 김형수, 『한국 400 산행기』, 깊은 숲, 2003, 44~45쪽.

□ 방아골

수리동의 산본터널 북쪽 입구에 있는 골짜기이다. 방아는 곡식을 찧거나 뿜는 기구로서 물레방아와 디딜방아가 있다. '방아'라는 이름이 붙은 곳은 그전에 물레방아가 있었던 곳이거나 지형이 디딜방아를 닮은 경우가 많다. 옛날의 디딜방아는 Y자형으로 생겨서 두 사람이 밭을 딛게 되어있는데, 골짜기나 산 또는 물길이 갈라져서 Y자형으로 생긴 경우에도 '방아골'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곳은 그전에 방아골과 원수룡골이 갈라지는 형태의 골짜기였다.

□ 산딸기 약수터

수리동의 삼림욕장 입구에서 성불사로 올라가는 등산길의 중간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딸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전에 산딸기가 자생하던 곳이었을 것이다.

□ 산본(山本) 약수터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840-143번지에 있으며 1994년 12월에 개발된 샘이다. 인근의 용진사에도 용진사 약수터가 있다.

□ 산본터널

수리동의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수리산역을 지나 남쪽으로 달리는 선로상의 터널이다. 수리산의 한 줄기가 기룡봉(순기봉)에서 동남류하여 무성봉과 감투봉으로 뻗었는데 그 중간에 뚫은 터널로서 대야동과 경계에 걸쳐있다.

□ 선봉골 : 손봉골

수리동의 수리고등학교에 접하여 서남쪽으로 뻗은 (작은)골짜기이다. 1 : 5, 000 지형도에는 2002년판과 1979년판 모두 '손봉골'로 되어있다. 그 이름의 내력이나 연원에 관하여 문헌이나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설악(雪嶽)마을

수리동의 수리동사무소 뒤(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단풍으로 유명한 명산 설악산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하였다. (그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 성불사(成佛寺) 약수터

수리동의 수리산 기슭 성불사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840-181번지가 되는데 1997년 9월에 약수터로 개발된 샘이다.

□ 성지골

수리동 초막골의 남쪽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골짜기이다. 형남·성남, 형계·성계로 되듯이, 지역에 따라서는 '형계'가 '성지'로 방언화된 경우도 있다. 군포환경관리소의 바로 앞에 되는데 문헌이나 구전상 따로 전해지는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수리(修理)마을

수리동의 덕유마을과 설악마을 사이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수리산 자락의 수리동에 들어선 아파트이니 '수리'라는 이름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수리산, 수리동의 명칭 유래 참조).

□ 수리산(修理山)

군포시의 북쪽과 서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산줄기로서 최고봉인 태을봉(太乙峰)은 높이 489.2m이고 군포시의 수호산이자 진산(鎭山)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이다. 이 산 줄기를 경계로 안양시, 안산시와 접하고 있으며 슬기봉-고갈봉 일대는 군부대 시설이 들어서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수리는 옛 이름(안산시 수암봉의 그전 이름) 취암(鷲岩)이 곧 '독수리 바위'로서 산 봉우리의 바위가 독수리처럼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슬·수리는 높다는 뜻과 함께 으뜸, 높음, 최고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우리말 '정수리'와 통하고, 태양을 뜻하는 '솔'(Sol : 로마의 신화에서는 태양신, 우두머리를 뜻하는 '솔'(수로 : 김수로왕) 등과도 통하는 말이다. 수리산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산 줄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맹금류, 특히 독수리가 막 날개를 펴고 비상하려는 형상을 이루고 있어서 산과 이름이 신통하게 일치하는 명산이다.

산을 나타내는 옛 말에는 '모락'계, '부리'계, '둘'계, '되'계, '수리'계 등 여러 갈래의 이름이 있으며, 설악산(설), 수락산(솔), 수리산과 같은 이름은 모두 '솔(수리)'계의 산 이름으로 분류된다. 이 산을 태을산, 견불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렀고 또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하였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 산림욕장

수리동에서 궁내동, 광정동 등에 이르는 수리산 줄기의 삼림욕장으로서 그 안에 만남의 광장과 테마가 있는 숲, 약수터 등이 조성되어 있다. 수리동 덕유마을과 설악마을 부근에 삼림욕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조성되어 있다.



수리산 산림욕장 입구

□ 수리산역(修理山驛)

군포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권 전철 5개 역의 하나이다. 1988년 10월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개통되었고, 이때 금정역이 설치되었는데, 수리산역은 맨 나중인 2003년 말에 개통된 역이다. 당초 역 이름을 '노장역'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수리산 기슭의 수리동에 들어서는 역이므로 '수리산역'이라 하였다. (수리산의 지명 참조).

□ 속고개 : 속고개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수리산 거룡봉(솔기봉)에서 남동유하는 산 줄기가 무성봉으로 뻗은 그 중간지점에 있다.⁷⁰⁾ 이 부근에는 근래에 산을 깎아서 개설한 비포장도로가 있고, 이곳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속 또는 속과 관련된 이름은 전국적으로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속이 무성한 곳, 숲을 구웠던 곳, 지형이 속 뒹어 나왔거나 속 들어간 곳 등에 같은 이름이 붙은 경우가 많다.

70) 일양지도문화사, 『한국 200명산 전국등산지도』, 1996, 78쪽(속고개) 및 김형수, 『한국 400 산행기』, 2003, 34쪽(속고개).

□ 양지(陽地)공원

수리동의 수리산역 북쪽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서쪽에 조성된 공원으로서 가야마을(아파트)의 북쪽에 숲과 연못으로 조성되어 있다. 양지는 양달, 곧 양지바른 곳, 따뜻한 곳을 뜻하는 이မ်으로서 수리산록의 동쪽이 되기 때문이다. 이곳에 군포지역의 호국무공 수훈자를 위한 공적비가 세워져 있다.

□ 이기조(李基祚) 선생 묘와 신도비

수리동의 산본동 1152-11번지에 있는 묘역이다. 이기조 선생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으로 인조반정과 병자호란 때 공을 세운 인물이다. 이 묘역은 1728년(영조 4) 경기도 장단에서 이장하였으며, 조선 중기의 양신인데 동자석·방주석·문인석·신도비 등이 있고, 경기도 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되어 있다.

□ 작은고개골

수리동과 대야동 사이를 뚫은 능내터널의 북쪽 출입구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골짜기이다. '작은 고개'가 있기 위해서는 또 다른 큰 고개가 있어야 하는데, 큰 고개가 어느 고개를 뜻하는지 전해지는 문헌이나 구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초막골 : 초막동(草幕洞)

수리동의 군포시환경관리소에서 북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이 일대는 본래 마을로 되어 있었던 곳으로 조선총독부 간행 자료에는 '초막동'으로 나온다. 또 한글학회 발간 자료에는 초막동=담배촌이라 하여 담배농사를 많이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⁷¹⁾ '초막'이란 풀이나 짚으로 지붕을 이은 집을 말하며 대개 조그만 막집을 뜻한다. 최근 초막골 일대에서 대규모 습지가 발견되었는데, 이곳에는 국수나무, 오리나무 등 여러 종류의 환경지표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초막골천

수리동의 초막골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이다. 초막골에서 흘러 내려므로 초막골천이라 하며 산본천의 상류가 된다. '초막골천'이라는 하천명칭은 군포시 발행 행정지도(2001년 9월 발행)에 표시되어 있다.

71) 조선총독부, 『한국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74쪽 및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권 상, 1985, 4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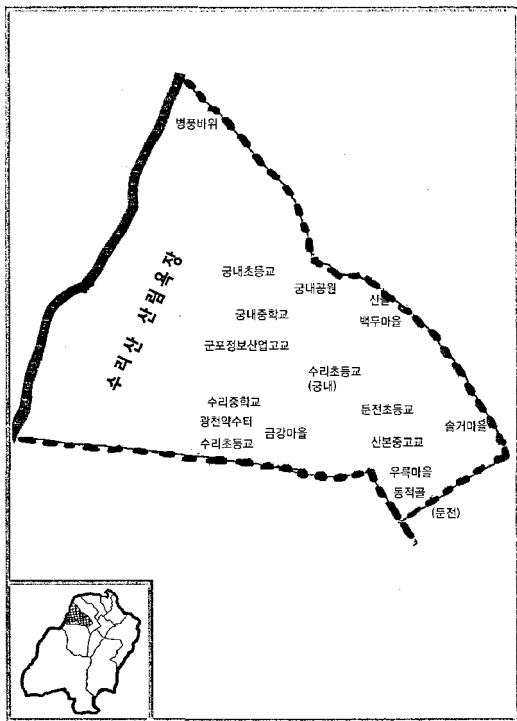
초막골

□ 피크닉장 약수터

수리동의 삼림욕장 입구 초입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을 오르는 첫 길목이 되므로 피크닉장 약수터라 하였을 것이다.

9) 궁내동(宮內洞)

(1) 관내도



궁내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궁내동과 광정동, 그리고 수리동의 3개 동은 모두 수리산의 산밑이 되므로 행정동은 다를지라도 법정동은 모두 신본동(산 밑이라는 뜻)으로 되어있다.

궁내동은 본래 과천현 남면에 속한 지역으로서 곡란·광정골·궁안골·둔전골·도장골 등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통틀어 산저리(山底里)라 하여 남면 7개리의 하나였다. 그후 1871년(고종 8) 산저리를 산본리(山本里)로 바꾸었으며, 궁내동이라는 이름은 그전 자연마을 궁안골-궁내동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궁(宮)’이란 국왕이 거처하는 궁궐이나 행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종친이나 종실에 딸린 묘(廟), 사당 등도 ‘궁’이라고 불렀다. 이 지역은 왕족인 전주 이씨의 사택지(賜賚地)이고 또 인근의 광정동에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가 있으므로, ‘궁 안쪽’이 된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으로 보인다. 안양군은 조선 성종의 제3남(왕자)이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합 때 과천군·안산군·시흥군의 3개 군을 합하여 시흥군으로 통합되었고, 이때 군포지역은 시흥군 남면이 되었으며, 이곳은 5개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다. 1979년 5월 1일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읍이 군포시로 분리·승격되면서 군포시 수리동이 되었다. 그후 1994년 7월 19일 행정동사무소인 수리동을 나누어서 수리동과 궁내동으로 분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궁내’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궁내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군포정보산업고등학교, 산본공업고등학교, 궁내중학교, 수리중학교, 수리초등학교, 궁내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고개사거리72)

궁내동의 수리산 능선 위에 있는 등산로의 교차로이다. 안양시 창박골 삼거리에서 동이점골과 담배골을 통하여 수리산 능선으로 오른 후 군포시 상연사로 내려가는 길과, 태을봉에서 능선을 따라 서남쪽의 슬기봉으로 통하는 길이 교차하는 길목이 된다.

□ 평천약수터

궁내동의 수리초등학교 뒤편(서)에 있는 약수터이다. 광천(鑛泉)은 광물성이나 방사성 물질을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샘을 말하는데, 이 약수터를 광천 약수터라고 부르는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72) 김형수, 『한국400 산행기』, 깊은 숲, 2003, 44~45쪽.



광천약수터

□ 궁내(宮內) : 궁안

궁내동의 아파트 단지인 묘향마을 부근에 있었던 자연마을이다. 이 마을 서쪽 수리산 기슭이 전주 이씨의 사패지(賜牌地)⁷³⁾이고, 이 산에 조선왕조 어느 대군의 묘가 있어서 궁내 또는 궁안이라 불렀다고 한다. '궁(宮)'이란 왕실의 궁궐 이외에도 종실에 딸린 묘(廟)나 사당도 '궁'이라고 하며 궁의 안쪽을 뜻한다. 광정동에 있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 : 조선 성종의 제3남 이항의 묘)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한편 '궁안'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이 지역이 궁에 소속된 땅이므로 그 안쪽이 되는 지역을 '궁안'이라 불렀다고 한다.⁷⁴⁾

□ 궁내공원(宮內公園)

궁내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도시공원이다. 궁내동의 이름을 따서 궁내공원이라 하였다. 수도사업 소(경수장)의 동쪽, 엘림복지타운의 서남쪽이 된다.

73) 풍신이나 종진, 기타 나라에서 특정인에게 내린 땅을 말함.

74) 이기형 (전주이씨 종친회 회장)씨의 증언.

□ 금강(金剛)마을

궁내동의 묘향마을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궁내동에는 명산의 이름을 따서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한 곳이 백두마을, 묘향마을, 금강마을의 세 마을이 있고, 역사인물을 딴 곳으로는 솔거마을과 우곡마을이 있다. ‘금강’은 천하명산 금강산을 취한 이름으로서 금강석, 다이아몬드, 가장 단단한 보석을 뜻하기도 하고, 불교에서 관행어처럼 쓰이는 말로서 ‘가장 뛰어난’, ‘가장 단단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매화마을 참조).

□ 동적골

궁내동의 우곡마을과 광정동 을지마을 일대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도장굴골의 북서쪽이 되며 그전 궁내마을의 바로 남쪽이 된다. 이 골짜기에 논이 있어서 그 논을 둔전(屯田)이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 일대를 둔전골, 둔터골 혹은 동적골이라 불렀다고 한다.⁷⁵⁾

□ 둔전(屯田)

궁내동의 동적골에 있는 논이 둔전이었으므로 이 마을을 둔전마을이라 불렀다고 한다. 둔전은 평시에는 농사에 종사하고, 외적이 침입할 때에는 군대를 조직하여 적을 막는 병사들이 소속되었는데, 둔전병이라 하였다. 그들이 주둔하는 곳을 둔(屯)이라 하였고, 그 전답을 둔전(屯田)이라 하였다. 그러나 ‘둔전’이라는 지명이 붙은 곳은 비교적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는 곳이 대부분이다.

□ 묘향(妙香)마을

궁내동의 아파트 단지인 백두마을 서남쪽 아파트 단지이다. 궁내공원의 바로 남쪽이 된다. 인근에 명산의 이름을 붙인 금강마을과 백두마을이 있다. 묘향산은 평안남도과 평안북도의 경계에 있는 높이 1,909m의 명산이다. (매화마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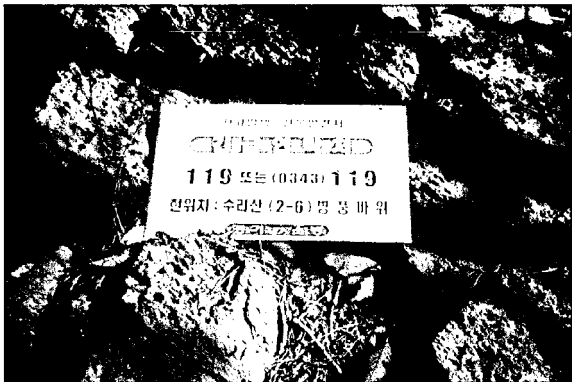
□ 백두(白頭)마을

궁내동의 궁내공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하였다. (매화마을 참조).

□ 병풍(屏風)바위

궁내동의 수리산 줄기 능선 위에 있는 바위이다. 병풍이란 장식을 곁하여 무엇을 가리거나 둘러치기 위해 여러 쪽으로 겹쳐져있는 장식품을 말한다. 병풍바위는 태을봉에서 솔거봉 쪽으로 조금 내려오

75) 유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43쪽.



병풍 바위

면 농산 위에 병풍처럼 펼쳐진 바위가 나타난다. 바위의 높이는 약 15~20m, 폭은 30~40m 쯤 되며 산불이나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신고 위치 지점으로 명시되어 있다.

□ 산골

궁내동과 광정동 사이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광정동 엘림복지타운의 남쪽에서 궁내공원으로 연결된 골짜기이다. '산골'이란 이름은 지명이기 보다는 '산골짜기'나 '두메산골'을 뜻하는 보통명사에 가깝다.

□ 산본천(山本川)

수리산 여러 골짜기의 물을 받아서 흘러내리는 하천이나, 지금은 모두 복개되어 궁내동의 지도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동적골과 궁내마을의 남쪽을 흘러서 동북류 하다가 문화촌 남쪽을 거쳐 안양천으로 흘러든다. (금정동의 산본천 참조).

□ 솔거(率居)마을

궁내동의 둔전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솔거는 신라 진흥왕 때의 천재적인 화가로서

그가 그린 황룡사 벽화(노승도)에 새들이 앉으려다가 부딪쳐 떨어졌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화기이다. (매화마을 참조).

□ 수리산(修理山)

궁내동의 서쪽을 북에서 남으로 뻗은 산줄기이다. 이 산을 경계로 인양시와 군포시의 경계가 된다. 최고봉인 높이 489.2m의 태음봉(太乙峰)은 광정동에 위치하며, 태음봉의 바로 남쪽 줄기가 궁내동지역에 속한다. 수리산의 '수리'는 독수리의 수리, 높거나 우두머리를 뜻하는 정수리, 태양을 뜻하는 솔(Sol : 로마의 태양신), 솔개(소리개 : 매목 수리과에 속한 새)의 솔 등과 통하며, 수로왕의 '수로', '수로'부인의 '수로'와도 통하는 이름으로 보고 있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修理山) 산림욕장(山林浴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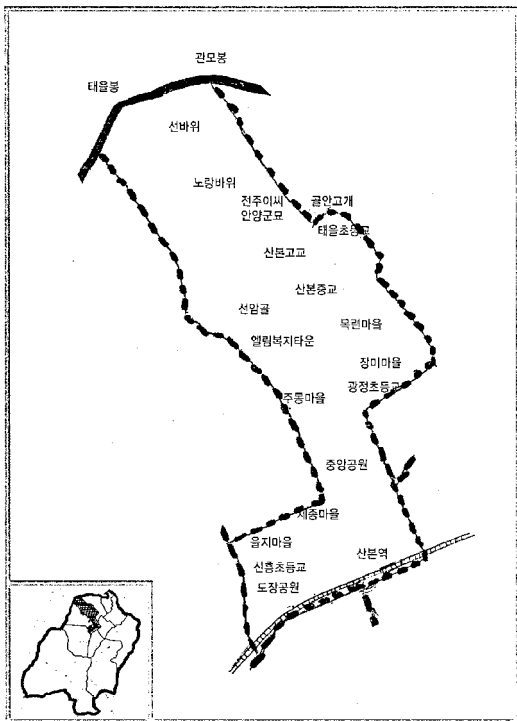
수리산 산림욕장은 수리산 줄기를 따라서 관모봉-태음봉-습기봉에 이르는 산줄기의 군포시 쪽 산 기슭에 위치한다. 습기봉부터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아래서 되돌아 나와야 한다. 궁내동, 수리동, 광정동에 이르기까지 아늑한 수리산의 자연을 즐길 수 있다. 독서의 숲, 만남의 광장 등 각종 주제를 선정한 숲이 있고, 광천약수터, 산딸기약수터 등등 곳곳에 샘이 있다. 수리산은 인양시, 안산시, 군포시 등 3개시가 저마다 관내의 숲을 산림욕장으로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다.

□ 우륵(于勒)마을

궁내동의 산본공업고등학교 동남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우륵은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의 한 사람으로서 신라 진흥왕 때의 음악가이다. 본래 대기야국 시랍인태, 기야금을 치음 만들고 12곡을 지었다고 한다. 진흥왕 때 신라에 투항하여 충주에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이 아파트는 악성 우륵의 이름을 붙였다. (매화마을 참조).

10) 광정동(光亭洞)

(1) 관내도



광정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이 지역은 법정동으로는 산본동이 되는 지역이다. ‘광정(光亭)’이란 빛나는 정자를 뜻하며, 이곳에 자리잡은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의 셋째 아들 안양군(安陽君)의 후손에 의하여 생겨난 이름이라고 한다.

안양군의 4대손 중에 이옥담(李玉潭 : 1579~1657)이라는 분이 선조들의 묘를 지키며 이 산기슭에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좋아하고 풍류를 즐겼는데 이 산기슭에 마땅한 정자가 없어서 좋은 정자를 세우고자 터를 잡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꿈에 정자 터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었으므로 정자를 완성하자 꿈에 빛나던 정자를 생각하고 그 정자를 광정(光亭)이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마을 이름도 광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은 1789년(정조 13)에 만든 『호구총수』에 과천현 남면 7개리의 하나인 산저리(山底里)이며, 산저리는 1871년(고종 8) 산본리(山本里)로 고쳐졌다.

1914년 일제에 의한 전국의 지방행정구역 폐지·통합 이전에 과천군 남면 산본동이 되었고, 1914년의 대 개편 때 과천군·안산군·시흥군의 3개 군을 합하여 시흥군 남면 5개리의 하나인 산본리가 되었다.

그후 1979년 5월 1일 시흥군 남면이 군포읍으로 승격되었고, 1989년 1월 1일 시흥군에서 군포시로 분리·승격되면서 이 지역은 법정동을 산본동으로 하고 행정동사무소는 광정동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광정’이라는 이름의 법정동은 없으며, 동사무소로서의 광정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이다. 관내에는 산본고등학교, 산본중학교, 도장중학교, 태을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광정초등학교가 있다.

(3) 관내의 지명

□ 거북바위와 노랑바위 : 노랑바위 약수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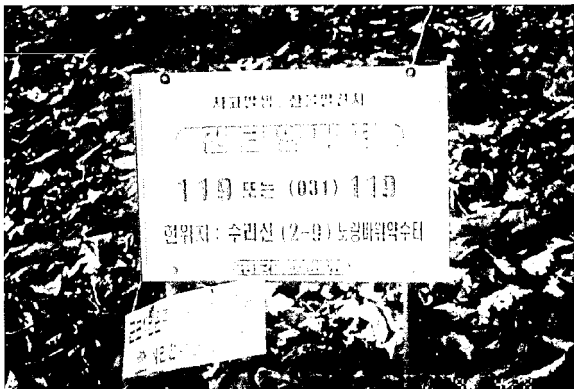
광정동의 수리산 등턱에 있는 바위이다. 전주 이씨 안양군묘(安陽君墓)의 뒤쪽(200m 쯤)에 있다. 옛날 어진 임금이 정사를 잘 다스려서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으나 왕의 나이 40이 넘었음에도 사직을 이어갈 왕자가 없었다. 이에 온 백성들이 명산대천에서 왕자의 탄생을 기원하고, 궁궐에서도 왕자를 점지해 주기를 신령게 빌었다. 마침내 하늘이 감응하였던지 왕비의 몸에 태기가 있어서 기다리던 왕자를 낳게 되었다. 그후 어느 해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해 오자 임금은 왕자와 왕비, 신하들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침몰할 위험을 당하였는데, 이때 큰 거북이 한 마리가 물 속에서 솟아 나와 왕자를 태우고 육지로 올려왔다. 그곳이 안산으로서 거북이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왕자는 수리산 동굴 속에 몸을 숨기게 되었다고 한다.

거북이는 며칠동안 굶어서 허기진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내려갔는데, 왕자는 거북이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줄 오해하였다. 절망한 왕자가 바위를 주먹으로 힘껏 내리치자 이때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큰 바위들이 무너져 내려서 왕자를 덮쳐서, 왕자는 노란 피를 흘리며 죽었다. 음식을 구하러 내려가던 거북이도 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바위에 맞아 죽어 그 자리에서 거북바위가 되었다고 한다.

이때 왕자의 노란 피로 물들었던 바위를 노랑바위라 하였는데, 비바람에 씻겨서 지금은 노란색을 볼 수 없지만 왕자가 주먹으로 내리친 주먹 자국이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이 노랑바위 부근에 우물이 있는데, 옛날 힘센 장수가 우물물을 마시려고 엎드려 두 주먹으로 바위를 짚었을 때 그 두 주먹자국과 옷자락이 접힌 자국이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한다.

노랑바위는 약수터로 꾸며져 있으며, 이곳에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아들을 낳아준다는 전설이 있다.76) 또 이 전설에서 거북이의 화신인 거북바위는 전주 이씨 안양군묘의 신도비가 세워진 바위를 말한다.

거북은 예로부터 수명이 길고 수륙양생의 동물이므로 신성시하여 왔고, 전국 여러 곳의 지명과



노랑바위 안내판

결합하여 많은 설화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노랑바위의 '노랑'은 '놀다'에서 비롯된 바위, 즉 유암(遊岩)의 뜻을 지닌 '놀은바위→노랑바위'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골안고개 : 산실고개 : 곡내현(谷內峴)

광정동과 산본 2동 사이, 광정과 골안마을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산본중학교와 곡관초등학교 사이가 되는데, 옛날의 고개는 찾아볼 수 없고 능안공원 부근만 옛 모습을 남겨놓고 있을 뿐이다. '골'은 산골과 분지, 혹은 골짜기를 뜻하며, 산곡을 '실'로 부르기도 한다. 무실, 가래실, 산실, 어의실 등등 그 사래가 많다. 실(峯)=곡(谷)의 뜻이다.

□ 관모봉(冠帽峰)

광정동과 산본 2동의 경계가 되는 수리산의 한 봉우리이다. 군포시를 감싸고 있는 수리산의 가장 동북쪽 봉우리로서 높이 426.2m이다. 이 산 아래 산본 2동의 골안(곡안)마을이 된다. 관(冠)은 지난 날 머리에 쓰던 쓰개를 총칭하기도 하고, 또 갓을 나타내면서 벼슬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관모는 관과 모자가 겹친 말로서 이 봉우리의 형상이 뾰족하여 관모를 닮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 도장공원(道藏公園)

광정동의 도장중학교 주변,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서쪽에 조성된 도시공원이다. 산본역의 바로 서남쪽이 되며 그전 도장골의 이름을 따왔으나 그 유래는 확실하지 않다. (수리동 도장골 참조).

□ 목련(木蓮)마을

광정동의 산본중학교 바로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목련'을 아파트 단지의 이름으로 정한 경위는 매화마을 참조) 목련은 목련과에 속한 낙엽교목으로서 이른봄에 꽃을 피운다.

□ 산골

광정동의 열림복지타운 남쪽(사거리 부근)에 있었던 골짜기이다. 산골이나 산실, 골안과 같은 이름들은 수리산 산기슭에 붙여진 이름으로서 계곡이나 곡저(谷底), 골짜기에 붙는다. '산골'은 보통명사에 가까우므로 지명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전에 이곳에서 붙었던 이름이므로 여기에 포함하였다.

□ 산본역(山本驛)

광정동과 계곡동 경계에 있는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지상역이다. 1988년 10월 안산선이 개통되었

76) 경기도·명지대학교, 『군포산본의 역사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0년 3, 30~31쪽.

고, 그후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어 1992년 5월 1일 산본역이 개통되었다. ‘산본’이라는 이름은 수리산의 산밑을 뜻한다. (산본 1동의 등명유래 참조).

□ 선바위

광정동의 수리산 태을봉과 관도봉 사이에 있는 바위이다. 바위가 서 있으므로 선바위라 한다. 선바위는 지역에 따라서 일(立), 서(瑞), 선(仙), 선(禪) 등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대개 “서 있는 바위”를 나타내고 있다.

□ 선암골(禪庵谷)77)

광정동의 그전 광정마을 서남쪽 골짜기이다. 옅립복지타운의 북동쪽으로 접한 골짜기로서 지금의 천주교 산본성당 부근이 된다. 노랑바위의 서쪽에 있는 선바위를 인하여 이 골짜기를 선암골이라 부른 것으로 보인다.

□ 세종(世宗)마을

광정동의 중앙공원 남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세종 일군은 조선왕조 4대 임금으로서 한글을 만든 성군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세종’을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정한 경위는 대화마을 참조).

□ 수리산(修理山)

군포시의 북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로서 군포시를 감싸안고 있는 산이다. 그중 최고봉인 높이 489.2m의 태을봉(太乙峰)이 광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수리산의 ‘수리’는 독수리의 ‘수리’, 높다 는 뜻의 경수리를 뜻하는 수리, 우두머리를 뜻하는 수리 등을 포함한 말이다. 이 산 이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修理山) 산신당(山神堂)

광정동의 수리산에 있는 당점이다. 태을봉 아래 있으며 태을초등학교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 수리산에 5분 쯤 올라가야 한다. 할아버지당은 ‘수리산 산신제당’이라고 써 붙인 재각형태로 되어있고, 그 옆에 당나무와 바위가 있다. 음력 1월과 7월 1일에 산신제를 올리는데 축문이나 발원문은 ‘태을당(太乙堂) 신령님’으로 되어있다.⁷⁸⁾

77) 유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78) 군포시, 『군포시의 마을신앙』, 2003, 28~35쪽.



수리산 산신단(소지 장면)

□ 엘림(Elim) 복지타운

광정동에 있는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다. 1986년에 법인인가 되어 경로원, 요양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엘림'이란 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 두 번 제로 진을 쳤던 곳인데, 열 두 개의 샘과 70주의 대나무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다. 오늘날 이것을 오아시스로 보고있으며, 이 복지시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 오성약수터

광정동의 수리산 기슭에 있는 약수터이다. 산본동 산 28번지에 있으며 1996년 6월에 약수터로 개발된 샘이다. 샘 이름의 유래는 자세히 알 수 없다.

□ 을지(乙支)마을

광정동의 세종마을 서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마을 이름은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 장군의 성씨를 붙인 것이다. ('을지'를 택한 배경은 매화마을 참조).

□ 장미마을

광정동의 광정초등학교 뒤(북)에 있는 아파트 단지이다. 장미는 장미과에 속한 낙엽 관목이다. 꽃의 종류가 다양하며 덩굴로 뻗는 품종, 키 작은 품종,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4개월 피는 품종 등이 있다. (‘장미’를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택한 내력은 대화마을 참조).

□ 전주 이씨(全州李氏) 안양군묘(安陽君墓)

광정동의 산본고등학교 뒤 수리산 기슭 초입에 있는 묘이다. 산본동 산 27번지가 되는데, 경기도 기념물 제122호로 지정된 곳이다. 안양군은 조선 성종의 제3남이며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출케 했다는 이유로 사사되었고 중종 때 복직되었다. 묘역은 300여 평이며, 1901년 경기도 양주에서 이장하였다.

□ 주몽(朱蒙)마을⁷⁹⁾

광정동의 중앙공원 서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이다.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東明王)을 말하며, (‘주몽’을 아파트단지 이름으로 택한 배경은 대화마을 참조) 그런데 ‘동명(東明)’은 우리말의 ‘새벽’(‘새벽’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비롯되었다)을 뜻하는 이름으로서 밝고 새로운 세상을 의미한다.

□ 중앙공원(中央公園)

광정동의 세종마을 북쪽에 조성된 도시공원이다. 그 서쪽에 군포시립도서관과 광정동사무소가 있다. 군포산본 신도시의 중심부가 되므로 중앙공원이라 하였다.

□ 태을봉(太乙峰)

광정동의 뒤 수리산에 있는 한 봉우리이다. 높이 489.2m로서 수리산 줄기의 최고봉이 된다. 옛 지지도 지도에는 안산의 수리산, 과천의 태을산이 따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수리산 능선을 경계로 두 고을의 경계가 나누어졌거나 수리산 취암봉(수암봉)이 옛 안산고을의 전산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을’이란 도가에서 ‘태을성신(太乙星神)’을 말하는데, 태을성은 병란이나 재앙,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별이다.

또 풍수지리에서는 큰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펼치고 남아 내리는 모습을 매우 귀한 지상(地相)으로 그런 형상을 천을봉(天乙峰) 또는 태을봉(太乙峰)⁸⁰⁾ 부른다고 한다. 태을은 또 태일(太一)로서 천지 창조와 혼돈의 원기를 뜻한다고 한다. (군포의 산 참조).

79) 고태영씨 (남, 군포시 광정동 사무소 390-06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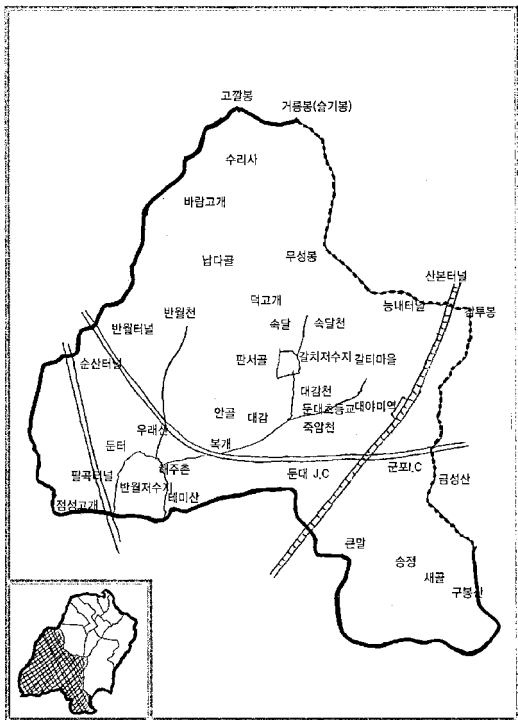
80) 서광석, 「대 길지에 마련된 두 국립묘지」, 『건설교통저널』, 2003년 12, 100-101쪽.



태을봉 정상

11) 대야동(大夜洞)

(1) 관내도



대야동 관내도

(2) 동명의 유래와 연혁

대야동은 대야미동(大夜味洞), 속달동(速達洞), 둔대동(屯垔洞), 도마교동(波馬橋洞)의 4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야'라는 이름은 이 4개 동 중에서 대야미동의 '미'자를 뺀 것이다. 1994년 12월 26일 화성군 반월면(半月面)에 속한 이 지역을 군포시로 편입하면서 4개동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대야미동명을 줄여서 행정동명으로 정한 것이다.⁸¹⁾

본래의 '대야미(大夜味)'라는 이름은 지금의 대역미 역사(驛舍) 부근 행강들에 1천여 평(혹은 3천여 평) 되는 몇 개의 큰 논배미가 있어서 이 일대를 '큰 배미' 또는 '한 배미'라 불렀다. 전답을 헤아리는 단위로 두락(斗落 : 마지기), 야미(夜味 : 배미)가 있고, 밭을 세는 단위로 일경(日耕 : 하루갈이)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여기서 '배미'를 나타내는 '야미(夜味)'는 두둑에 의하여 구분되는 논 한 자리로서 밤(바미)=야(夜)와 '배미'의 취음 '미(味)'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대야미'라는 이름은 우리 옛 밭의 자취와 그 표기법을 전해주는 국어학 연구 자료이자 재미있는 이름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광주군 북방면(北方面) 대야미리(大夜味里), 둔대리(屯垔里, 鎭垔里), 속달리(速達里), 도마교리(波馬橋里)였다가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일제에 의한 지방행정구역 폐지·분합 때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되었으며, 1994년 12월 26일 지방행정구역 조정으로 군포시에 편입되었다.

이 때 기존의 둔대리, 속달리, 도마교리, 대야미리를 각각 법정동인 둔대동, 속달동, 도마교동, 대야미동으로 하였고 1994년 12월 29일 시조례 제 364호로 이를 관할하는 행정동을 대야동이라 하였다. 대야동은 군포시 11개 행정동의 하나로서 관내에 대야미동, 속달동, 둔대동, 도마교동의 4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관내에는 둔대초등학교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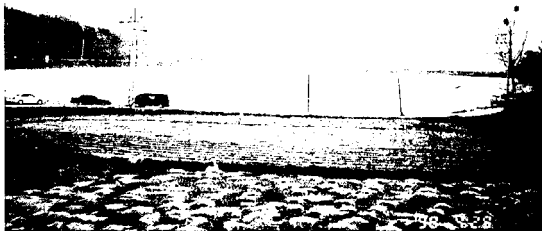
(3) 관내의 지명

□ 갈치저수지(貯水池)

대야동의 대야마을 북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1984년 준공된 저수지로서 이 저수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대야천이며, 저수지가 생긴 곳은 본래 정장들이라고 불렀던 곳이다.

이 저수지가 속달마을 앞에 있음에도 '갈치저수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당초 수리시설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곳이 갈치마을 부근이었으나 뒤에 위치를 이곳으로 변경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기왕에

81) 유지호, 『군포시 지명유래집』, 군포시, 1999, 91쪽.



갈치저수지

정해진 저수지 이름을 바꿀 경우 행정절차가 번잡해지므로, 당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갈치저수지’가 되었다고 한다.⁸²⁾

□ 갈티 : 갈치 : 노치(蘆峙) : 노산(蘆山)

대야동의 갈티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 대야미역의 바로 서북쪽 마을로 행강들의 동쪽에 위치한다. 아파트와 빌라 등의 신축 공사가 한창인 곳이며, 대야동사무소가 있다. ‘갈티’는 본래 고개이름이었으나 마을 이름으로 된 경우이다. ‘갈’은 고개나 하천이 나누어지는(갈라진) 곳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한자로는 갈(葛 : 칩), 노(蘆 : 갈대), 갈(渴) 등으로 표기되는데, 가락>곶>갈대를 나타내는 이름으로서 분기(分岐)를 뜻하는 이름이다.

갈치=갈티가 혼용되고 있으며, 한자로는 노산(蘆山)이라 하고, 고지도에는 노치(蘆峙)로 표기된 곳도 있다.⁸³⁾

□ 갈티고개

대야동의 대야미리에서 부곡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갈’은 산이나 고개, 하천 등이 갈라지는

82) 정준수 (동래정씨 후손, 대야동 속달마을)씨의 증언.

83) 김정호, 『동여도』, 1857.

분기점에 붙는 이름이며, 이것을 한문으로 쓸 때는 노(麓, 예 : 노랑), 갈(葛, 예 : 갈현) 등으로 썼다. 노치(蘆峙), 노산(蘆山)이라고도 하고, 느진골고개라고도 하며, 국도 47호선이 지나고 있다.

□ 갈티교(橋)

대야동의 능내터널 입구에 있는 다리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의 위로 지나는 시도(市道)상에 설치된 교량이다. 산본터널의 바로 앞 (남쪽) 철길 위에 있다.

□ 갈티들

대야동의 갈치저수지 앞에 있는 들이다. 대감천이 흘러내리는 그 일대의 들판으로서 둔대초등학교 서쪽 들이 된다.

□ 감루봉 : 삼파산(三波山)

대야동과 군포 2동, 오금동 경계에 있는 높이 185.2m의 산이다. 수리산 줄기가 남동류하여 뿔어 내리다가 밤바위산과 인접한 곳에 솟아 오른 산이다. 이 산 정상에서 세 곳으로 물이 흐르는데, 오금동으로 흐르는 물은 산본천, 군포 2동으로 흐르는 물은 호란내, 대야동으로 흐르는 물은 반원천에 합류하므로 삼파산(三波山)이라 부른다고 한다. 감루란 옛날 벼슬아치들이 머리에 쓰던 탕전처럼 생긴 모자로서 ‘감루’는 벼슬을 상징하는데 산 모양이 감루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옛날 현풍 광씨의 딸이 주씨 가문으로 출가하였는데, 친정아버지가 위독하다 하여 친정집으로 돌아왔다. 이때 부친이 유언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죽으면 감루봉의 흰 나무가 세 그루 있는 북서쪽 봉우리에 나뭇 문으라”고 하였다. 그런데 위독하던 친정아버지는 병세가 호전되었고, 집에 계신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 이에 친정아버지가 말한 명당자리에 친정식구들 모르게 시아버님을 모셨다. 그 후 이 산 꼭대기에서 용 두 마리가 밤마다 싸우므로 광씨 집안에서는 사촌 집안에서 묘자리를 물래 차지한 것을 알고 광씨의 아들이 산에 올라가 용 한 마리를 베어 죽였다고 한다. 뒤에 주씨 가문은 부유하게 살았으나 오래 가지 못했고, 광씨는 빈창했다고 한다.⁸⁴⁾

□ 감신골

대야동 갈치저수지의 바로 북쪽 골짜기이며, 덕고개 마을 남쪽이 된다. 지형도에는 ‘길실골’로 되어 있으나 문헌자료상 감신골이 옳은 것 같다.⁸⁵⁾

84) 『서홍군지』하, 921쪽. 군포의 산, 참조.

85) 국립지리원, 『안양 067』(1 : 5000), 2002년 발행.

□ 개매골

대야동 둔터마을 북쪽 골짜기이다. 켓개매골의 서쪽이 되며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개매'는 뚝가, 즉 반원친의 개울가 마을이나 개울가의 산(되)을 뜻하는 이름으로 볼 수 있다.

□ 고깔봉

대야동과 안산시, 안양시 경계가 되는 수리산 줄기 연봉(連峰)의 하나이다. 높이 451.5m이다. 산 형상이 고깔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고깔은 세모지게 만든 깃(巾)의 일종으로서 종이 쓰는 것이다. 그 아래 수리사가 있으며 고깔봉이라는 이름은 불교지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군포의 산 참조).

□ 구룡골

대야동의 송정마을 바로 서쪽 골짜기이다. 명칭의 유래는 알 수 없으나 구(九)는 신성한 숫자(3이 겹치니)이고, 용도 역시 신성시하여 온 상상의 동물이므로 '구룡'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 구봉산(九峰山)

대야동의 도마교동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45.5m의 산이다. 의왕시 초평동의 옷새우대 사이에 있는 산으로 봉우리란 9개로 보기는 어려운데, 구봉산의 내력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는다. '굽은산'이나 '구분산'(옛날 경기도 광주 고을과 수원 의 경계가 되어 구분하는)이 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⁸⁶⁾ (군포의 산 참조).

□ 군포 인터체인지

대야동의 뒷방이 동남쪽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이다. 국도 47호선을 통하여 군포시와 연결된다.

□ 굽다리

대야동의 대야미역사(驛舍)를 통하여 갈티마을, 둔대초등학교, 뒷방이 등을 다닐 수 있는 봉로로서 위로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간다.

86) 대야동은 조선시대 광주부(廣州府)에 속한 지역임. 지방(고을)의 반역을 막고 견제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가 길게 떨어져 나와서 개 이빨처럼 서로 엇물리게 구역은 정하는 계도령 전아상입계도(犬牙相入制度)라 하여 조선 태종 때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지역도 그런 계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승정에서 본 구룡산

□ 김만기(金萬基) 선생 묘역

대야동의 갈티마을 뒤(북)에 있는 묘역이다. 김만기(1633~1687) 선생은 숙종의 정인이자 보사공신으로 책록된 인물이며, 묘소에는 숙종 어필의 묘표가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이고, 『서석집(瑞石集)』 18권이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131호이다.

□ 남다골 : 납덕곡(納德谷)

대야동의 바람고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수리산에서 흘러내리는 반월천 상류의 마을로서 속달동의 최북단 마을이다. 수리사가 있는 절골의 아래쪽이 되며 '납'은 넓다는 뜻의 '넓'의 방언으로 보인다. 수리산 계곡에 비교적 넓은 들이 있어서 '넓덕골'이라 하던 것이 납덕>남다골로 된 것으로 보인다.

□ 납작골

대야동의 남다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이다. 역시 '납'은 넓다는 뜻의 '넓'의 방언이며 납덕>납직>납작골로 된 것이다.



남다골

□ 금성산(錦城山)

대야동과 군포 2동(부곡동) 사이에 있는 높이 122.4m의 산이다.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 진입로의 바로 동쪽 산이다. 산 이름의 내력은 확실하지 않다. (군포의 산 참조).

□ 느진골 고개 : 만곡현(晩谷峴)

대야동 감티마을과 부곡동 사이의 국도 47호선이 지나는 해발 80m의 고개이다. 감티고개라고도 하며 ‘느진’은 느슨한, 느지러진, 느직한 고개를 뜻하며, 늘어졌다는 뜻의 어(於), 연(連), 만(晩)의 뜻을 지니므로 만곡현이라 한다.

□ 능골

대야동의 감치저수지 동쪽 골짜기이다. 능은 원래 임금이나 왕후의 묘소를 말하지만 지방에서는 규모가 큰 무덤,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무덤을 ‘능’이라 하고, 그 일대를 능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 골짜기에도 묘가 밀집하여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늘어진 골, 길게 뻗어나간 산자락에 의하여 늘어진 골을 능>골>능골로 된 경우도 있다.

□ 능내터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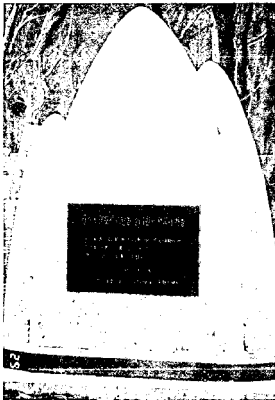
대야동과 수리동 사이의 시도를 통하여 군포환경관리소가 있는 성지골, 초막골로 연결되는 터널이다. '능내'라는 이름에 대하여는 어느 쪽의 능인을 말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 다량구리골

대야동의 도마교동 편 골(남)에 있는 골짜기이다. 의왕시 초평동(草坪洞)과 이어지는 낮은 구릉지대이다. '다랑이(다랭이)'는 비탈진 곳에 있는 층 층으로 된 작은 논배미를 말하며, 다랭이 논으로 인하여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 당숲

대야동의 덕고개 마을 서쪽에 있는 노목지대이다. 그전에 마을의 수호신에게 풍년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당집이 있었으므로 당숲이라 한다. 수령 몇 백년이 넘는 굴참나무, 서어나무 등이 들어서 있으며, '전국 아름다운 숲대회'에서 '보전해야 할 숲'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를 기념하여 표지석을 세워 놓았다.



당숲 표지석

□ 대암 : 대암(大岩) : 죽암(竹岩)

대야동의 북개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감천의 서쪽 마을로서 큰 바위가 있어서 대암→대감이 되었다는 설과 옛날 대감들의 행차가 잦아서 대감이라 하였다는 설이 있다.

대감은 조선시대 정이품(예 : 판서) 이상의 비승아치를 높여서 부르는 이름이며, 감치저수지 서쪽 관서골과의 관련은 확인할 수 없다. 경기도 『지명유래집』에는 옛날 훌륭한 죽림(竹林 : 대숲)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라 하고 있으나, 대=죽(竹)의 훈차(訓借) 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⁷⁾

□ 대감천⁸⁸⁾

대야동의 감치저수지 남쪽을 흘러서 대감 마을 앞에서 죽암천과 합류하고 만월저수지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대감천

87)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37쪽. 이 지역은 대나무 북방한계 자생지의 일부이 될

88)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2001년 9월 발행)에 '대감천'으로 되어 있음.

□ 대야미(大夜味) : 대야미동(大夜味洞)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자 논배미의 이름이다. 논을 헤아리는 단위로 두락(斗落 : 마지기), 야미(夜味 : 배미)가 있고, 밭을 세는 단위로 일경(日耕 : 하루갈이)이라는 용어가 있었다. 배미는 논 한 자리를 뜻하는 야미로 훈차기사(訓借記寫)한 것이며⁸⁹⁾, 우리말의 한 배미큰 배미를 뜻한다.

이곳은 행강골에서 흘러든 물로 큰 논배미가 형성되었는데, 지금은 안산선 대야미역(수도권 전철)과 아파트 등이 들어섰다.

대야미동은 본래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에 속한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는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된 곳이다.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조정으로 군포시의 법정동으로 편입되었으며 행정동명인 대야동은 대야미를 줄인 이름이다.

□ 대야미역(大夜味驛)

대야동의 그전 한 배미(논) 일대에 들어선 수도권 전철 안산선 역이다. 역 이름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름을 검토하였으나 주변을 대표할 만한 이름으로 '대야미'를 택하여 역명으로 하였다고 한다.

□ 대야미저수지(大夜味貯水池)

대야동의 금성산 남쪽 수렁배미골에 들어섰던 저수지이다. 1958년에 설치되었으며, 송정마을의 북쪽이 된다. 이 저수지는 근래에 고속도로 공사와 도로 확장 등에 의하여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 대야미천(大夜味川)

대야동의 갈터 동쪽을 흘러내리는 소하천이다. 수리산 줄기 감투봉 일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다.⁹⁰⁾

□ 대야지하차도(大夜地下車道)

대야동과 군포 2동 사이에 새로 설치한 자동차전용의 지하차도이다. 국도 47호선에 설치되어 있다.

□ 덕고개 : 덕현(德峴)

대야동의 남다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속달과 남다골 마을의 중간이 되며 덕+고개로 이루어진 이름이다. '덕'에 대하여 홍양호의 『복세기략』에는 '고부알덕(高阜白德)'이라 하여 흙이 쌓인 땅,

89) 이명택, 『한국의 지명』, 태평양, 1986, 291쪽.

90)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 2001년 9월 발행, 대야미천.



덕고개

두드러진 언덕을 말하였다. 덕은 ‘마루덕’, ‘안전덕’, ‘문덕’의 ‘덕’과 통하는 말이다.

□ 도마교(渡馬橋) : 도마다리 : 도마교등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도마’는 식칼질을 할 때 밑에 받치는 두꺼운 나무토막이나 널 조각을 말한다. 한문표기의 ‘말을 건너게’하였다는 뜻의 ‘도마(渡馬)’는 우리말 ‘도마’의 음차(音借)표기로 보인다.

일설에는 마을 남쪽으로 삼남과 통하는 길에 널다리가 있었는데, 남양 원님이 현양 가는 길에 이 다리를 말을 타고 건넜으므로 도마교(渡馬橋)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⁹¹⁾

이곳은 그전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에 속한 지역으로 도마로 놓은 다리가 있어서 도마다리, 도마교라 하였으며,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되었으며, 1994년 12월 26일 군포시에 편입되어 법정동이 되었으며, 대야동에 딸리게 되었다.

91)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7쪽.

□ 도봉골

대야동(도마교)의 송정과 큰말 사이 들이다. 큰말에서 차레로(동쪽으로) 보수간길, 도봉골, 송정마을이 된다.

□ 동굴매골

대야동(도마교)의 큰 말(대촌) 바로 남쪽 골짜기이다. 이영진들의 바로 위쪽이 되며, 그 내력은 자세히 알 수 없다.

□ 둔터 : 둔대(屯臺) : 둔대동(屯臺洞)

대야동(둔대)의 바로 위(북)에 있는 마을이자,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옛날 이곳 마을을 둘러싼 산 봉우리의 넓은 골짜기에 군대가 주둔하였으므로 둔터, 둔대(屯臺)라 불렀다고 한다.⁹²⁾ 그전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에 속한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지방관제 개정시 안산군에 편입되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폐합 때 수원군 반월면(半月面)에 편입되었고, 1994년 12월 26일 군포시 대야동에 편입되어 법정동으로 남아있다.



둔터

92) 김광영 (남, 77세 : 대야동 둔터마을)의 2인 증인.

□ 둔대교(屯堡橋)

대야동(둔대)의 영동고속도로 밑 시도상(市道上)의 반월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그 위로는 영동고속도로 반월교가 지나간다.

□ 둔대 J. C

대야동의 대감마을 앞에 있는 영동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시설이다.

□ 뫼땡이 : 금리(錦里) : 북방리(北方里)

대야동(대야미) 대야미역의 바로 동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에 뫼땡을 뜻하였으므로 뫼=북(北), 땡=방(方)으로서 북방리가 된다.⁹³⁾ 이 지역이 광주군 북방면에 속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금리'는 마을이 금성산(錦城山) 아래 있어서 부른 이름이다.⁹⁴⁾

□ 무성봉

대야동과 수리동 사이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258m의 봉우리이다. 군포시 환경관리소의 서쪽에 있는 봉우리이다. (군포의 산 참조)

□ 바람개비골

대야동(속달) 남다골의 서북쪽 골짜기이다. 바람고개를 넘어 안산시 장상동으로 통한다. 바람이 세므로 '바람개비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 바람고개 : 풍령(風嶺)

대야동(속달) 남다골에서 서북쪽의 안산시 장상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높이 193.8m이며, 이 고개에 부는 바람이 매우 세므로 바람고개라 부른다고 한다.⁹⁵⁾ 『계림유사』에 '풍왈페담(風曰'半渡)''이라 하였고, '파론(把論)'이라고도 썼는데, 오늘날의 '바람'=풍(風)과 일치한다.

□ 반월교(半月橋)

대야동(둔대) 둔대 마을 동쪽, 반월저수지 상류의 영동고속도로에 놓인 다리이다. 그 밑으로 반월천이 흘러서 반월저수지로 들어간다.

93) 김진규, 『혼몽자회 어휘연구』, 1993, 형설출판사, 330쪽.

94) 이재일 (역, 66세 : 뫼땡이 신안야퍼드) 증언.

95) 백여기 (남, 속달동 남다골 마을 이장) 증언.



바람고개

□ 반월육교(半月陸橋)

대야동(대야미) 뒷방이 마을 앞 영동고속도로 군포인터체인지의 국도 47호 위를 지나는 육교이다.

□ 반월저수지(半月貯水池)

대야동(둔대) 남쪽에 있는 저수지이다. 우래산(안산)의 남쪽, 테미산의 서북쪽에 접해 있으며, 1957년에 준공되었다. 이 저수지의 제방 남쪽은 안산시 팔곡 1동(八谷一洞)이 된다. ‘반월’이라는 이름은 1914년 군면 통폐합 때 안산군 월곡면(月谷面), 북방면(北方面), 성곶면(聲串面)을 통합하고, 면사무소를 건건리(乾乾里)에 두어 반월장터로 알려졌다. ‘반월’이라는 이름은 이때에 생겼으며, 수원군(화성) 반월면이 되었다가 1976년 반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어 반월공단이 조성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반월면은 대야미, 속단, 둔대, 도마교의 4개 리를 군포시에, 팔곡일(八谷一), 건건(乾乾), 사사(沙沙)의 3개 리는 안산시에, 당수(棠樹), 임북(筵北)의 2개 리는 수원에 넘겨주고, 면 이름도 사라졌다. ‘반월’은 풍수신앙에서 보름달보다 더 길한 것으로 꼽았는데, 반달은 점점 커지고 온달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⁹⁶⁾ 반월저수지는 그전 반월면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96) 이명규, 『서울경기지역 지명 및 방언』, 한국문화사, 2000, 25쪽.

□ 반월천(半月川)

대야동의 수리산 고갈봉 아래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남다골을 지나 둔터 옆에서 반월저수지로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이다.



반월천과 하천 표지관

□ 반월터널

대야동의 둔대(둔터) 서북쪽에 있는 터널로서 영동고속도로가 군포-반월 경계의 수리산 줄기를 지나는 터널이다. 반월터널 부근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보수간골

대야동(도마교)의 큰 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그 동쪽으로는 도봉골, 송정 마을이 되는데, 그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 복개 : 복포(伏浦) : 복해(伏蟹)

대야동의 반월저수지 북동쪽, 안골의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 지형이 마치 바다의 게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복해(伏蟹)라 하였다고도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풍수설화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 부처골

대야동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의 동북쪽, 반월천의 서쪽 골짜기이다. 부처골은 절터나 탑, 불상 등이 있는 곳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유물·유적에 관하여는 전해지는 자료가 없다.

□ 새골 : 조곡(鳥谷)

대야동(도마교)의 송정 동남쪽, 구봉산 서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우리말 '새'를 한문으로 쓸 때는 조(鳥), 갠(跣), 동(東), 신(新), 철(鐵), 초(草)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곳은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

□ 새능골

대야동(대야마)의 뒷머리 서남쪽 골짜기이다. 수도권 진취 안산선이 지나가며 안산시와 경계 안쪽이 된다.

□ 샘골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터널의 북쪽이 되며, 지팡바위골 서쪽이 된다. 대개 샘이 있는 골짜기에 샘골이라는 이름이 붙는다.

□ 서낭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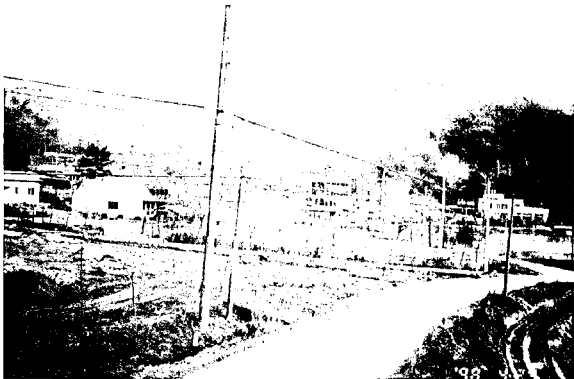
대야동(속담) 난다골 동쪽 골짜기이다. 성황당이나 산재를 올리는 곳을 서낭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확인할 수 없다.

□ 속달(速達) : 속달동(速達洞)

대야동에 속한 4개 법정동의 하나이다. 속달(速達)은 빠르게 보내는 우편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수리산의 골짜기 안(內 : 속)을 뜻하는 이름이다. 속은 내포(內包)로서 리(裏), 알맹이로서의 정(精)을 나타내며, 표(表 : 겉)에 대응하는 말이 된다.

한편 '달'은 땅이나 산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사달=이침의 땅으로 '조선'과 같은 뜻이 되며 달=땅= 땅이 모두 지(地)를 나타낸다. 비탈(빗달 : 비스듬한 땅), 양탄, 응탄의 '달'과 겹은 뜻이며, 한문의 '속달(速達)'은 음차에 불과하다. 하나=일(一)=하늘(天), 둘=이(二)=달(地), 셋=삼(三)=인(人 : 씨앗)으로 풀이하고, 천지인(天地人) 삼재에서 둘(二)과 달(地)을 같은 말의 뿌리로 보기도 한다.⁹⁷⁾

97)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7쪽.



속달마을

그전 광주군 북방면(北方面)의 지역으로 1895년(고종 32) 안산군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수원군(淮善) 반월면 속달리가 되었다. 1994년 12월 26일 행정구역 개편 때 군포시에 편입되어 대야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 속달천(速達川)

대야동의 수리산 줄기인 무성봉(258m) 남쪽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는 하천이다. 속달마을을 지나 갈치저수지로 흘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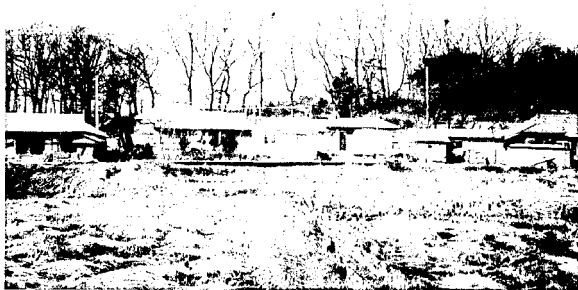
□ 송정(松亭)

대야동(도마교)의 새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대개 옛날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어서 쉬어가기 좋은 곳에 '송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으며, 전국적으로 매우 많다.

□ 수렁배미골

대야동의 금성산 남쪽 대야미 저수지가 있었던 곳이다. 수렁배미는 논배미가 물이 많아서 수렁처럼

98) 박갑천, 『세계의 지명』, 정음사, 1995, 58쪽.



승정 마을

되었기 때문에 보인다.

□ 수리골

대야동(운대)의 북계 서쪽 골짜기이다. 해주촌의 동쪽이 되며, 수리산의 한 줄기가 반원저수지 바로 위에서 멈추는 곳이다.

□ 수리사(修理寺)

대야동의 수리산 슬기봉과 고깔봉의 남사면에 위치한 경기도 지정 전통사찰이다. 신라 진흥왕 때 처음 세웠다고 하며, 6·25사변 때 소실된 것을 1955년 중건한 조계종 사찰이다. 이 절로 인하여 산 이름도 수리산이 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대개 산 이름이 먼저 붙여지고 절 이름은 나중에 붙이게 된다. (군포의 산 참조)

□ 수리산(修理山)

수리산은 군포시의 북쪽과 서쪽을 감싸 안으면서 수호하는 형태의 산이다. 최고봉인 태을봉(太乙峰 = 489m)을 비롯한 연봉(連峰) 중에서 슬기봉, 고깔봉이 대야동 지역에 속한다. (군포의 산 참조)

□ 속고개 : 숲고개 : 꼭고개

대야동과 수리동 경계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고개이다. 이 고개는 수리산 거룡봉(巨龍峰, 일명 슬기봉) 줄기가 동남류 하여 무성봉으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고개이다. 속고개의 내력은 자세히 전해지는 문헌이나 구전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전국적으로 같은 이름이 매우 많은데 대개 옛날 숲을 구웠던 곳, 숲이 무성하였던 곳, 지형이 쭉 뻗어나왔거나 들어간 곳 등에 이런 이름이 붙는 경우가 많다.

□ 순산터널

대야동(둔대)의 반월저수지 서북쪽, 안산시와 경계가 되는 수리산 줄기를 관통하는 터널로서 서해안 고속도로상에 있다. 상행선 684m, 하행선 627m이며, 1996년도에 개통되었다. ‘순산’이라는 이름은 지질공학에서 사용하는 ‘순산모델링기법’의 용어를 터널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공법은 지형특성이나 지층에 대한 응용지질학적 분석에 따라 터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개업이나 입막을 축하할 때, 혹은 터널 교량 지하도 등의 개통식 때 “순산(順産)을 축하한다”고 말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축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순산(順産)’과 터널 개통은 서로 통하는 것이다. 또 사람의 출생을 비유하여 “어둠의 긴 터널을 빠져 나와 이 세상에 처음 빛을 보는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인간의 탄생-터널-순산(順産)과 터널굴착공사-개통-순산모델링기법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이름이 되고 있다.⁹⁹⁾

□ 슬기봉 : 거룡봉(巨龍峰)

대야동의 수리산 줄기에 있는 높이 469.3m의 봉우리로서 수리동과 경계가 되는 곳이다.¹⁰⁰⁾ 이 봉우리를 종전의 지형도(1 : 5,000)에 의하여 474.8m로 기록한 경우가 있으나 새로 발간된 지도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슬기봉으로 부르게 된 내력은 확실하지 않으나 슬기는 사리문 잔 분분하는 지혜를 뜻하며 근래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인다. 또 거룡봉이라는 이름은 풍수지리에서 산 줄기를 ‘용’이라고 하므로 큰 산 줄기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연원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군포의 산 참조)

□ 안골 : 내곡(內谷)

대야동(둔대)의 수리골 북쪽 골짜기를 안골이라 하며, 그 남쪽 북개와 대감마을 사이의 마을도

99) 정한섭 (남, 45세,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증언.

100) 군포시, 『군포시 행정지도』, 2001년 9월 발행, 슬기봉.

안골이라 한다. 안(內)과 밖(外) 표리를 이루게 되는데, 대개 골짜기의 안쪽, 골이 깊은 곳, 깊은한 마을 등을 안골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안골천

대야동(둔대)의 안골마을 서쪽, 복개마을 뒤에서 흘러내리는 소하천이다. 남류하여 반월저수지의 동쪽으로 흘러든다.

□ 여덩미골

대야동(도마교)의 송정 마을 바로 남쪽 골짜기이다. 이영진들의 동북쪽에 인접한 골짜기이나 그 유래는 알 수 없다. 인근의 안산시 팔곡동이 '여덩미'에서 비롯된 이름인데, 그 관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 우래산 : 안산 : 우뢰산(兩雷山)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 동북쪽에 있는 높이 268m의 산이다. 천지개벽 때 이 산이 반월저수지 동남쪽에 있는 테미산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는데, 테미산이 먼저 앉았으므로 울면서 이곳에 앉아서 우래산이라 부른다고 한다.¹⁰¹⁾ 이 산을 둔터에서는 안산이라 하고, 속담에서는 우래산이라 부른다고 한다.¹⁰²⁾ 경기도 발행 「지명유래집」(428쪽)에는 옛날 고구려가 남산평(안산시 팔곡동)에 도움을 청하려 하였는데 테미산이 먼저 자리를 잡아서 이 산이 울면서 밀려와 앉았으므로 도움지로 부적합해져서 취소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산이 9개 봉우리로 되어 있고, 그 중 3개소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참고로 군포 1등에도 우래산(雨來山)이 있다. (군포의 산 참조).

□ 유곡(柳谷)

대야동(도마교)에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그전에 버드나무가 많아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라고 한다.¹⁰³⁾ 참고로 '유(柳)'는 수양버들이고, '양(楊)'은 메버들 또는 갯버들을 뜻하는데, '버들'이 들어가는 지명은 매우 많다.

□ 응천약수터

대야동의 산 1-39번지에 있는 약수터로서 1996년도에 약수터로 개발된 곳이다.

101)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하, 1986, 486쪽.

102) 김광영 (남, 77세 : 대야동 둔터마을)의 2인.

103)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7쪽.



우래산

□ 이영진들

대야동(도마교)의 큰 말 남쪽 한국전력 사택을 포함한 그 일대의 들이다. 동골매골, 여딩미골, 보수간골 등의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이 들로 남류한다고 한다. 이영은 짚이나 풀 따위를 엮어서 지붕이나 담을 덮는 것을 말하는데, 이 들판을 '이영진들'이라고 부르는 내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 작은 봉수골

대야동(숙담)의 갈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관서관을 중심으로 북쪽은 큰 봉수골, 아래는 작은 봉수골이라 한다. 옛날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대개 '봉우계' 또는 '봉우터'로 불리었는데, 이곳은 '봉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다.

□ 잿개매골

대야동(숙담)의 남다골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반월천의 동쪽 일대를 잿개매골이라 한다. 서쪽 골짜기인 개매골과 관련된 이름으로서 '개매'는 물가의 산(반월천)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둔터마을의 뒤가 되며 작은 개매골>작개매골>갯(잿)개매골로 부르게 된 것 같다.

□ 절골

대야동(속단)의 남다골 북쪽 골짜기이다. 바람개비골의 북쪽의 골짜기로서 그전에 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시기와 절의 이름은 알 수 없다.

□ 점성(占星, 첨성 : 瞻星)고개

대야동(둔대)의 둔터마을에서 서남쪽의 안산시 팔곡동 일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팔곡터널 남쪽으로 넘어가는데, 안산시 팔곡동 점성마을과 안산중앙병원 부근으로 통하던 고개이다.

점성은 원래 첨성리(瞻星里)로서 조선후기의 대학자이자 실학사상가였던 성호(星湖) 이익(李瀾 : 1681-1763)이 살았던 곳이다. 그는 유흥원의 실학사상을 수용하여 계승하고, 천문·지리·의학 등에 두루 능통하였으며, 이곳에서 『성호사설』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성호(星湖)’라는 이름도 이곳 첨성리에서 비롯되었는데 뒤에 첨성리가 점성리로 바뀌었다.¹⁰⁴⁾ ‘첨성(瞻星)’이란 “별을 쳐다본다” “별을 바라본다”는 뜻으로서 그가 이곳에서 천문과 지리를 연구하면서 하늘의 별을 살펴본 것이 때문이다. 그의 묘소는 인근의 능골마을이고, 성호가 학문에 전념하던 곳이 이곳 점성 마을로서



점성고개(철담쪽)

조선 후기 실학사상 기억되어야 할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점성(占星)'이라는 이름은 별의 모양이나 밝기, 그 위치 등을 보아서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일을 말하는데, 첨성이 점성으로 바뀌게 된 경위는 확실하지 않다. 이 고개는 그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명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난종(鄭蘭宗) 선생 묘역 및 신도비

대야동(속담)의 수리산 남쪽 기슭, 속담동 산 3번지에 위치한다. 정난종(1433~1489)선생은 세조 때의 공신으로 성리학에 밝았고, 금석문에도 그의 편적이 많이 남아있다. 이곳은 조선조 시대쿠가의 묘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고고미술사, 금석문, 묘제 등의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속담마을에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 95호로 지정된 동래 정씨 동래군과 종가(宗家)가 보존되어있다.

□ 정장들

대야동(속담)의 속담마을 앞 갈치저수지가 들어선 곳이다. 작은 봉수굴, 큰 봉수굴, 속담천 등의 물이 흘러드는 곳이다. '정장들'의 내력은 확인할 수 없으나 정장들 서쪽 판서굴의 정판서로 인하여



죽림천

104) 시흥군, 『시흥군지』 상, 1988, 225~229쪽.

붙여진 이름이거나 정난중 선생 묘역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볼 수 있다.

□ 죽암천(竹岩川)

대야동의 둔대초등학교 앞을 지나 서쪽의 반월천으로 흐르는 내이다. 대감-대암-죽암은 복개마을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대=죽(竹)의 혼차 표기로 본다. 그러나 하천의 명칭은 『군포시 행정지도』에 대감천, 죽암천이 각각 별개의 하천으로 표시되어 있다.

□ 지방바위골

대야동(둔대)의 둔터 서북쪽 골짜기이다. 시해안고속도로 순산터널이 시작되는 남쪽 입구가 된다. '지방바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 접예골

대야동(둔대)의 점성고개 북쪽 골짜기이다. 시해안고속도로 팔곡터널의 북쪽 출구 부근이 된다. 둔터마을 서쪽이 되는데 명칭의 유래는 확인할 수 없다.

□ 큰 말 : 대촌(大村)

대야동(도마교)의 송정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그전 도마교리의 원 마을이 되며, 가장 큰 마을이다. 한국전력 사택의 북쪽 마을이다.

□ 큰 봉수골

대야동(속담)의 감치계수지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판서골의 남쪽을 작은 봉수골, 판서골의 위쪽을 큰 봉수골이라 한다. '봉수'는 옛날의 통신수단인 봉수대를 뜻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105)

□ 테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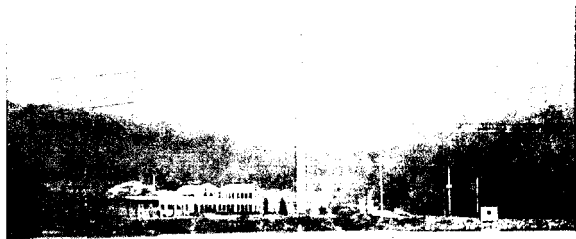
대야동(둔대)의 반원계수지 계방 동쪽 끝에 있는 높이 158.2m의 산이다. 산 정상은 안산시의 군포시 경계가 된다. 둔터마을 동북쪽의 우회산이 이 산 때문에 북쪽으로 밀려나서 테미산 남쪽 남산평이 서울이 되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다. (우회산 참조) '테미'는 대개 산 위에 성터가 있는 경우에 붙여지는 이름으로서 '테를 두른 뫼'라는 뜻에서 테미산이라 한다. '테'는 테두리를 말하며, 나무의 나이테, 장터의 터와 동근어가 되며 '위(圍)'의 뜻을 지닌 말이다. 106) (군포의 산 참조).

105) 옛날 봉수대가 있었던 곳은 대개 '봉우재' 혹은 '봉우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10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경기편 하, 1986, 486쪽.



테마산



관서관

□ 판서골(判書洞)

대야동(속단)의 갈치저수지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정판서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며¹⁰⁷⁾, 속달마을의 정난중 묘소와 신도비 등이 있어서 쉽게 수궁할 수 있다. 판서는 조선시대 6조(六曹)의 장관으로 정경(正卿)이라고도 하는 정2품 벼슬을 말한다.

□ 팔곡(八谷)터널

대야동(둔대)의 서남쪽 서해안고속도로가 수리산 줄기를 지나는 터널이다. ‘팔곡’은 그전 수원(화성)군 반월면(지금 안산시 팔곡동) 팔곡리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여덟마’라는 산 이름에서 비롯되었다¹⁰⁸⁾는 설과 마을이 8개의 골짜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설¹⁰⁹⁾이 있다.

□ 해주촌(海州村)

대야동(둔대)의 둔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반월저수지의 물가 마을이 되며, 해주는 황해도의 해주를 말한다. 특한 해주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¹¹⁰⁾



해주촌

- 107) 정진호 (남, 70세, 속달동 169, 판서관) 증언.
108) 수원시, 『수원시사』(중), 1997, 732쪽.
109) 경기도, 『지명유래집』, 1987, 378쪽.
110) 경용학(남, 76세, 속단동 해주촌 거주) 증언.

□ 행갈곡

대야동(대야미)의 김만기 선생 묘역과 그 동쪽 일대의 골짜기를 말한다. 능내터년의 남쪽 골짜기이다.

□ 행강들

대야동(대야미)의 갈티마을 동쪽 골짜기이다. 수도권 전철 안산선이 지나는 대야미 역사 일대의 들판으로서 '행갈골'과 관련된 이름으로 보이나 내력을 확인할 수 없다.

□ 활터 : 수리정(修理亭)

대야동(숙달)의 남다골 마을 동쪽에 있는 활쏘기 장소이다. 수리정이라는 정자와 함께 활을 쓰는 곳으로 조성되었다.



활터(수리정)